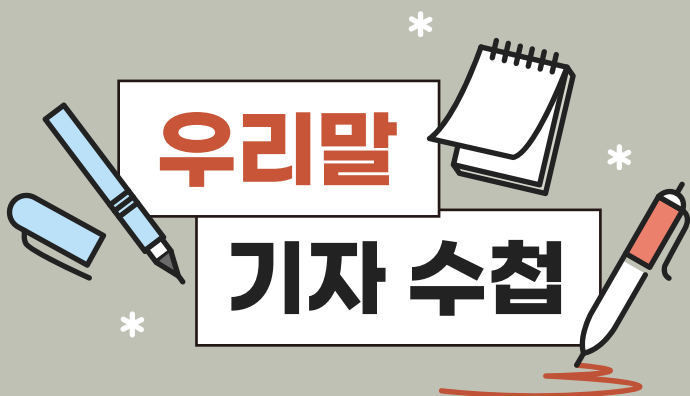






우리말 기자 수첩

펴 낸 날 2024년 12월

펴 낸 이 김덕호

펴 낸 곳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주 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702호

전 화 02-6346-9992

편집위원 김세훈(한국경제)/이경우(서울신문)/이병갑(전 국민일보)

정인환(국어문화원연합회)/정혁준(한겨레)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공공언어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쉽게 써라. 모든 글쓰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언론에서도 오랜 지침 같은 문장입니다. 4월 7일은 신문의 날입니다. 독립신문 창간 날짜와 같습니다. 독립신문의 창간 정신을 잇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창간호 논설에서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하고,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라면서 “한글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글로만 적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기사를 쓰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쉬운 말’은 언론 글쓰기에서 첫 번째 덕목이 됐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 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언어도 공공언어입니다. 언론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처에서 언론의 신뢰를 말합니다. 언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의 시작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말은 신뢰를 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공정을 말하지만, 모른 체할 때도 있습니다. 언론 언어는 쉽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늘 곁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대중이 널리 쓰는 말인지, 차별하지 않는 말인지, 기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은 아닌지 수시로 살피고 다듬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 안내서에 담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람 이름을 적을 때 직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외국 사람 이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밝혀야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을 위해 기사에서는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로마자 약칭도 혼합니다. 그렇다 보니 독자는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로마자로 된 국제기구의 약칭도 우리말로 만들어 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말, 쉽게 틀리는 말, 차별하는 말들에 대한 안내도 해 놓았습니다.

문장은 정확해야 합니다. 주어와 술어의 호응 관계는 물론 서로 잘 어울리는 말, ‘은/는’과 ‘이/가’의 구별, ‘-라고’와 ‘-라며’의 구별 등 기사에서 빛나가는 표현, 기사 문장의 능동과 피동 문제, 중복 표현, 번역투 문장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활용법, 취재원 찾기, 좋은 기사의 요건, 제목, 전문(리드)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언론사마다 기사를 쓰는 데 필요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침서가 없는 언론사도 적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이 되려면 ‘언론 언어’에 대해 모두가 말해야 합니다. 그 래야 언론이 삽니다. 쉬우면 널리 통합니다. 쉬움과 공정은 민주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가 널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안내서를 내놓습니다.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표기 원칙과 올바른 표현

① 사람 이름과 부름말	10
② 땅 이름	12
③ 기구와 단체 이름	13
④ 숫자	19
⑤ 단위	22
⑥ 낱말과 표현	24
ㄱ) 한자말 덜어 내기	24
ㄴ) 자주 틀리는 말	28
ㄷ) 비슷하지만 다른 말	33
ㄹ) 잘못 쓰이는 말	36
ㅁ) 치우치지 않는 말	38
ㅂ) 차별하지 않는 말	40
⑦ 외국어 표기	42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46
ㄱ) 나열하는 말끼리 짝을 맺어 주자	46
ㄴ)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를 살피자	48
ㄷ) 서술 형태를 일치시키자	49
ㄹ) 부사어가 꾸미는 말을 살피자	53
ㅁ) 상황에 어울리는 조사가 따로 있다	55
ㅂ) 문맥에 맞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자	56
ㅅ) 같은 조사나 어미를 겹쳐 쓰지 말자	60
ㅇ) 필수 성분을 생략하지 말자	61
ㅈ) 능동, 피동을 구별하여 쓰자	62
ㅊ) 겹말, 중복, 군더더기를 없애자	64
ㅋ) 번역 투를 남용하지 말자	69
ㅌ) 기타	70

02 기사 작성의 기본 요건

① 언론 윤리 및 보도 준칙	73
② 기사 찾기: 무엇이 기사가 될까	75
③ 기사의 가치와 요건	77
④ 취재하기	79
(ㄱ) 보도자료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79
(ㄴ) 취재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82
⑤ 기사 쓰기	84
(ㄱ) 기사의 종류	84
(ㄴ) 전문(리드) 쓰기	89
(ㄷ) 좋은 기사의 요건	96
(ㄹ) 기사의 화룡점정 '제목'	96
(ㅎ) 문체 만들기 : 이야기체 기사	97

03 부록

부록 1. 쉽게 다듬은 말	103
부록 2. 헛갈리는 말 / 틀리기 쉬운 말	106
부록 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157

01

표기 원칙과 올바른 표현



① 사람 이름과 부름말	10
② 땅 이름	12
③ 기구와 단체 이름	13
④ 숫자	19
⑤ 단위	22
⑥ 낱말과 표현	24
⑦ 외국어 표기	42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46

① 사람 이름과 부름말

(ㄱ) 외국인의 성과 이름은 그 나라에서 쓰는 차례대로 밝혀 적는다.

- ① 반드시 한글로 적되 새김을 덧붙인다면 로마자, 한자, 그 밖의 문자를 괄호로 묶어 함께 드러낼 수 있다.
- ② 국적을 따져 보고 그 나라가 따르는 순서에 맞춘다. 활동명이 널리 알려졌다면 달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보기>

- 류이치 사카모토 → 사카모토 류이치(※ 일본인은 성, 이름 순으로 띄어 적는다)
- 웨란 마 → 마웨란(※ 중국인은 성, 이름 순으로 붙여 적는다)
- 요요 마 → 요요 마(※ 중국계 미국인 첼리스트. 활동명임) / 마유유(※ 본명)

- ③ 한 번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킬 때는 성에 직함을 붙여 쓴다. 헛갈릴 여지가 있거나 기사 문체상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성과 이름을 또는 이름만 쓸 수 있다.

<보기>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만난다.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에 출석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 여운형은 어릴 적부터 몸 쓰기를 즐겼다. 여운형에게...

(ㄴ) 성과 이름을 밝힌 뒤 호칭을 쓴다. 덧붙는 호칭과 직함이 길거나 이를 두드러지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과 이름을 호칭 뒤로 뺄 수 있다.

- ① 별다른 직함이 없으면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씨’로,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성별에 따라 ‘군’ 또는 ‘양’으로 부른다. 내용과 맥락에 맞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스포츠 및 연예 기사에서는 ‘씨’를 쓰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기사에서 체육인과 연예인을 다룰 때는 ‘씨’를 붙여 부른다.

- ② 나이와 성별, 국적, 소속, 주소 등은 성과 이름 뒤에 표시한 뒤 괄호로 여담는다. 기사 종류와 문체에 따라 괄호를 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

<보기>

- 김승민(24·남·한국대 신문방송학과) 씨
- 홍익태(47·서울 서초갑) 의원
- 섬석산은 올해 실탄섯이다.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지 스무 해가 넘었다.

(ㄷ) 성과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는 실명이 아님을 밝히거나 이름을 숨겼음을 나타낸다.

- ① 이름을 가릴 때는 성 다음에 ‘아무개’ 또는 ‘모’를 쓴다. 띄어 쓰는 것이 바르나 붙여 쓸 수 있다.

※ 더 가려서 나타낼 때는 성의 첫소리만 자음으로 밝혀 쓸 수 있다.

<보기>

- 김아무개/김모 씨
- 최아무개(21)/최모(21) 씨
- ○○사에서 일하는 ㄱ 씨

- ② 성과 이름을 모두 가려야 할 때는 그 사람을 짐작하거나 집어 낼 수 없도록 성·이름을 지어 쓰고 가짜 이름이라는 새김을 붙인다.

<보기>

- 대학 1학년 스무살 이종민(가명) 씨는 가장이다.
- 소고기를 구워 먹던 50대 김승찬(가명) 씨의 입속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씹혔다.
- 김정연(30·가명)씨는 “은도와 습도 모두 아직 여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② 땅 이름

(ㄱ) 땅 이름은 모두 한글로 쓰되 낯선 곳을 처음 알릴 때는 한자와 로마자, 그 밖의 문자를 괄호에 넣어 함께 나타낼 수 있다.

- ① 행정구역은 공식 명칭에 맞춰 풀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읽기 쉬운 표기를 위해 줄여 쓸 수 있다.

<보기>

- 서울특별시/서울시/서울
- 부산광역시/부산시/부산
- 전라북도/전북도/전북
- 경상남도/경남도/경남

※ 도와 광역시 단위는 행정 기구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지명과 구별하기 위해 땅을 나타낼 때는 ‘도’나 ‘시’를 빼고 쓰기도 한다. ‘서울시’와 ‘서울’로 구분해 지칭 대상을 다르게 하는 식이다.

- ② 외국 지명 앞에는 그 땅이 속한 나라를 밝혀 적는다. 구체적인 지명은 그 나라 행정 체계에 맞춰 쓴다.

<보기>

- 중국 베이징
- 일본 도쿄
- 미국 캘리포니아주
- 프랑스 파리

- ③ 외국 지명은 현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장소를 비롯해 외국에 있는 건물 등을 처음 드러낼 때는 땅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곳이 속한 나라를 앞에 밝혀 둔다.

<보기>

- 미국 프린스턴대
-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 일본 도쿄대

③ 기구와 단체 이름

(ㄱ) 전체 이름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칭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반드시 필요할 때는 두 번째부터 약칭으로 적을 수 있다.

<보기>

-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행안부는 ...
- 한국경제인협회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

※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약칭은 전달력을 떨어뜨린다. 가능하면 전체 이름을 적는 게 바람직하다.

<약칭이 있는 정부 부처>

국무총리실(국조실)	여성가족부(여가부)
기획재정부(기재부)	국토교통부(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해수부)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방방재청(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농촌진흥청(농진청)
보건복지부(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고용노동부(고용부)	해양경찰청(해경청)

③ 기구와 단체 이름

(-) 외국이나 국제 기구, 단체의 이름은 우리말 번역어를 사용한다. 약칭을 사용할 때도 우리말 번역어를 쓴다. 로마자 약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말 약칭과 함께 처음에 괄호 안에 적을 수 있다.

<보기>

- 경제협력개발기구(경협기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원칙)는 ... / 경협기구(필요 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경협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원칙)는 ... / 경협기구(필요 시)는

<로마자 약칭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0차 ICAO 총회에서 3년 임기 이사국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ICAO는 1947년 설립된 뒤 항공산업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ICAO 이사회는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항공운송의 각종 기준을 제·개정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약칭을 로마자 ‘ICAO’로 나타내면 독자들은 어렵다. 뒤에 오는 ‘ICAO’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모른다. 또 ‘ICAO’를 ‘이카오’로 읽어야 하는지, ‘아이시에이오’로 읽어야 하는지도 헷갈린다. 결국 읽지 않고 보고 넘기는 예가 흔하다. 불친절한 표현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계속 쓰든지 아니면 우리말 약칭으로 대신하든지 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항기구’로 줄여 쓸 수 있다. 언론 언어의 첫 번째 원칙은 ‘쉬워야 한다’이다.

다음은 ‘우리말약칭제안모임’(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이 제안한 국제기구 우리말 약칭이다.

온 이름	우리말 약칭	로마자 약칭
개발원조위원회	개원위	DAC
경제협력개발기구	경협기구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기구	ILO
국제민간항공기구	민항기구	ICAO
국제박람회기구	박람회기구	BIE
국제사법재판소	국사재	ICJ

국제수로기구	수로기구	IHO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구	IEA
국제연합	유엔 / 국련	UN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위	IOC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기구	IAEA
국제전기통신연합	국통련	ITU
국제통화기금	통화기금	IMF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기구	ISO
국제해사기구	해사기구	IMO
국제형사재판소	국형재	I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기구	GGGI
녹색기후기금	녹색기금	GCF
독립국가연합	독국련	CIS
미주개발은행	미개은	IDB
북대서양조약기구	북대기구	NATO
세계관세기구	관세기구	WCO
세계기상기구	기상기구	WMO
세계무역기구	무역기구	WTO
세계보건기구	보건기구	WHO
세계지방정부연합	세방련	UCLG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재산기구	WIPO
아시아개발은행	아개은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투은	AII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태경협체	APEC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개은	AfDB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공위	FOMC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안협	OSCE

③ 기구와 단체 이름

유엔개발계획	유엔개발	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 유엔교육문화	UNESC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유엔상거래법위	UNCITRAL
유엔군축연구소	유엔군축연	UNIDIR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협약	UNFCCC
유엔난민기구	난민기구	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국(사무소)	마약범죄국	UNODC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회의	UNCTA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막협약	UNCCD
유엔산림포럼	유엔산림	UNFF
유엔산업개발기구	유엔산업	UNIDO
유엔세계관광기구	관광기구	UNWTO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WFP
유엔식량농업기구	식농기구	FAO
유엔아동기금	아동기금 / 유니세프	UNICEF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태경사위	UNESCAP
유엔인구기금	인구기금	UNFPA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유엔재난국	UNDRR
유엔통계위원회	유엔통계위	UNSC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팔난민기구	UNRWA
유엔평화유지군	평화군 / 유엔평화군	UNPKF
유엔평화유지활동	평할 / 유엔평할	PKO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조달기구	UNOPS
유엔한국재건단	한국재건단	UNKRA
유엔협회세계연맹	유엔협연	WFUNA
유엔환경개발회의	환경회의	UNCED
유엔환경계획	유엔환경	UNEP

유엔훈련연구기구	유엔훈련	UNITAR
이슬람개발은행	이개은	IsDB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인태경협체	IPEF
핵확산금지조약	핵확금	NPT

(=) 로마자를 그대로 읽은 한글 표기가 널리 알려진 기구나 단체는 그대로 쓸 수 있다.

<보기>

- 국제연합(UN) → 유엔
- 유엔이 키프코스의 통일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
- 나토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열린다.

(=) 약칭으로 적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어 약칭이 없거나 적절치 않을 때는 ‘이 단체’, ‘이 기구’, ‘이 제도’ 등으로 적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괄호 안에 로마자 약칭을 적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처음 보일 때 한 번 사용할 수는 있다.

<보기>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12일부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 기구는…
- 국내분쟁조정위원회(NDRC)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 (ㄱ) 로마자로 널리 쓰이는 국내 단체나 기구, 기업명이더라도 한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KIST →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기연)
- KAIST →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과기원)
- SKM/SK텔레콤 → 에스케이엠/에스케이텔레콤
- LG건설 → 엘지건설
- YS/DJ → 와이에스/디제이

- (ㄴ) 외국 언론 매체는 로마자로 된 약칭을 쓰지 않고 전체 이름을 한글로 적는다. 괄호 안에 로마자 약칭을 적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후에는 전체 이름을 한글로 적는다..

<보기>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관광산업을 조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 뉴욕타임스(NYT)는 저커버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 남북 탁구 선수들이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페(AFP)의 2024 파리올림픽 10대 뉴스에 뽑혔다. 아에프페는...

④ 숫자

- (ㄱ)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는다.

- ① 만 단위로 끊고 숫자 단위를 구별해 주는 쉼표는 버려 열린 눈에 들어오게 쓴다.
※ 환율과 지수 등을 나타낼 때는 예외로 쉼표를 쓸 수 있다.

<보기>

- 343,000 → 34만 3000
- 1천800 → 1800

- ② 대략적인 수치로 규모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반올림한 숫자를 쓴다. 이때 ‘약’, ‘가량’ 따위를 붙여 숫자가 근사치임을 밝힌다.

<보기>

- 17만 8923 → 약 17만 8900/ 약 17만 9000
- 19만 9500 → 약 20만/20만가량/20만 수준

- ③ 공문서 또는 행정명령 등에 붙은 번호는 서식으로 보아 만 단위로 끊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다.

- (ㄴ) 숫자와 다른 문자를 같이 쓸 때는 그 문자와 어울리게 맞춰 쓴다.

- ① 숫자 뒤에 단어를 붙여 쓸 때는 그 말과 어울리게 숫자를 한글로 바꿔 쓴다.
※ 사람 수나 물건 개수를 나타낼 때 수가 10보다 커지면 아라비아 숫자로 쓸 수 있다. 가령 백스물여덟 명보다 128명이 읽기 쉽다.

<보기>

- 3차례 → 세 차례
- 4번 → 네 번
- 5배 → 다섯 배

- 6가지 → 여섯 가지
- 25살 → 스물다섯 살/25세
- 30살 → 서른 살/30세
- 3달 → 석 달/세 달

- ② 아라비아 숫자를 영어와 함께 쓸 때는 그 숫자를 영어와 어울리게 소리 내어 조사를 붙이거나 그와 무관하게 ‘일’, ‘이’, ‘삼’, ‘사’처럼 우리식으로 읽어 토씨를 단다. 단, 둘 중 하나로 통일해 쓰는 게 일반적이다.

※ 영어와 숫자를 함께 쓸 때, 1부터 10까지는 영어식 혹은 우리식으로 읽어 토씨를 붙이고, 11부터는 우리식으로 읽어 토씨를 다는 식으로 쓸 수 있다.

<보기>

- 지피티(GPT) 3를/지피티(GPT) 3을
- 지(G)20은

(㉞) 날짜를 나타낼 때는 글 쓴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종전까지를 ‘지난’, 이후를 ‘오는’으로 구분한다.

※ 기사가 다른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차를 따져 현지 시간을 밝혀 써야 한다.

- ① 같은 달에 있는 날짜를 표기할 때는 오늘을 기준에 놓고 그 전은 앞머리에 ‘지난’을, 그 후에는 ‘오는’을 붙여 날을 표현한다.

* 종이신문 기사는 이튿날 지면에 실리므로 이를 뒤 날짜부터 ‘오는’을 매겨서 쓴다.

<보기>

- 오늘이 13일 → 지난 12일, 11일, 10일/오는 15일, 16일, 17일

- ② 다른 달에 있는 날짜를 나타낼 때는 이번 달을 잣대 삼아 직전 달은 ‘지난달’, 그 전은 ‘지난 ○월’로 적는다. 직후 달은 ‘다음달’, 그 후는 ‘오는 ○월’로 쓴다.

<보기>

- 이번 달이 8월 → 지난달(7월), 지난 6월, 지난 5월/다음달(9월), 오는 10월, 오는 11월

(㉞)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쓰되 오전인지 오후인지 분명히 밝힌다.

- ① 특정 시각을 가리킬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시는 우리식으로, 분과 초는 한자어로 읽는다.

<보기>

- 오후 1시 35분 23초(한 시 삼십오 분 이십삼 초)
- 오전 9시 17분(아홉 시 십칠 분)

- ② 12시는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 대신 낮과 밤으로 쓴다.

<보기>

- 오후 12시 → 낮 12시
- 오전 12시 → 밤 12시/0시

- ③ 일정 시간을 나타낼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식으로 바꿔 쓴다.

<보기>

- 1시간 동안 → 한 시간 동안
- 불이 9시간 만에 꺼졌다 → 불이 아홉 시간 만에 꺼졌다

⑤ 단위

(-) 단위는 영문 약자로 쓰되 낱선 것일 때는 괄호로 묶어 함께 적을 수 있다.

① 특정한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낼 때는 영문 약자로 된 단위를 쓴다.

<보기>

● 50cm, 100km, 2000m², 100dB(데시벨), 10nm(나노미터)

※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 등 생소한 단위에는 익히 알려진 단위와 겹쳐 그 규모를 헤아리게 표시할 수 있다. 가령 '10nm'라면 '10nm(1nm는 10억 분의 1m)'로 나타낸다.

② 마땅한 약자가 없을 때는 단위를 한글로 나타낼 수 있다.

③ 한글과 붙을 때는 약자 단위를 쓰지 아니하고 한글로 바꿔 쓴다.

<보기>

● 몇m → 몇 미터
● 수십m → 수십 미터
● kg당 → 킬로그램당
● L당 → 리터당

(-) 외국 화폐 단위는 기호를 쓰지 않고 한글로 나타낸다.

① 외국 돈은 한글로 쓰되 필요할 경우 원화로 계산해 괄호 안에 적는다.

<보기>

●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 원)
● 10만 엔(약 93만 원)
● 50만 위안(약 9400만 원)

②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이름의 화폐 단위를 쓸 때는 국명을 밝혀 쓴다.

<보기>

● 홍콩 달러/호주 달러
● 스위스 프랑/기니 프랑

⑥ 낱말과 표현

말은 세상을 반영한다. 이 관계를 무시하면 말은 세계와 동떨어져 저 홀로 우연히 생겨나고, 세계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추상이 돼 버린다. 때로 말을 말로서 바라보아 그것의 틀과 소리를 들여다봐야 하나 말은 형식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다. 말은 그 내용을 자기 밖 세상에서 가진다. 말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는 말을 어떻게 세상과 연관시킬지에 달렸다. 우리는 민주적 사회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적 언어로 쓰고 말한다. 읽기 쉬운 말로 같음하고, 알맞은 뜻으로 쓰고,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일 없이 말해야 한다.

(-) 한자말 덜어 내기

한자말이 우리말에 준 영향을 헤아리면 이를 모두 쓰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두고도 습관처럼 쓰는 말을 줄이자는 제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굳어진 군더더기를 털어 내자는 뜻이다.

입장(立場)

‘당면한 상황’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말로 여기저기 쓰여 한 글에 여러 차례 보이는 때가 많다. 이 단어가 두루 넓은 범위를 표현하는 탓인데, 그만큼 뜻이 모호하다. 처지, 견해, 주장, 생각, 방침 등으로 앞뒤를 고려해 바꿔 쓰거나 토씨를 달아 아예 쓰지 않으면 뜻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

<보기>

- 소비자 입장에서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
- 농민 요구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 농민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쪽으로/처지에서
- 이 같은 입장을 비판했다. → 이 같은 견해/생각/태도/자세를 비판했다.
- 정부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 정부 방침/의중/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비(比)하다

대상끼리 맞대어 볼 때 쓰는 말이다. 지표와 숫자를 비교하는 기사에 자주 나온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견주다’, ‘비교하다’, ‘-보다’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쓰지 않고 연결어미 등으로 대조하거나 비교할 수 있으면 빼도 된다.

<보기>

- 전년 동기에 비해 3% 상승했다. →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 상승했다.
- 미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 미국에 견줘/미국과 비교해 중국과 일본은
- 전년 동기 대비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 사망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데 비해 → 사망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지만

대(對)하다

주로 ‘~에 대해’, ‘에 대한’ 꼴로 쓰여 무언가를 대상이나 주제로 삼을 때 쓴다. 주의를 쏟지 않으면 한 기사에 이 표현을 수차례 써 버려 무엇을 상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씨가 굳어져 모조리 털어내기도 어려우니 되도록 줄여 쓰되 자연스러울 때는 내버려 둔다.

<보기>

- 기후변화에 대한 강연을 연다. →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 아무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아무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다. → 음악을 향한 관심이 높다.
- ㄱ 회사에 대해 → ㄱ 회사와 관련해
- 아무개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아무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아무개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의(依)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을 버릇처럼 이어가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대상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원인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가 흐릿해진다.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토씨를 쓰는 쪽으로 고칠 수 있다.

<보기>

- 이들은 소방 당국에 의해 3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다.
→ 소방 당국은 3시간 만에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이들은 3시간 만에 소방 당국에 모두 구조됐다.
- 일본군에 의해 수난을 겪어야 했다. → 일본군에게 술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인(因)하다

‘의하다’와 비슷하게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특정 사실로 이어졌을 때 쓴다. 마찬가지로 토씨를 달거나 다른 말로 바꿔 끼울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자주 쓰인다.

<보기>

-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몇 차례 미뤄졌다.
→ 이 같은 사정으로/사정 탓에/사정 때문에 몇 차례 미뤄졌다.
-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이번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수요 급감으로 인한 가격 하락 →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하락
- 부주의에 의한 화재 →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부주의가 원인인 화재

접(接)하다

소식과 명령 따위를 받거나 대상끼리 맞닿은 모양새를 나타낼 때 또는 왕래를 이어 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도 여러 용례로 쓰이는 탓에 별 고민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불러오는 말이 돼 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도 여기저기 군더더기처럼 덧붙는다. 사용 범위가 넓으니 맥락을 살펴 맞춤형 말을 써야 한다.

<보기>

- 이 문장만큼 세태를 깔끔하게 정리한 말을 접해 보지 못했다.
→ 이 문장만큼 세태를 깔끔하게 정리한 말을 보지 못했다.
- 플라시보 효과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현상이다.
→ 플라시보 효과는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심리 현상이다.
- 평범한 사례에서는 접하기 힘든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
→ 평범한 사례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구조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신문 기사로 접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신문 기사로 알게 됐다(전해 들었다).

위치(位置)하다

대상이 놓인 장소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다. 우리말 ‘있다’로도 그만일 때가 많아 굳이 한 자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마저 빼고 쓸 수 있으니 소재를 나타내려고 ‘위치하다’를 쓸 일은 적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의미로 ‘소재하다’를 쓰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쓸 이유가 없다.

<보기>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 병원에서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방 대학은/지방에 있는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날 두 사람은 ㄴ대가 위치한 대전을 찾아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두 사람은 ㄴ대가 있는 대전을 찾아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은 대전 ㄴ대를 찾아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투입(投入)하다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이루려는 바에 넣는다는 뜻으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는 기사에 주로 쓰는 말이다. ‘들이다’ ‘쓰다’ 등으로 충분하다.

<보기>

- 서울시는 약 5000만 원을 투입해 이 같은 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는 약 5000만 원을 들여 이 같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 소방 당국은 현장에 대원을 보내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 예산 중 일부를 교육비로 투입했다. → 일부 예산을 교육비로 썼다.

부상(浮上)하다

현상이 관심을 받거나 누군가 더 좋은 자리에 올랐을 때 쓰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관심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막 눈에 띄 무렵을 나타낸다. 군말 없이 ‘떠올랐다’로 쓸 수 있다. 앞 뒤 사정을 헤아려 ‘주목받고 있다’ ‘눈길을 끈다’ 등으로 바꿔 표현하면 된다.

<보기>

-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으로 떠올랐다.
- 협상 문제가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부상했다.
→ 협상 문제가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는다.
- 이 책은 한 달 만에 1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로 부상했다.
→ 이 책은 한 달 만에 1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소요(所要)되다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등을 나타낼 때 자주 쓴다.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맥락을 보고 ‘들다’ ‘걸리다’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행정 문서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 기사에서 그대로 받아적어 독자들에게 문턱을 높일 이유가 없다.

<보기>

- 5년 동안 약 1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5년 동안 약 1400억 원이 들어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에서 주요 지역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 서울에서 주요 지역 도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으로 예상된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 추석 차례상을 차릴 때 소요되는 비용 → 추석 차례상을 차릴 때 드는 비용

(ㄴ) 자주 틀리는 말

단어가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이 지닌 뜻과 다르게 쓰이기를 거듭하다가 입말과 글말에 의심 없이 오르내리다 보면 오류인데도 잘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사례는 곳곳에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탓에 걸리게 마련이다. 아래 늘어놓은 목록은 지침일 뿐이니 틈틈이 정리해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접수하다

본래 돈이나 물건, 신청 또는 신고를 받는다는 뜻인데, 여러 보도에서 거꾸로 쓴다. 돈이나 물건을 내고 신청과 신고를 했다는 맥락에 접수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이때는 원서나 서류를 제출했다고 써야 맞는다.

<보기>

- ㄱ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ㄱ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꾸린다.
→ 신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꾸린다.
- 한 회사가 도청에 허가를 접수했다. → 한 회사가 도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자문하다

일을 더 빠르고 요령 있게 해내려고 전문가나 솜씨 좋은 사람에게 생각을 물을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술한 기사에서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 전문가가 회사에 자문해 준다는 꼴로 쓴다. 전문가는 자문에 답해 주는 사람이지만, 자문하는 이가 아니다.

<보기>

-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 법인에 자문한 결과 ○○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 기관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곳이다.
→ 이 기관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을 제언하는 곳이다.

탑재하다

배와 비행기, 차량 등에 물건을 싣는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장비에 기술을 넣는다는 의미로도 쓰고 있다. 이때는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도입한다는 등 맥락을 살펴 마땅한 말로 바꿔 쓰는 게 바르다.

<보기>

- 로봇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다. → 로봇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 일부 모델에 시험 프로그램을 탑재해 검증 작업을 했다.
→ 일부 모델에 시험 프로그램을 넣어 검증 작업을 했다.
-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탑재된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내장한(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들어간)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장본인

일을 피해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일을 중심에서 밀어붙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사태를 이끈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말 대신 주인공이나 주역, 당사자, 사람 등으로 표현한다. 또 이 말이 없어도 뜻이 통할 때가 있는데, 군더더기로 여겨질 때는 지워도 좋다.

<보기>

- ㄱ씨와 ㄴ씨는 60년대 말 탄광 생활을 겪은 장본인이다.
→ ㄱ씨와 ㄴ씨는 60년대 말 탄광 생활을 한 당사자다.
- 그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한 장본인이다.
→ 그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구상한 주역이다).

역임하다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쳤을 때 쓰는 말로, 이때 골자는 여러 직책을 맡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번 그 일을 해 봤다는 뜻으로는 ‘역임했다’를 쓸 수 없다. 이때는 ‘지내다’, ‘재직하다’ 등으로 쓰는 게 좋다.

<보기>

- 그는 2015년 입학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그는 2015년 입학처장을 지낸 바 있다.
- ㄱ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 ㄱ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을 지냈다(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와중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쓰는 말이다. 단순히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빌리는 일이 잦은데, 그럴 때는 ‘도중’ ‘중’으로 써야 옳다. ‘와중’은 그 가운데 이곳저곳 잡음이 들릴 때를 가리킨다.

<보기>

- 군에서 복무하는 와중에도 선행을 이어 갔다. → 군 복무 중에도 선행을 이어 갔다.
- 방학 기간인 와중에도 학교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다.
→ 방학 기간에도 학교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다.

수입산

어떤 곳이나 시점에 산출된 물건을 뜻하는 접미사 ‘-산’이 ‘수입’에 붙은 꼴이다. 두 말을 아우르면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기본으로 ‘-산’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린다. 수입은 그렇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온 물건을 가리킬 때는 ‘수입품’으로 쓰거나 ‘-산’을 떼어 내야 한다.

<보기>

- 이 식당은 수입산 망고 대신 국내산을 써서 손님을 모았다.
→ 이 식당은 수입 망고 대신 국내산을 써서 손님을 모았다.
- 수입산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 수입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반증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반증에는 두 가지 뜻풀이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나 주장이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고, 또 하나는 얼핏 모순되는 듯하나 기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첫째 의미는 오해할 여지가 없으나 둘째 의미가 ‘방증’이 와야 할 곳과 헛갈려 자주 그릇되게 쓰인다. 방증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 사정을 밝혀 증명에 힘을 보태는 증거다. 그러니 어떤 사실과 어울리며 그 사실을 간접 증명할 때는 ‘방증’을 써야 옳다.

<보기>

-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점이 그 필요성을 반증한다.
→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점이 그 필요성을 반증한다.
-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전기세

전기료는 전기를 쓰고 내는 요금이다. 전기료를 가리키려고 ‘전기세’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때 ‘세’는 세금을 뜻하므로 ‘전기를 쓴 대가로 내는 돈’을 의미할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을 쓰려 한다면 ‘전기세’를 밀어내고 ‘전기료’를 써야 한다.

<보기>

- 에어컨만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금방 꺼 버린다.
→ 에어컨만 켜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금방 꺼 버린다.
- ㄱ당 대표는 전기세 지원을 내세워 맞불을 댔다.
→ ㄱ당 대표는 전기료 지원을 내세워 맞불을 댔다.

-여

‘그 수를 넘음’을 뜻하는 말로, 대략으로 어떤 수치를 넘어섰을 때 쓰는 단어다. 그러나 이 말을 쓸 때는 어림을 나타내는 ‘약’, ‘가량’ 같은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기준으로 삼은 수를 웃돌지도 않는데 ‘-여’를 써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수를 넘겼을 때여야 한다.

<보기>

- 약 10여 차례에 걸쳐 항의 문자를 보냈다.
→ 10여 차례에(약 10차례에) 걸쳐 항의 문자를 보냈다.
- 피해자 30여 명(30명가량)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피해자 30여 명이(30명가량)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ㄴ) 비슷하지만 다른 말

뜻이 닮았다는 이유로 섞어 쓰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사례가 많다. 이것과 저것을 가려낼 줄 모른다면 둘 다 똑바로 쓸 수 없다.

아닌/아니라

‘아닌’과 ‘아니라’는 모두 ‘아니다’에서 뺀어 나왔으나 두 말의 용법은 사뭇 다르다. ‘아닌’은 앞말이 뒷말에 포함될 수 있을 때, ‘아니라’는 앞말과 뒷말이 저마다 독립적일 때 쓸 수 있다. ‘까마귀가 아닌 새’는 자연스럽지만 ‘까마귀가 아닌 인간’은 어색해 보인다. 뒤의 사례는 ‘까마귀가 아니라 인간’으로 써야 한다.

<보기>

- 그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이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이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참/한창

두 말 모두 시간과 관련한 뜻을 지녔다. ‘한참’은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을 가리킬 때 쓰고,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가 무르익은 때를 뜻한다. 쉽게 말해 ‘한참’은 시간의 경과, ‘한창’은 사태의 왕성을 의미한다.

<보기>

-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새다/새우다

‘새다’는 자동사로 날이 밝아 옴을 나타낼 때 쓴다. 목적어 없이 날이 샌다거나, 밤이 샌다고 말해야 옳다. ‘새우다’는 타동사로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지내는 것을 뜻한다. ‘밤’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보기>

-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피다/피우다

‘피다’와 ‘피우다’도 목적어가 필요한지를 중심에 놓고 가려 쓸 수 있다. 꽃이 핀다거나 숲에 불이 일어날 때처럼 무언가 스스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는 ‘피다’를 쓰고 담배 따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뿜어낼 때는 ‘피우다’를 쓴다.

<보기>

- 꺾시는 담배를 피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ㄴ씨를 고소했다.
- 꺾시는 담배를 피우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ㄴ씨를 고소했다.

재연/재현

두 말은 경계를 뚜렷이 잘라 낼 길이 없다. 두 말을 섞어 써도 될 때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두 단어가 뜻하는 바가 똑같지는 않다. ‘재연’은 행위나 일을 되풀이할 때, ‘재현’은 무엇을 다시 나타낼 때 쓴다. ‘재연’은 행위와 일을 다시 보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재현’은 한 번 일어난 현상이나 사태를 다시 불러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보기>

- 상품 이름은 물론이고 무게까지 옛날 그대로 재연했다.
- 상품 이름은 물론이고 무게까지 옛날 그대로 재현했다.

임대/임차

‘임대’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무언가를 빌려주는 것, ‘임차’는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무엇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서 집을 임차한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매기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낸다. 이 역시 섞어 쓸 수 있으나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구분해 표현하는 게 바르다.

<보기>

-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상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빌다/빌리다

‘빌다’는 생각한 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 호소하거나 간청할 때 쓰는 말이고, ‘빌리다’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에서 무엇을 가져오거나 언젠가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남의 재물을 잠시 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니 남의 이론이나 말, 글에서 무언가를 취할 때는 ‘빌린다’고 써야 옳다.

<보기>

- 꺾 의원은 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을 빌어 의혹을 반박했다.
- 꺾 의원은 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을 빌려 의혹을 반박했다.

부분/부문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범위를 뜻한다. 이 범위가 모여 전체를 구성한다. 이때 부분은 전체의 형식적 구분을 가리킨다. ‘부문’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눈 낱말의 부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문은 실질적 내용이 있어 다른 부문과 구별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다룰 때는 ‘부분’을, 부분의 내용을 다룰 때는 ‘부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쉽다.

<보기>

- 팀 해체가 유력한 사업 부분으로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가 거론된다.
- 팀 해체가 유력한 사업 부문으로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가 거론된다.

띄다/띠다

‘띄다’는 ‘뜨이다’를 줄여 쓴 말로, 다른 것보다 두드러져 눈에 잘 보일 때를 뜻한다. ‘띠다’는 색깔과 맛 등 어떤 대상이 특정한 성질을 나타낼 때를 가리킨다. 색깔은 띄는 것이 아니라 띠는 것이다.

<보기>

-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띠는 이들을 싸잡을 수는 없다.
-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띠는 이들을 싸잡을 수는 없다.

참가/참석/참여

세 말 모두 어떤 일에 얽혀 드는 모양을 나타내 비슷해 보이지만 쓸 수 있는 맥락이 다르다. ‘참가’는 큰 행사나 대회에 끼어들었을 때, ‘참석’은 작은 모임이나 행사에 출석했을 때, ‘참여’는 앞장서서 행사를 이끌거나 그 속에서 역할을 했을 때 쓰면 알맞다.

<보기>

- 위원회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 위원회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신부/임산부

‘임신부’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이르는 말이고, ‘임산부’는 임신부와 더불어 아이를 낳은 여성도 아우르는 말이다. ‘임산부’는 ‘임부’와 ‘산부’를 모두 가리킨다. ‘임부’만을 말할 때 ‘임산부’를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보기>

-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해맸다.
-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해맸다.

(㉠) 잘못 쓰이는 말

단어의 꼴을 오해하여 써 오던 용례가 굳어져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들이 있다. 일부 단어는 자연스러운 어휘로 자리 잡아 문장 구조를 이끌고 다니니 바로잡는 데 힘이 많이 든다.

황망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말을 마음이 급해 당황스럽고 허둥지둥하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이들을 돌이킬 때 ‘황망한 죽음’ ‘황망히 떠났다’는 표현을 자주 불러내는데, 이 사전 새김은 이런 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허무하고 쓸쓸한 마음을 나타내려면 ‘허망하다’를 쓰는 것을 권한다.

등극하다

이 말은 어떤 분야에서 으뜸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1위나 최고가 아니라면 등극했다고 할 수 없다. 모임과 단체의 장에 오르거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등극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보기>

-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세계 2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세

세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에 겪는 불편을 이르는 말이다.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와닿는다. 애초 부정적 의미를 담은 말인데, 여러 기사에서는 거꾸로 긍정적 뜻으로 쓴다. 명성을 떨친다고 써야 할 곳에 ‘세’를 펼쳤다는 뜻에서 ‘유명세를 떨쳤다’로 쓰는 식이다.

<보기>

- 이 성분은 살을 빼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비만치료제로 유명세를 탔다.
- 이 성분은 살을 빼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비만치료제로 유명해졌다.

터울

‘터울’은 형제 사이에 쓰는 말이다. 한 어머니에게서 먼저 나온 아이와 그다음 태어난 아이의 나이 차를 가리킨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놓고 ‘터울’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이때는 ‘나이 차’로 쓰는 게 옳다.

<보기>

- 1~2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에서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교육
- 1~2년 차 선후배 사이에서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교육

대첩

‘대첩’은 ‘큰 싸움’이나 ‘큰 경쟁’을 뜻하지 않는다. ‘대첩’은 ‘큰 승리’를 뜻한다. ‘살수대첩’, ‘명량대첩’, ‘행주대첩’의 ‘대첩’이 모두 ‘큰 승리’라는 뜻을 지녔다. 대단한 경쟁을 빚대어 ‘대첩’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보기>

- L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선물 대전 기획전을 한다.
- L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선물 대기획전을 한다.
- 명절을 맞아 최대의 할인대첩을 진행한다.
- 명절을 맞아 최대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ㄴ) 치우치지 않는 말

치우치기 쉬운 쪽은 견인하는 힘이 센 쪽이다. 저도 모르게, 내 생각과 달리 힘 있는 편의 말글을 따르기 쉽다. 이런 언어를 의식적으로 털어내야 한다. 이 같은 말은 의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물리치자는 주장이 되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말글은 지키기만 할 유물이 아니다. 언론이 쓸 말글은 시민에게 닿아야 할 말글이다.

강조했다/비판했다/지적했다

맺음말을 다양하게 쓰기 위해 여러 동사를 가져다 쓰는데, 쓰는 이의 주관에 섞인 표현일 때가 많다. ‘강조’와 ‘비판’과 ‘지적’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기자가 내린 가치 판단이다. ‘말했다’, ‘밝혔다’, ‘발표했다’, ‘했다’ 정도면 족하다. 말하는 쪽에 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꾸며 줄 이유는 없다.

<보기>

- 그는 정책 목표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정책 목표에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밝혔다/했다).
- 이런 연동이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이런 연동이 혐오를 부추긴다고 말했다(밝혔다/했다).

고객

‘고객’은 회사 쪽에 서서 쓰는 말이다. 이용자나 소비자로 쓰면 충분하다. 맥락에 따라 다른 말을 빌릴 수 있겠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독자를 상품을 구입할 대상으로만 보는 표현은 지우는 쪽이 낫다.

<보기>

-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 둔 고객은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 둔 이용자는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다

기사에 자주 나오는 피동형 표현들이다. 분석과 해석과 의견을 제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기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분석과 해석과 의견을 낼 생각이라면 정보를 얻은 출처를 드러내야 한다. 숨기고 가려야 한다면 근거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라면 자기 생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보기>

- 업계에 따르면 이런 갈등은 업종 간 위기의식이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 업계는 이런 갈등에 업종 간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고 풀이한다.
- 이런 갈등엔 업종 간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갈등엔 업종 간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ㄴ) 차별하지 않는 말

장애를 앓다

‘앓다’에는 장애를 질병으로 취급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 치료해야 할 무엇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질병에서 비롯하는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극복해야 할 대상이나 무언가 개선돼야 할 개념이 아니다. ‘장애를 갖다’ ‘장애가 있다’로 쓰면 된다.

<보기>

-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ㄱ씨 → 지적 장애가 있는 ㄱ씨/지적 장애를 가진 ㄱ씨

일반인

‘장애를 앓다’와 더불어 장애인과 구별할 의도로 ‘일반인’ 또는 ‘정상인’이라고 쓰는 사례가 있다. 이는 장애인을 비일반과 비정상의 범주로 몰아넣는 일이다. 그 밖의 사람들을 일반이자 정상으로 표준화해 장애인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려면 ‘비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보기>

- 단순 반복 작업은 일반인보다 지적 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단순 반복 작업은 비장애인보다 지적 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접두사 여-

직업과 어울려 여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붙는 말이다. 맥락상 굳이 성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면 여자라는 점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남교수, 남학생, 남기자라고 쓰지 않듯이 ‘여교수, 여학생, 여기자’로 쓰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과 사안이 성별과 관련돼 있다면 밝혀 쓸 필요가 있다.

<보기>

- 인기 여배우 세 명의 연애담을 다뤘다. → 인기 배우 세 명의 연애담을 그렸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집사람’과 ‘안사람’은 아내를, ‘바깥사람’은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성별 역할에 얽힌 고정관념을 뒷받침하는 말들로, 아내는 가사를 맡고 남편은 돈을 벌어 온다는 가부장적 관념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보기>

- 집사람이 이런저런 조연을 해 줬다. → 아내가 이런저런 조연을 해 줬다.

⑦ 외국어 표기

(ㄱ) 국제음성기호를 따라 한글로만 적는다.

※ 철자와 음성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철자만 보고 그 철자의 기본 음가를 옮겨 적으면 안 된다. 한 단어를 나라마다 다르게 발음하는 때도 있어 인명을 나타낼 때는 국제음성기호를 참조해야 한다.

<보기>

- david → 데이비드(영어)/다비드
- julian → 줄리언(영어)/줄리안/율리안

(ㄴ) 받침으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ㄷ) ‘p, t, k’를 한글로 옮길 때는 ‘ㅍ, ㅌ, ㅋ’를 쓰지 않는다.

<보기>

- 톨스토이 → 톨스토이
- 베에로 → 피에로
- 칸느 → 칸

(ㄹ) 일본말을 옮길 때는 앞머리에서 ‘ㄱ, ㅌ, ㅊ’을 쓰지 않고 ‘ㄱ, ㄷ, ㅈ’을 쓴다. 말 중간이나 끝에 올 때는 쓸 수 있다.

<보기>

- 코토 → 교토
- 토쿄 → 도쿄

- 큐슈 → 규슈
- 기타큐슈 → 기타큐슈
- 토요타 → 도요타

(ㄴ) 마찰음도 쓰지 않되 ‘쓰’는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나타낼 때만 쓴다.

<보기>

- 후지쓰
- 쓰촨성

(ㄷ) 짧은 모음 다음에 와서 단어를 끝맺거나 유음 ‘r, l’과 비음 ‘n, m’이 아닌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모음 ‘ㅡ’를 붙여 쓴다.

<보기>

- 갭(gap)/캣(cat)/북(book)
- 앵트(apt)/액트(act)
- 스탬프(stamp)/케이프(cape)/데스크(deak)/메이크(make)/애플(apple)/매트리스(matress)/치프멍크(chipmunk)/시크니스(sickness)

※ 받침으로 쓰는 게 원칙인데도 일부 단어는 관례를 인정해 ‘ㅡ’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cut’이 대표적인 사례다. ‘컷’으로 쓰는 게 옳으나 ‘컷’과 ‘커트’를 구별하고 있다. ‘컷’은 필름과 관련한 말로 쓰이고, ‘커트’는 미용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ㄷ) 영어에서 종모음 ‘오우’는 ‘오’로 쓴다.

<보기>

- 레인보우 → 레인보
- 로우볼 → 로볼

(ㅇ) ‘ㅈ’, ‘ㅊ’과 이중모음은 함께 쓰지 않는다.

<보기>

- 비전 → 비전
- 양가주망 → 양가주망
- 저드 → 저드

(ㅍ) ‘f’는 ‘ㅍ’으로 적는다.

<보기>

- 화일 → 파일
- 웨밀리 → 패밀리
- 화이팅 → 파이팅

(ㄷ) 프랑스말의 어말에서 ‘n’은 ‘ㄴ’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 카느영화제 → 칸영화제
- 세느강 → 센강

<영어 외 알파벳 이름>

● 프랑스어

A 아, B 베, C 세, D 데, E 에, F 에프, G 제, H 아슈, I 이, J 지, K 카, L 엘, M 엠, N 엔, O 오, P 페, Q 퀴, R 에르, S 에스, T 테, U 위, V 베, W 두블르베, X 익스, Y 이그 레크, Z 제드

● 독일어

A 아, B 베, C 체, D 데, E 에, F 에프, G 게, H 하, I 이, J 요트, K 카, L 엘, M 엠, N 엔, O 오, P 페, Q 쿨, R 에르, S 에스, T 테, U 우, V 파우, W 베, X 익스, Y 왓실론, Z 체트

● 에스파냐스페인어

A 아, B 베, C 세, D 데, E 에, F 에페, G 헤, H 아체, I 이, J 호타, K 카, L 엘레, M 에메, N 에네, N 에네, O 오, P 페, Q 쿠, R 에레, Rr 에르레, S 에세, T 테, U 우, V 우베, W 베도블레, X 에키스, Y 이그리에가, Z 세타

● 이탈리아어

A 아, B 비, C 치, D 디, E 에, F 에페, G 지, H 아카, I 이, L 엘레, M 엠메, N 엔네, O 오, P 피, Q 쿠, R 에레, S 에세, T 티, U 우, V 부, Z 제타

● 포르투갈어(브라질어)

A 아, B 베, C 세, D 데, E 에, F 에피, G 제, H 아가, I 이, J 조타, K 카, L 엘리, M 에미, N 에니, O 오, P 페, Q 케, R 에히, S 에시, T 테, U 우, V 베, W 다블루, X 시스, Y 입실론, Z 제

● 러시아어

A 아, B 베, B 베, Г 게, Д 데, E 에, Ё 요, Ж 제, З 제, И 이, Й 이 크라트코예, K 카, Л 엘, M 엔, H 엔, O 오, П 페, P 에르, C 에스, T 테, γ 우, Ф 에프, X 하, Ч 체, Ч 체, Ш 샤, Щ 시차, Ъ 트보르디 즈나크, Ы 이, Ь 마흐키 즈나크, Э 에, Ю 유, Я 야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 나열하는 말끼리 짝을 맺어 주자.

‘사과와 배’, ‘배와 사과’

단어를 나열할 때는 나름대로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금은동’이지 ‘은금동’이 아니다. ‘밥과 반찬’이지 ‘반찬과 밥’이 아니다. 대개 가치 기준이 우위인 것이 앞에 놓인다. 가치 기준을 나누기 어려운 말, 예컨대 ‘실/바늘’, ‘아빠/엄마’ 등은 따로 정해진 순서가 없지만 무의식중에라도 어느 한쪽을 앞에 내세우고 싶어진다. ‘사과와 배’, ‘생과 사’, ‘남과 북’, ‘정치와 경제’ 등은 가치 기준을 따지기 모호하지만 앞말과 뒷말을 바꾸어 쓰는 예가 많지 않다. 한편 나열되는 말의 성격도 유사해야 한다. 예컨대 ‘시기와 질투’는 흔한 표현이지만 ‘시기와 미움’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후자의 경우 ‘시기심이 생기고 급기야 미워지기까지 했다’ 식으로 바꾸면 된다.

<보기>

- 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세대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 ② 그들은 이번 화재로 재산과 희망을 잃었다.
→ 그들은 이번 화재로 재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마저 잃었다.
→ 그들은 이번 화재로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희망도 잃었다.
- ③ 일제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일부 농민은 도시나 만주, 일본 등으로 떠났다.
→ 일제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만주,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떠났다.

‘금메달과 은메달’, ‘금과 은메달’

‘금메달과 은메달’을 ‘금·은메달’로 줄이기는 해도 ‘금과 은메달’로 줄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줄일 경우 ‘금’과 ‘은’이 아닌 ‘금’과 ‘은메달’이 짝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 ‘와/과’는 이처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앞뒤 말을 이어 준다. 따라서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을 ‘전기와 수도 요금’이나 ‘전기 및 수도 요금’으로 줄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보기>

- ① 생산 및 판매 부서가 그 회사의 핵심 부서다.
→ 생산 부서와 판매 부서가 그 회사의 핵심 부서다.
- ②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및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나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③ 그 관현악단은 러시아의 고전 및 낭만음악을 차례로 연주한다.
→ 그 관현악단은 러시아의 고전음악과 낭만음악을 차례로 연주한다.
- ④ 그 학원에는 특목 및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
→ 그 학원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

단어, 구, 절의 나열

말을 나열할 때는 나열되는 말끼리 형태상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게 좋다.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어 주는 것이다. 예컨대 ‘맑은 물과 숲’을 ‘맑은 물과 푸른 숲’으로 바꾸면 리듬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구끼리 대비가 잘 이루어져 의미를 파악하기도 쉽다. ‘맑은 물과 숲’의 경우 단어, 구, 절 단위로 짝을 지어 읽으려는 습관 때문에 ‘맑은’이 ‘물’과 ‘숲’을 동시에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보기>

- ① 해킹, 영화 혹은 음악 불법 복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 해킹은 물론 영화나 음악의 불법 복제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 해킹과 더불어 영화나 음악의 불법 복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 ② 대관령 일대의 고랭지에서 재배한 여름 딸기와 의령 지역의 파프리카를 수출하기로 했다.
→ 대관령 일대 고랭지의 여름 딸기와 의령 지역의 파프리카를 수출하기로 했다.
- ③ 그들은 정치,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철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그들은 정치,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를 살피자.

주어와 술어의 호응 관계

좋은 글이 되려면 우선 문장 성분끼리 잘 호응해야 한다.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그러지면 매끄러움을 잃고 읽기가 불편해진다.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다. 주어와 서술어가 좋은 짝을 이루어야 구성이 탄탄하고 읽기 편한 문장이 된다. 아래 문장들은 ‘무엇이 어찌하다’의 문형을 취할 수 없다. ‘무엇은 무엇이다’ 문형으로 바꾸거나 주어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어색하지 않다.

<보기>

- ①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
→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②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 ③ 그 회사의 올해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났다.
→ 그 회사의 올해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수치다.
- ④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을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
→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는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주어와 술어의 개수가 다를 때

문장 내에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지 않고 주어 하나에 서술어가 여럿 달리거나, 주어가 여럿이고 서술어도 여럿일 때는 호응 관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를 살펴 그것들이 따로따로 주술 관계의 호응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의 ①, ②는 주어에 대응되는 서술어가 없고, ③, ④는 반대로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어가 없다.

<보기>

- ① 방역 당국은 모임 참가자들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 방역 당국은 모임 참가자들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 방역 당국이 모임 참가자들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 ②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2차 예선을 거쳐 10명이 선발된다.
→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10명이 선발되는 2차 예선을 치른다.
- ③ 백화점 매장에는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 백화점 매장은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 ④ 회사 신뢰도가 이미 추락한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매우 어렵다.
→ 회사 신뢰도가 이미 추락한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 회사 신뢰도가 이미 추락한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서술 형태를 일치시키자.

앞뒤 절의 서술어가 같게

“이 물건은 중고품이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이 물건은 오래 사용하면 중고품이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물건은 오래 사용하면 중고품이 된다’여야 한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살필 때는 단순히 주어와 서술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앞뒤 절의 연결 관계 등 문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

문장 연결의 기본 원리는 앞 절과 뒤 절의 서술 형태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앞 절의 서술어가 동사면 뒤 절의 서술어도 동사, 앞 절이 형용사면 뒤 절도 형용사여야 자연스럽다. ‘웃거나 울다’는 앞뒤 말이 모두 동사이고, ‘예쁘거나 귀엽다’는 앞뒤 말이 모두 형용사이다. ‘예쁘거나 웃는다’, ‘웃거나 울음이다’처럼 앞뒤 말의 품사를 다르게 하면 짜임이 엉성해진다. 아래 예문들은 앞 절의 서술부가 ‘~하고’이므로 뒤 절의 서술부도 ‘~하다’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①은 ‘선도하고, 가로막다’로, ②는 ‘~하지 말고, ~하라’로, ③은 ‘보이며, 들어가다’로, ④는 ‘중식되고, 열리다’로, ⑤는 ‘간편하고, 저렴하다’로 바꿔야 한다.

<보기>

- ① 국가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규제를 통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국가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규제를 통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②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생산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 ③ 재계는 국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되자 다소 긴장하는 기색을 보이며 ‘경계 모드’다.
→ 재계는 국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되자 다소 긴장하는 기색을 보이며 ‘경계 모드’에 들어갔다.
- ④ 그 사건은 냉전이 종식되고 새 평화 시대의 선언을 의미한다.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 그 사건은 냉전이 종식되고 새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 ⑤ 이 카드는 이용 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가맹점 수수료, 결제액 정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 이 카드는 이용 절차가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하며, 결제액 정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 ⑥ 당 새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 당 새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⑦ 여당 측은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 여당 측은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략된 주어 따라가기

주어가 하나이고 서술어가 둘인 문형에서 주어가 생략되면 앞뒤 절의 서술어가 따로 놓기 쉽다. 아래의 ①~③이 그런 예인데, 이때는 앞에 놓인 서술어에 맞추어 주어를 살린 뒤 이 주어와 호응되게 두 서술어의 형태를 일치시킨다. ④는 소주어 안에 서술어가 두 개 들어 있는 문형인데,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서술어의 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기>

- ①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 회사 특유의 조리 방법이 탄생했다.
- (그 회사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 회사 특유의 조리 방법을 개발했다.
- ② 취업용 스펙 쌓기에 올인하느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 (학생들은) 취업용 스펙 쌓기에 올인하느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 ③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하반기에 준공이다.
- (그들은)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하반기에 준공한다.
- ④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벌어지는 설전이 흥미롭다.
- (그들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벌어지는 설전이 흥미롭다.

앞뒤 말을 '와/과'로 이으려면

두 문장이 동질적일 때는 접속어 '와/과'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국어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다”를 “국어와 수학을 좋아한다”로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동질적이지 않은 것을 연결하면 접속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축구와 노래를 잘 부른다”가 그러한

예다. “체육과 노래를 잘하다”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체육’과 ‘노래’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의 ①은 구(불확실한 패스워크)와 절(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하다)이 짝으로 맺어져 문맥이 손상되었고, ②와 ③은 각각 ‘피해 상황을 당부하다’, ‘관심이 이루어지다’라는 결합 관계가 되어 의도했던 뜻과 멀어졌다. ④는 ‘알맞은 운동’이 ‘관형어+명사’의 결합인 반면 ‘제때 식사’는 ‘부사어+명사’여서 접속의 형평성을 잃었다.

<보기>

- ① 그 팀은 불확실한 패스워크와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패했다.
- 그 팀은 패스워크가 불확실하고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패했다.
- 그 팀은 불확실한 패스워크와 엉성한 조직력 때문에 패했다.
- ② 서울시장은 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과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 서울시장은 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후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 ③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그는 알맞은 운동과 제때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 그는 알맞은 운동과 제때 하는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 그는 알맞은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 ⑤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등의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게 된다.
-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게 된다.
- ⑥ 산 정상 올리는 방법은 걷거나 노선 버스밖에 없었다.
- 산 정상 올리는 방법은 걷거나 노선 버스를 타는 것밖에 없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관형어가 들어간 어구에서는 관형어와 체언 간의 꾸밈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 우선 관형어는 되도록 피수식어(수식을 받는 말) 앞에 와야 한다. 예컨대 ‘남북한 평창 올림픽 공동 선수단’은 ‘평창 올림픽 남북한 공동 선수단’이 자연스럽다. 또 ‘세계적인 한류의 확산’보다는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이 더 편하다.

<보기>

- ① 자동 커피 판매기→커피 자동 판매기
- ② 절대 비밀 보장→비밀 절대 보장
- ③ 급차선 변경→차선 급변경
- ④ 완전 서비스 공짜→서비스 완전 공짜

꾸밈받는 말이 두 개 이상일 때

관형어 뒤에 이어지는 체언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꾸밈 관계가 흐트러지기 쉽다. 이 형태에서는 관형어가 나열된 말 전체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흥미로운 미국 역사’, ‘영화관의 좌석 번호’에서 ‘흥미로운’과 ‘영화관의’는 각각 ‘미국 역사’와 ‘좌석 번호’를 꾸미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날로 증가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는 구성이 엉성해 보인다. “날로 증가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로 바꾸면 깔끔한 문장이 된다.

<보기>

- ① 부작용이 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 부작용이 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 ② 회사 측은 밤 늦게까지 하던 야간 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 회사 측은 밤 늦게까지 하던 야간 작업을 금지시켰다.
- ③ 젊어서부터 다니던 직장 생활을 정년이 될 때까지 이어 왔다.
→ 젊어서부터 해 오던 직장 생활을 정년이 될 때까지 이어 왔다.
- ④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각종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관형어가 관형어를 꾸밀 때

관형어가 관형어를 수식하는 형태가 있다. ‘친구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그러한 예다. 이 경우 ‘친구들의 눈을 사로잡은’이 ‘하늘’이 아닌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꾸민다. 관형어는 꾸미는 말과 가까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읽히지 않는다.

<보기>

- ① 시애틀은 매년 선정하는 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가운데 수위를 차지한다.
→ 시애틀은 매년 ‘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선정할 때마다 수위를 차지한다.
→ 미국에서 매년 ‘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선정할 때 시애틀은 늘 수위를 차지한다.
- ②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른 속도가 빠른 타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속도가 빠른 타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예쁜 그녀의 코’, ‘그녀의 예쁜 코’

관형어가 조사 ‘의’로 연결된 말을 꾸미는 형태에서는 그 관형어가 꾸미는 말이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문맥에 따라 선택된다. 예컨대 ‘몰락한 제국의 해군 장교’에서 ‘몰락한’이 꾸미는 것은 앞말인 ‘제국’이다. 반면 ‘시커먼 화산의 재’에서 ‘시커먼’이 꾸미는 것은 뒷말인 ‘재’다. 그런데 어느 쪽을 꾸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성공한 철수의 아버지’에서 ‘성공한’이 꾸미는 것은 ‘철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

<보기>

- ① 미국에서 결혼한 그들 부부의 딸은 미국 땅을 밟아 보지 못했다.
→ 그들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그 딸은 미국 땅을 밟아 보지 못했다.
- ② 대학원을 졸업한 그의 부인은 중졸 출신이다.
→ 그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그의 부인은 중학교를 졸업했다.

(=) 부사어가 꾸미는 말을 살피자.

‘최고층 빌딩’, ‘제일 고층 빌딩’

부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쓰여 동사나 형용사로 된 서술어, 곧 용언을 꾸민다. 부사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명사를 꾸미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고층 빌딩’은 어색하다. ‘최고층 빌딩’이어야 한다. 어느 정치인이 ‘참으로 오만하다’라는 뜻으로 ‘너무 오만의 극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너무 오만하다’나 ‘오만의 극치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았다.

<보기>

- 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굳이 반환의 필요가 없다.
→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 이게 가장 고가의 물건이다.
→ 이게 **가장 (값이) 비싼** 물건이다.
→ 이게 최고가의 물건이다.
- ③ 적극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아무개와 통화에서’, ‘아무개와의 통화에서’

‘에, 에서, 로, 와, 보다’ 등과 결합한 명사도 문장 내에서 부사어가 된다. ‘학교에’, ‘학교에서’, ‘학교로’, ‘학교와’, ‘학교보다’ 등이 모두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들도 모두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명사를 꾸미게 할 때가 있다. “범죄와 전쟁을 선언했다”의 경우 ‘범죄와’가 ‘선언했다’를 꾸미므로 “범죄와 {함께/더불어} 전쟁을 선언했다”는 뜻이 되어 글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로 표현해야 한다. ‘아무개와 통화에서’도 ‘아무개와 {한/가진/연결된} 통화에서’나 ‘아무개와의 통화에서’로 표현해야 자연스러워진다.

<보기>

- 환자 수가 전주보다 약 2배다.
→ 환자 수가 **전주보다** 2배 **많다**.
-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미국에서 신선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미국에서** 신선란을 **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법이 통하지 않는 투명 행정을 기대한다.
→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법이 통하지 않는 투명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 정부가 내년 총 8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가 **내년에** 총 8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수시에 합격하면 1개 대학에 등록이 의무화돼 정시 모집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수시에 합격하면 의무적으로 1개 **대학에 등록해야** 하므로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정부는 군대에서 ‘알몸 진급식’이나 ‘나체 사진 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는 **군대에서** ‘알몸 진급식’이나 ‘나체 사진 촬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ㄴ) 상황에 어울리는 조사가 따로 있다.

‘은/는’과 ‘이/가’의 구별

‘은/는’과 ‘이/가’의 구별점은 여러 가지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다” 식으로 옛날이야기가 시작될 때, 곧 주어가 처음 소개되는 상황일 때는 ‘이/가’를 쓴다. “이번 시험에서 철수가 1등이래”처럼 주어가 관심의 초점일 때는 ‘이/가’를 쓰고, “그런데 영수는 꼴찌래”처럼 서술어가 관심의 초점일 때는 ‘은/는’을 쓴다. “사람이 누워서 잔다”처럼 주체의 행위나 상태를 묘사할 때는 ‘이/가’를 쓰고, “사람은 누워서 잔다”처럼 주체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은/는’을 쓴다. 이 밖에 “영희는 집에 있는데 철수는 학교에 간다.”처럼 주체를 다른 객체와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개념일 때는 ‘은/는’을 쓴다.

<보기>

- 대통령은** 1일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이)
-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우리나라는)
- 독도가**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독도는)
- 다음 달부터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1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요금)

종속절의 주어엔 ‘이/가’

‘은/는’은 일반적으로 주절의 주어로만 쓰이고, 종속절의 주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겹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에 ‘은/는’을 쓰고, 종속절의 주어에 ‘이/가’를 쓴다. “학교가 파하자마자 철수는 집에 왔다”의 경우 뒤 절이 주절이고, 앞 절이 종속절이다.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에 쓰인 조사를 ‘은/는’으로 바꾸어 “학교는 파하자마자 철수는 집에 왔다”로 적으면 비문이 된다.

<보기>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우리나라가)
-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독도가)
- 서양은** 지는 해라면 동양은 뜨는 해다.(→서양이)
- 정부는** 아무리 훌륭한 일자리 정책을 구사해도 기업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정부가)
- 그들** **부부는**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차의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부부가)

‘에/에서/에게’ 가려 쓰기

처소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사로 ‘에’와 ‘에서’가 있다. ‘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을 나타내고, ‘에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에’는 정적인 상황일 때 쓰이고, ‘에서’는 동적인 상황일 때 쓰인다. “부산에 산다”는 부산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부산에서 산다”는 부산에서 생활한다, 부산에서 삶을 이어 간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로 ‘에’와 ‘에게’가 있다. 사람이나 동물 등 유정물 뒤에는 ‘에게’를, 식물이나 무생물 등 무정물 뒤에는 ‘에’를 쓴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가 그러한 예다. 이 밖에 진행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사로 ‘에’와 ‘를’이 있다. 뒤에 오는 동사가 목적성을 띠 때는 ‘를’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에’를 쓴다. 예를 들어 ‘방문하다’나 ‘찾아가다’는 목적성을 띠므로 ‘어디를 방문하다/찾아가다’로 표현한다.

<보기>

- 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된다.(→생활에)
-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선례를 만들었다.(→중소기업에)
- ③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물리적 그리고 윤리적인 제약 **조건에** 자유롭다.(→조건에서)
- ④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지하실 **벽면에**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벽면에서)
- ⑤ 아이들이 공부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점에)
- ⑥ 배가 아파 **병원**에 찾아갔더니 식중독이라고 한다.(→병원을)
- ⑦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다.(→어디를)
- ⑧ 나무 심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부지런히 **산**에 올랐다.(→산을)

(=) 문맥에 맞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자.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아/-어’, ‘-고’, ‘-(으)며’, ‘-(으)면’, ‘-(으)나’, ‘-게’ 따위가 있다. 연결 어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앞뒤 말을 매끄럽게 잇는 것이다. 그러자면 문맥과 기능에 맞는 연결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 또 연결 어미와 그 뒤에 나오는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연결 어미가 중첩되면 의미 충돌이 빚어져서 자연스럽지 않다.

상황에 맞는 연결 어미

“꽃을 {보고/보며}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나 ‘-며’는 앞뒤 말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어미인데, 이 문장은 인과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꽃을 {보니/보면} 기분이 좋다”로 표현해야 한다. ‘-고’와 ‘-며’도 상호 구별점이 있다. 예컨대 “꽃을 보고 길을 걷는다”보다는 “꽃을 보며 길을 걷는다”가 더 낫다. ‘-고’는 시간의 선후 구분이 있을 때 쓰고, ‘-며’는 동시성을 나타낼 때 쓴다.

<보기>

- ① 이제라도 어린이 보행 사고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위해서는)
- ② 좋은 의사가 되려면 공부만 **잘해서** 안 된다.(→잘해서는)
- ③ 이번 사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서 촉발된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해서)
- ④ 힘든 생활에 **피들어** 한국인 특유의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피들었어도)
- ⑤ 청와대 쪽으로 의혹의 눈길이 **돌려지면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돌려지자)
- ⑥ 보혈에 가입돼 **있으므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있어서)

연결 어미와 짝을 이루는 서술어

연결 어미와 그 연결 어미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 간의 결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니까’는 “더우니까 창문을 열자”나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라”에서처럼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유형, 명령형 문장과는 잘 결합하지만 “더우니까 창문을 연다”나 “더우니까 창문을 열었다”에서처럼 화자 중심의 평서형 문장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반대로 ‘-아서/-어서’는 “더워서 창문을 연다”나 “더워서 창문을 열었다”와 같이 화자 중심 평서형 문장과 잘 어울리는 반면 “더워서 창문을 열자”나 “더워서 창문을 열어라”와 같이 청유형, 명령형 문장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또 ‘-려고’는 ‘가려고’, ‘먹으려고’에서처럼 동사와는 잘 결합하지만 ‘예쁘려고’, ‘기분이 좋으려고’에서처럼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집에 가려고 짐을 싸라”와 같이 명령형 문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려면’은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와 같이 당위를 나타내는 문장에 주로 쓰이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한다”나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와 같은 일반 평서문에는 잘 안 쓰인다.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보기>

- ① 업무 노하우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신규 인력을 계속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업무 노하우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신규 인력을 계속 충원해야 한다.
- ②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서는 안 된다.
→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 ③ 여러 사람들 앞에 섰더니 떨려서 말을 못 했다.
→ 여러 사람들 앞에 섰더니 말을 못할 정도로 떨렸다.

‘-라고’와 ‘-라며’의 구별

인용문 뒤에 붙는 ‘-라고’와 ‘-라며’는 쓰임이 다르다. ‘-라고’는 인용문을 그대로 전할 때 쓴다. ‘...라고 {말했다/밝혔다/주장했다/했다}’ 식으로 표현한다. 반면 ‘-라며’는 ‘...라고 (말)하며’의 준말이다. ‘...라면서’의 준말이 되기도 한다. 즉 ‘-라며’는 어떤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는 상황을 전할 때 쓴다.

<보기>

- ① 그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웃었다.(→것”이라며)
- ②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실했다.(→것”이라고)
- ③ 그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좋았다”라고)
- ④ 그는 “주변의 도움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있었다”며)

‘-며’와 ‘-면서’의 구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문장에서는 ‘하면서’를 ‘하며’로 줄여 쓸 수 있다. 이때의 ‘-면서’와 ‘-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날이 풀리면서 등산객이 늘어났다”에서 ‘풀리면서’를 ‘풀리며’로 줄여 쓰면 어색해진다. 이때의 ‘-면서’는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동작이 끝남과 동시에 그 동작으로 인해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낸다. 곧 ‘~함에 따라’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동시성을 나타내는 ‘-며’로 바꾸기는 어렵다.

<보기>

- ① 경기가 좋아지며 음식점들이 활기를 되찾았다.(→좋아지면서, 좋아짐에 따라)

- ② 일본이 프랑스를 꺾으며 8강 진출국을 점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꺾으면서, 꺾음에 따라)
- ③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늘어나면서, 늘어남에 따라)
- ④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진행되면서)

앞뒤 절의 주어를 같게 하는 연결 어미

연결 어미로 문장을 연결할 때는 주어 일치에 제약이 따른다. 즉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이) 다 타겠다”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로 바꾸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연결 어미 ‘-려다’를 쓸 때는 앞뒤 절의 주어를 같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수가 울려다 영희가 웃었다”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뒤 절의 주어를 일치시켜야 하는 연결 어미로는 ‘-면서, -며, -자마자, -아서, -다가, -느라고, -려면, -려고, -러’ 등이 있다. 이런 연결 어미가 사용된 문장에서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 반대로 연결 어미 ‘-니, -자’가 사용될 때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철수가 1등을 하자 엄마가 기뻐했다”는 바른 문장이고, “철수가 1등을 하자 철수가 기뻐했다”는 틀린 문장이다.

<보기>

- ① 선진국에서는 이론보다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 선진국에서는 이론보다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한다.
→ 선진국에서는 이론보다 실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진다.
- ②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람들이 만류했다.
→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못 했다.
- ③ 정부는 이 사건을 외면했다. 관련자들을 기소해 놓고도 얼마 뒤에 혐의 없음으로 다 풀려났다.
→ 정부는 이 사건을 외면했다. 관련자들을 기소해 놓고도 얼마 뒤에 혐의 없음으로 다 풀려날 때까지 손을 놓았다.
- ④ 그 음식점은 손님이 따로 주문하지 않고도 음식이 나온다. (→않아도)
- 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관련 데이터가 지워졌다.(→데이터를 지웠다)
- ⑥ 그는 “차량 밑을 보니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하여 재빨리 구출했다”고 말했다.
→ 그는 “차량 밑을 보니 바닥에 아이가 누워 있어 재빨리 구출했다”고 말했다.

(ㄱ) 같은 조사나 어미를 겹쳐 쓰지 말자.

조사의 중첩

“학생들을 박물관을 견학시킨다”는 목적어 두 개가 서술어 하나를 공유한 형태다. 또 “이 곳이 구두가 싸다”는 주어 두 개가 서술어 하나를 공유한 형태다. 이는 우리말의 특성이지는 않지만 같은 조사가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가 남는다. “학생에게 박물관을 견학시킨다”, “이곳이 구두를 싸게 판다” 등으로 상황에 맞게 바꾸어 주면 한층 부드럽게 읽힌다.

‘북한의 주민들의 삶’처럼 ‘의’가 연속으로 나오는 구조, ‘책을 읽는 것을 생활화하자’와 같이 목적어가 연속으로 나오는 구조도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 ‘책 읽는 것을 생활화하자’ 식으로 변화를 주면 좋다.

<보기>

- ① 세상에서는 흔히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 흔히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 ②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묵직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묵직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거의 없었다.
- ③ 경찰이 도둑이 도망가자 곧바로 뒤쫓아 갔다.
→ 도둑이 도망가자 곧바로 경찰이 뒤쫓아 갔다.
- ④ 여성들이 참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 ⑤ 대출 금리를 최대 1%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대출 금리를 최대 1% 할인해 주고 있다.
→ 대출 금리를 최대 1% 할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 ⑥ 그들은 판매 대상을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 그들은 젊은 층을 주된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
→ 그들은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하기로 했다.
- ⑦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중국 시장 내 위상을)
- ⑧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실패한 적이 있다.
→ {이번 말고/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패한 적이 있다.

연결 어미의 중첩

“어제 과로해서 병이 나서 학교를 결석했다”에서는 ‘아서’가 연이어졌다. 또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에서는 ‘아/-어/-여’가 연이어졌다. 이처럼 똑같은 연결 어미가 중첩되면 간결함을 잃고 글맛도 떨어진다. 또 앞 절과 뒤 절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력도 약해진다. 나아가 같은 어조가 반복되면서 동음 간섭이 생겨 흐름이 꺾인다. 예를 들어 “눈금을 읽으려면 눈을 어디에 대면 좋을까”를 보면, 서로 다른 연결 어미인 ‘려면’과 ‘면’이 쓰였지만 같은 ‘면’이 연이어지면서 동음 간섭이 생겨난다. 이때는 “눈금을 읽으려면 눈을 어디에 대야 할까”, “눈금을 읽으려면 눈을 어디에 대는 게 좋을까” 식으로 변화를 준다.

<보기>

- ① 비상벨을 눌러 주변 사람에게 알려 대피할 수 있게 한다.
→ 비상벨을 눌러 주변 사람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한다.
- ② 생태계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생태계가 훼손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 생태계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바람에 생태계가 훼손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 ③ 그들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그들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④ 그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 그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 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적자가 확대되면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적자가 확대되자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⑥ 날씨가 추우므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문을 꼭 닫아야 한다.
→ 날씨가 추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문을 꼭 닫아야 한다.

(ㄴ) 필수 성분을 생략하지 말자.

‘(비가) 내린다’, ‘철수가 (소설을) 읽었다’, ‘철수가 (영수에게) 주었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등의 문장에서 괄호 안의 말은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로 쓰였다. 이들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므로 문장 내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필수 성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철수는 영희가 좋아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가 그러한 예다. 부사어 ‘영희에게’를 생략하면 온전한 문장이 되기 어렵다. “내가 다섯 살일 때 서울로 이사 왔다”는 서울

로 이사 온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안정하다. ‘내가’를 ‘나는’으로 바꾸든가, “내가 다섯 살일 때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 왔다”로 바꾸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보기>

- ① 그 회사는 이번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밝혔다.
→ 그 회사는 이번 브랜드 평가에서 **자사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 ② 로봇이 등장한 이후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 로봇이 등장한 이후 많은 영역에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 ③ 보수 세력들은 트럼프가 보수 성향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연하게 지지한다.
→ 보수 세력들은 트럼프가 보수 성향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연하게 **{그를/트럼프를}** 지지한다.
- ④ 김 일병은 대항군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지만 맞서기도 했다.
→ 김 일병은 대항군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지만 **대항군에** 맞서기도 했다.
- ⑤ 여야가 소득세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여야가 소득세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⑥ 시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공원으로 만들었다.
→ 시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ㄴ) 능동, 피동을 구별하여 쓰자.

‘쏟은 물’과 ‘쏟아진 물’

능동, 피동 표현과 관련하여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피동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 능동 표현을 쓰는 것이다. 피동 표현이 어울리는 예로는 ‘열린 창문’, ‘갈라진 틈’, ‘불 꺼진 찻집’ 등과 같은 명사구가 있다. 이들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연 창문’, ‘가른 틈’, ‘불 끈 찻집’ 등으로 표현하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들은 각각 ‘물이 쏟아지다’, ‘틈이 갈라지다’, ‘찻집 불이 꺼지다’의 주술 구조 형태가 변형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잡은/잡힌} 물고기’, ‘{엎지른/엎질러진} 물’, ‘{쏟은/쏟아진} 물’ 등은 능동형, 피동형이 모두 가능한데, 이때도 피동형이 좀 더 자연스럽게 와닿는다. 능동형은 행위의 주체가 생략된 상황일 때, 예컨대 ‘아무개가 어제 잡은 물고기’, ‘아무개가 실수로 엎지른 물’ 등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 한정된다.

<보기>

- ① 오전부터 **시작한** 회의는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시작된)

- ② 1971년 **출시한** 새우깡은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출시된)
- ③ 새우깡은 1971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출시된)
- ④ 한껏 **놀려 놓았던** 가격은 언젠가 한꺼번에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놀려 있던)
- ⑤ 만약 **편성한** 예산 중 불요불급하게 증액한 게 있다면 예결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성된, 증액된)

‘통과하다’와 ‘통과되다’

능동문 ‘별이 나를 쏘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내가 별에 쏘였다’가 된다. 타동사 ‘쏘다’가 피동형 ‘쏘이다’로 바뀌는 것이다. ‘토끼를 잡았다’의 피동문은 ‘토끼가 잡혔다’이다. 타동사가 들어간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 그 타동사는 ‘-이, -히, -리, -기’와 결합한 형태로 바뀐다. 이 밖에 타동사 ‘○○하다’가 들어간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 ○하다’가 ‘○ ○되다’로 바뀐다.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가 재개됐다’에서는 ‘재개하다’가 ‘재개되다’로 바뀌었다. 근래 들어 ‘수사가 재개했다’, ‘새 학기가 시작했다’, ‘건강이 회복했다’ 등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수사가 재개됐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건강이 회복됐다’가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

<보기>

- ① 법인 영업과 리테일 등 타사업 부문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달성했다고** 말했다.(→달성됐다고)
- ② 운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엘피지 차량 기술이 **향상했다고** 밝혔다.(→향상됐다고)
- ③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하고** 엔화까지 강세를 보인 탓이다.(→부각되고)
- ④ 일본 자민당이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통과됐다)
- ⑤ 그는 한미 동맹이 오래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속되기를)

‘심화하다’와 ‘심화되다’

‘화되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므로 ‘화하다’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조직이 강화됐다’를 ‘조직이 강화했다’로, ‘후보가 단일화됐다’를 ‘후보가 단일화했다’로, ‘서비스가 차별화됐다’를 ‘서비스가 차별화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 ‘우리의 강화된 조직’은 ‘우리의 강화한 조직’으로, ‘가까스로 단일화된 후보’는 ‘가까스로 단일화한 후보’로, ‘우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우리만의 차별화한 서비스’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타동사 ‘○○하다’가 들어간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하다’가 ‘○○되다’로 바뀐다는 원리에 위배된다. 일반적으로 자발성 없는 말이 주어로 쓰이면 서술어는 피동형 ‘-화되다’가 된다. 예컨대 ‘강물’은 스스로 동작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강물이 정화했다’보다 ‘강물이 정화됐다’가 더 널리 쓰인다.

<보기>

- ①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했다**.(→보편화됐다)
- ② 우리나라 산업이 **근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근대화되다)
- ③ 미국과 중국 간 대결 구도가 **강화하고** 있다.(→강화되고)
- ④ 한미 관계에 대한 중국 견제도 **심화할** 것으로 관측됐다.(→심화될)

(※) **겹말, 중복, 군더더기를 없애자.**

겹말 어디까지

“그는 열심히 공부에 열중했다”라는 표현을 보자. ‘열심히 열중했다’가 어색함을 준다. ‘열중(熱中)하다’의 ‘열(熱)’에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서 같은 말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를 겹말이라 한다. 겹말을 피해 ‘열심히 공부했다’로 표현하면 간결하고 깔끔해 보인다. 표현이 겹친다고 해서 늘 어색한 것은 아니다. ‘처갓집’은 ‘처가(妻家)’의 ‘가(家)’가 집을 뜻하므로 ‘집’이라는 말이 반복됐지만 ‘처가’보다 더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다. ‘집’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처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려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악취 냄새’는 ‘악취’나 ‘고약한 냄새’로, ‘돈을 송금하다’는 ‘돈을 보내다’나 ‘송금하다’로 쓰는 게 좋다. 다음 같은 말들도 굳이 겹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보기>

- 가까운 측근 → 측근
- 가까이 접근하다 → 접근하다, 가까이 다가가다
-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가르치는 교훈 → 가르치는 말, 교훈
- 각 지역별 현황 → 지역별 현황
- 감명을 느끼다 → 감명을 받다
- 거센 격랑 → 거센 파도, 격랑

- 계속 속개하다 → 속개하다
- 계속 속출하다 → 속출하다, 계속 일어나다
- 공감을 느끼다 → 공감하다
- 과반수를 넘다 → 절반을 넘다, 과반수에 달하다
- 구전으로 전해지다 → 구전되다
- 네 갈래 사거리 → 사거리
- 높은 고산지대 → 고산지대
- 뇌리 속에 → 뇌리에
- 다른 이견 → 이견, 다른 의견
- 다시 재고하다 →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 다시 재론하다 → 재론하다
- 다시 재발하다 → 재발하다
-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 들리는 말에 따르면, 소문에 따르면
- 등분으로 나누다 → 등분하다
- 따뜻한 온정 → 따뜻한 정, 온정
- 라인 선상에서 → 선상에서
- 마지막 종점 → 종점, 마지막 도착점
- 마지막 최종 결정 → 최종 결정, 마지막 결정
- 만족감을 느끼다 → 만족하다, 만족감을 얻다
- 먼저 선취점을 얻고 → 선취점을 얻고
- 모든 만물 → 만물
- 새로 들어온 신입생 → 신입생
- 새로운 신흥도시 → 신흥도시
- 소원성취를 이루다 → 소원을 이루다, 소원을 성취하다
- 스스로 자제하다 → 자제하다
- 좋은 호조 → 호조
- 좋은 호평을 받다 → 호평을 받다, 좋은 평가를 받다
- 죽은 시체 → 시체
- 지하 땅속 → 지하, 땅속
- 집으로 귀가하다 → 귀가하다
- 판이하게 다르다 → 판이하다
- 허송세월을 보내다 → 허송세월하다
- 현안 문제 → 현안
- 혼자 독주하다 → 독주하다

군더더기 표현

글을 쓰다 보면 어느 단어 하나만으로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혹은 강조할 목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예컨대 ‘좋아한다’를 ‘진짜 좋아한다’로, 또는 이것도 부족해서 ‘진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좋아한다’로 늘어 쓴다. 그런데 ‘진짜’와 ‘정말’과 ‘거짓말 안 보태고’는 결국 같은 말이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하다. 하지만 그 군더더기도 강조 표현이란 측면에서 나름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글의 성격에 따라 이런 표현을 용인할지 말지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벼운 대화체 문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글의 맛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간결을 요하는 기사 문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족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기>

- ①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 ②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 ③ 겨울밤이면 이곳은 **매우 추워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
→ 겨울밤이면 이곳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진다.
→ 겨울밤이면 이곳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만큼 추워진다.
- ④ 그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낮으로 주경야독한** 끝에 박사학위를 땀다.
→ 그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주경야독한 끝에 박사학위를 땀다.
- ⑤ 그는 상대를 만날 때 만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상대를 만날 때 만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 ⑥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뇌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다.
→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다.
- ⑦ 지구상에서 이기적인 종족은 사라지고, 이타적인 종족은 **번성하고 살아남았다**.
→ 지구상에서 이기적인 종족은 사라지고, 이타적인 종족은 번성했다.
- ⑧ 현재 남아 있는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다.
→ 현재 남아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다.

주술 동어 반복

① ‘이 시계는 비싼 시계다’나 ② ‘이 돈은 무서운 돈이다’는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표현이 단조로운 측면이 있다. 동어 반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①

은 ‘이 시계는 비싸다’로 바꾸면 되지만 ②는 ‘이 돈은 무섭다’로 바꾸기 어렵다. ②를 ‘이것은 무서운 돈이다’나 ‘이 돈은 무서운 것이다’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의도한 표현에서 멀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술 동어 반복형 문장은 대안적인 표현이 신통치 않을 경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예컨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의 경우 ‘그는 좋은 사람이다’로, ‘이 신발은 새로 산 신발이다’는 ‘이 신발은 새로 산 것이다’로 바꾸면 표현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기>

- ① 그 부족은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부족이었다.
→ 그 부족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살기를 좋아하였다.
- ② 다음 과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다.
→ 다음 과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것보다 훨씬 어렵다.
- ③ 그 산업의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다.
→ 그 산업의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 정도이다.
- ④ 이 사안은 국가 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다.
→ 이는 국가 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다.
- 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와 면담을 통해 치료한다.
→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타 동어 반복

“중국은 땅덩이가 큰 나라이고, 인구도 많은 나라이다”라는 표현은 서술어 ‘나라이다’가 반복되어 표현이 웅색한 느낌을 준다. “중국은 땅덩이가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이다”로 줄이면 간결해진다. 이와 다른 유형으로 동어 반복이기는 하지만 문장 내 쓰임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다. 예컨대 “누가 조사해도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다”, “밥을 먹을 때는 얹전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와 같은 형태다. 이는 각각 “누가 조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밥을 먹을 때는 자세를 얹전히 한다” 식으로 변형을 주는 것이 좋다.

<보기>

- ① 그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난 곳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도 높다.
- ② 하얼빈은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하던 곳으로, 그가 생전에 공산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곳이다.

⑧ 쉽고 정확한 기사 문장 만들기

- 하열빈은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하던 곳으로, 그는 생전에 이곳을 공산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생각했다.
- ③ 그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 논의했다.
-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두고 논의했다.
- ④ 자녀가 게임을 오래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아이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다.
- 자녀가 게임을 오래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아이는 자제력이 없어 게임에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다.
- ⑤ 통상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 통상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 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 ⑦ 이웃을 위한 삶을 실천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이웃을 위한 삶을 실천한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⑧ 접근성이 좋은 상가라 하더라도 눈에 잘 안 띄는 상가이면 투자하지 마라.
- 접근성이 좋은 상가라 하더라도 눈에 잘 안 띄는 곳이면 투자하지 마라.

접속어 중복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단락을 이루고, 단락과 단락이 연결되어 한 편의 글을 이룬다. 이때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어이다. 하지만 접속어를 잘못 쓰거나 중복 사용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어제는 눈이 왔다. 그래서 길이 미끄러웠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았다”의 경우 ‘그래서’가 중복됐다. “그러나 길이 미끄럽지는 않았으나 밖에 나가지 않았다”의 경우 ‘그러나’와 ‘미끄럽지는 않았으나’가 역접의 연속어여서 의미 충돌을 일으킨다. 각각 “어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길이 미끄럽지는 않았으나 밖에 나가지 않았다”로 바꾸면 부드럽게 읽힌다.

<보기>

- ①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 탄생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
-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 탄생했어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 ② 하지만 그가 오기는 했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 하지만 그가 오기는 했어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 ③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 죽으므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며,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 ④ 세수 추계라는 게 정답이 없기는 해도 그래도 전통적인 모델은 있지 않은가.
- 세수 추계라는 게 정답이 없기는 해도 전통적인 모델은 있지 않은가.

(ㄴ) 번역 투를 남용하지 말자.

외국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문장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체를 ‘번역 투’라고 한다. 번역 투는 우리말답지 않을뿐더러 같은 의미를 지닌 우리말을 몰아내기도 한다. 다만 번역 투 표현 자체가 어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일부 우리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번역 투 표현으로 ‘~에 다름 아니다’, ‘~에 값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요로 하다’, ‘한 마리의 토끼’ 등이 있다. 지나친 피동 표현인 ‘생각되어지다’, ‘보여지다’ 등도 영어 직역 투의 문장이므로 우리말답게 고쳐 준다.

한편 ‘~에 관한’, ‘~에 대한’, ‘~회의를 갖다’, ‘~하기 위해’ 등도 번역 투로 인식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우리말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주 쓰지 않던 표현인데 번역 투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전통적인 표현을 몰아내는 데까지 용례를 확장한다. 그게 부자연스러움을 낳는 것이다.

<보기>

- ①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범죄와 다를 바 없다)
- ②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독적으로 커피를 찾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 ③ 여의도로부터 5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다.(→여의도에서)
- ④ 이러한 사실을 고려에 넣고 행동한다면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된다.(→고려하여)
- ⑤ 재단에 의해 운영되던 미술관이 문을 닫았다.(→재단이 운영하던)
- ⑥ 그들도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자유가 있다)
- ⑦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 ⑧ 택배 배송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서비스가 필요하다)
- ⑨ 이들은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정부의)

(㉮) 기타

불필요한 진행형

진행형은 ‘먹고 있다’, ‘놀고 있다’처럼 일이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 쓴다. 반면 ‘먹지 않고 있다’, ‘놀지 않고 있다’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말에는 진행형이 어울리지 않는다. ‘죽을 지경에 이르다’처럼 어느 지점에 도달한 상태일 때도 ‘이르고 있다’ 식의 진행형을 쓰지 않아야 한다. “그는 평소 열심히 공부한다”의 경우도 ‘...공부하고 있다’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는 평소의 행위 양상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쓰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 중이다’처럼 진행형이 중복된 형태도 피하는 게 좋다.

<보기>

- ① 그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굶고 있다**.(→굶는다)
- ②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고 있는** 산이다.(→즐거 찾는)
- ③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가 끝나면 늘 커피를 **마시고 있다**.(→마신다)
- ④ 잠재적 부실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달한다)
- ⑤ 그들이 임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검토하고 있다고)
- ⑥ 그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있다)
- ⑦ 각종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산재해 있다)

명사 나열어 풀어 쓰기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은 명사 4개가 죽 이어져 있어 딱딱한 느낌을 준다. 또 리듬감이 없어 읽어 내려갈 때 숨이 골라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간결하기는 하지만 의미상의 결합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사를 죽 나열하는 것보다 동사나 형용사로 풀어 써 쓰는 게 자연스럽다.

<보기>

- ① 여름엔 **수해를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을 기해야 한다.
→ 여름엔 수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③ 올해도 **대규모 세수 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올해도 대규모 세수 핑크가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 ④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편의 시설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자들의 여행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다.

‘X하다’와 ‘X를 하다’

목적격 조사 ‘를’은 강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철수가 노래를 했다”와 “철수가 노래했다”의 경우 전자는 ‘노래’ 자체를 강조하는 느낌이 든다. “아무개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의 경우 굳이 ‘서거’라는 단어 자체를 강조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서거했다’로 쓰면 된다. ‘(매출이 어제보다) 감소를 했다’도 ‘감소했다’로 적으면 된다. ‘책임 추궁을 하다’와 같은 표현도 ‘책임을 추궁하다’로 쓰는 것이 좋다.

<보기>

- ①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는** 것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조업하는)
- ② 올해 운영 방향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설정을 했다**.(→설정했다)
- ③ 그 아파트는 **분양 완료**를 했다.(→분양을 완료했다)
- ④ 올해도 대다수 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했다.(등록금을 동결했다)
- ⑤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도 **질병을 진단** 가능하다.
→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도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

02

기사 작성의
기본 요건

① 언론 윤리 및 보도 준칙	73
② 기사 찾기: 무엇이 기사가 될까	75
③ 기사의 가치와 요건	77
④ 취재하기	79
⑤ 기사 쓰기	84

①

언론 윤리 및 보도 준칙

기자가 용의자나 피의자로 사회면에 오르내릴 때가 있다. 때로는 기사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다. 기사로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에게 정정과 반론 보도 요청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에 휩쓸리기도 한다. 자기 행동이 기사 윤리에 맞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한국기자협회 강령 ▲언론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 ▲자살보도 윤리 강령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인권보도 준칙 ▲국가 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재난보도 준칙 ▲감염병 보도 준칙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제12조(대상 여론조사)에는 “미디어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15조(인용 시 표기 사항)에는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해당 선거 여론조사의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기간 등과 함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쓸 때 이 준칙을 참고하면 의도치 않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명칭 및 지칭 은어, 접근 경로, 결제 방식 및 전달받는 과정, 특정 성분 복용 치사량 등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면 범죄 유발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해 쓸 때는 엄두에 뒤야 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쓸 때에는 ‘감염병 보도 준칙’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 보도 준칙에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 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 준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 내놓는 연구 결과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은 “우리는 가부장제, 레드콤플렉스, 지역주의와 같이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묘사하는 것,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레드콤플렉스의 낙인을 찍거나(빨갱이, 종북),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는 표현(홍어, 전라디언) 등

이 혐오 표현이다. “성 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협을 일으킬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선언하고 있다.

윤리 강령과 보도 준칙들을 틈틈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기사 찾기: 무엇이 기사가 될까

사회 현상과 정부 정책 등에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일수록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진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건 관행이지’ 같은 생각이 쌓일수록 취재력은 떨어지고, 좋은 기사가 나오기 힘들어진다.

기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많은 제보가 온다. 문제의식을 갖고 제보를 보자. 그러면 괜찮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다. 특종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자정신도 필요하다. 기자들은 다른 언론사가 특종을 하고 자신이 특종을 놓치는 경우를 ‘물먹었다’고 말한다. 특종을 보는 시각은 기자마다 다르다. 이른바 ‘물먹은’ 어떤 기자는 특종을 평가절하해 버린다. ‘이전에 나온 것과 다르지 않다’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식이다. 물먹은 기자의 정신 승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사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례를 보자.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특종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6월 민주화운동을 이끈 한국 언론의 대표적인 특종이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생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받다가 숨졌다.

다음날 아침 중앙일보 법조 담당 신성호 기자는 기자 세계의 속어인 아침 ‘마와리’(취재원들 만나기)를 돌기 위해 서울 서소문동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신 기자는 이흥규 공안4과장 방을 찾았다. 이 과장은 “경찰들 큰일났어”라는 말을 흘리듯 꺼냈다. 이때 신 기자는 기지를 발휘했다. 무슨 말이나고 직접 물어보면 취재원이 입을 닫을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경찰들 너무 기세등등했어요”라는 말로 응대했다. 신 기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과장은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라는 말도 했다.

이어 신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숨진 학생의 이름과 학과를 확인했다. 당시 석간신문이었던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윤전기를 세우고, 기사를 사회면에 넣었다. 기사 비중은 크지 않았다. 사회면 머리기사도 아니고 고작 2단 기사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는 박종철 사망 사건을 다룬 첫 보도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死’

14일 연행되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아 오던 공안사건 관련 피의자 박종철 군(21·서울대 언어학과 3년)이 이날 하오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학교 측은 박군이 3~4일 전 학과 연구실에 잠시 들렀다가 나간 후 소식이 끊겼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청학동

341의 31 박군 집에는 박군의 사망 소식을 14일 부산 시경으로부터 통고받은 아버지 박정기씨(57·청학양수장고용원) 등 가족들이 모두 상경하고 비어 있었다.

박군의 누나 박은숙씨(24)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부터 박군이 운동권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아냈을 뿐 최근 무슨 사건으로 언제 경찰에 연행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군은 부산 토성국교·영산남중·해광고교를 거쳤으며 아버지의 월수입 20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다.

2단 단신 기사였지만, 파장은 컸다. 기사가 나오자 경찰은 이날 저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심문 시작 30분 만에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며 추궁하자 ‘억’ 하고 쓰러졌다”는 희대의 거짓 발표를 했다.

이처럼 특종은 중앙일보가 했다. 나머지 언론사는 물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한 언론사가 이 기사를 눈여겨봤고, 추가 취재를 통해 더 큰 특종을 터뜨렸다.

동아일보는 박종철의 죽음이 단순한 쇼크사가 아니라 물고문이라는 ‘사실(팩트)’을 확인해 그해 1월 19일 신문 1면에 ‘물고문 도중 질식사’라는 제목으로 머리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6월 항쟁을 촉발한 결정적인 보도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해 공동으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런 사례는 한 차례로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역시 특종 보도에서 비롯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물먹은’ 언론사들이 굴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였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은 티브이(TV)조선이었다. 이 언론사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민간문화재단 미르의 수백억 원 모금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첫 단독 보도로 한겨레는 낙종을 한 셈이었지만, 추가 취재를 통해 한 달여 동안 쟁점을 끈질기게 물고 나갔다. 한겨레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권력 실세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사를 속속 내보냈다. 한겨레의 이런 의혹 제기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고를 뜬 곳은 제이티비시(JTBC)였다. 제이티비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보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버티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사과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이 언론사 3곳은 48회 한국기자상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처럼 기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상과 현상을 바라봐야 좋은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언론사들과의 경쟁으로 낙종할 때도 흔히 있다. 이 경우도 추가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③

기사의 가치와 요건

기자는 평소 어떤 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가치판단으로 선택된다.

먼저 시의성이다.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것들(News)이란 뜻이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같은 사건도 시기에 따라 뉴스 가치가 달라진다. 새해 첫날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는 일반적인 출산이나 평범한 비보다 뉴스 가치가 높다.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때를 놓치면 기사 가치가 줄어든다. 뉴스 가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진다.

인접성은 사건 혹은 사안이 일반 독자에게 얼마나 근접한 상태인가를 말한다.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뉴스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미국의 교통사고보다 한국의 교통사고가 한국에서 뉴스 가치가 높다.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뉴스 가치가 높다.

저명성은 뉴스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단체가 지닌 유명도와 영향력을 뜻한다. 평범한 사람보다 인기 있는 탤런트, 정치인, 기업인의 행동이나 발언에 언론은 더 주목한다. 유명 인사일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된다. 대통령이 말한 평범한 한마디는 뉴스가 되지만, 보통 사람이 말한 열 마디는 뉴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영향성은 얼마나 많은 이에게 기사가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사건이나 정책은 여러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뉴스 가치가 높아진다.

특이성은 사람들의 예상이나 기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알았더라도 무심코 넘긴 일, 난데없이 벌어진 일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뉴스 기준이다.

이와 함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정확성이다. 정확성은 기사의 생명이다. 뉴스는 많은 사람이 보고, 역사에 기록된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오보가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도 지켜야 한다.

둘째, 객관성이다. 기사는 과장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한쪽의 주장만 넣지 않고 그에 대한 반론도 담아야 한다.

셋째, 간결성이다. 기사는 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핵심을 간결히 정리해야 한다. 문장 역시 간결해야 한다.

넷째, 평이성이다. 기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게 기사를 쓰면 독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다섯째, 친절성이다. 독자도 나만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쟁점을 따라가는 기자와 달리 독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사를 쉽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사를 쓸 때 맥락을 짚어 줘야 친절한 기사가 될 수 있다. 즉 기사를 읽고 난 독자의 모든 궁금증이 풀려야 한다.

④

취재하기

(ㄱ) 보도자료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기자들 전자우편 함엔 언제나 출입처 등에서 보낸 전자우편이 수북이 쌓여 있다. 회사에 기사 보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받는 전자우편(보도자료) 가운데 이른바 기사거리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물론 찾기가 쉽지 않다. 기자들은 보도자료에서 기사거리가 되는 내용을 찾기가 보물찾기처럼 힘들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기자들의 생각과 보도자료를 보내는 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위에서 말한 기사 기준으로 기사거리를 찾는다. 반면 보도자료를 쓰는 쪽은 자신들의 정책이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충돌 때문에 기자는 보도자료 가운데 기사거리를 찾기 힘들다고 하고, 보도자료를 보내는 쪽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안 써 준다고 불평한다.

물론 보도자료가 다 같은 건 아니다. 배포 기관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등의 보도자료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사가 크게 반영된다. 반면 정부 산하단체, 시민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는 크게 기사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도자료의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보도자료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부 기자에게는 기업들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자주 보낸다. 이런 보도자료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같은 내용이 어김없이 들어가 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라는 점을 단시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자료는 꼼꼼히 사실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기사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내는 경우도 흔히 있다. 보도자료를 보낸 회사의 홍보 담당자도 이런 사실을 모를 때도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 주가 부양 등을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홍보 담당자에게 건네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성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기업과 상품을 널리 알리고 싶지만, 광고비가 부담스럽기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보낼 때도 있다. 이는 기업뿐만이 아니다. 신생 정당이나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예도 흔하다. 기자는 이렇게 광고성, 홍보성 보도자료를 일단 먼저 걸러내야 한다.

기자들과 보도자료를 보내는 쪽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보도자료를 보내는 쪽은 행사가 끝난 뒤 사진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행사를 잘 치렀고, 사진을 언론에 크게 실어 달라는 이유

에서다. 하지만 기사 가치로 보면 끝난 행사는 별 영양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 행사를 앞두고 단신이라도 예고 기사를 쓰는 게 낫다.

출입처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사진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사진 설명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사진 설명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사가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나갈 때 사진이 꼭 필요한 때가 적지 않다. 사진이 들어가면 사진 설명도 꼭 넣어야 한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는 사진 설명도 꼭 챙겨 보자.

보도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아래는 한 기업이 만든 보도자료다.

○○, 세계적인 무연 솔더링 기술 개발

○○는 기존 무연 솔더링(Pb-free) 기술보다 30% 이상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무연 솔더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간이 라디오를 제작할 때 소위 '납땜'이라는 방식으로 조그마한 칩을 녹색의 기판(PCB)에 장착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솔더링'이라고 하며, '무연 솔더링'이란 환경 규제물질로 지정된 납(원소기호 Pb)을 미사용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에 의거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통과된 바 있어 전자업계에서는 납을 대신해 저렴하면서도 녹는점이 낮은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일본 마쓰시타에서 개발한 물질이 유일한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는 이번에 개발한 무연 솔더링 기술에는 최근 킬로그램당 1,00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가의 인듐(In)이 2%만 함유된 물질이 사용되어 인듐(In)이 8% 함유된 마쓰시타 기술에 비해 완제품 대비 30%가량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는 솔더의 녹는점이 섭씨 210°C 수준으로 솔더링 시 부착되는 칩에 열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솔더링 시 필요한 다양한 공정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업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대기업 홍보 담당은 '세계 최초', '국내 최초'를 보도자료에서 앞세우더라도 기자들이 기사를 잘 안 써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이 무연 솔더링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건 아니다. 일본 기업인 마쓰시타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연 솔더링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 용어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기술이 '세계 최초'가 아니라는 점에서 홍보 담당들도 힘이 빠져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보냈다.

이렇다 보니 이 보도자료를 크게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이른바 신문에 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경제면 머리기사로 쓴 언론사가 있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를 경제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대기업 홍보 담당도 포기한 보도자

료인데 한겨레는 왜 이 기사를 경제면 머리기사로 내보냈을까?

한겨레

2005년 04월 27일 수요일 027 경제

환경 망치는 납땜은 가라

‘납 없는 납땜’ 시대 온다

주석·인듐 등 합금...유해물질 쏙 빼
삼성전기 개발 일본 독점에 도전장



로, 기존 납땜용 합금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현재 세계에서 이 무연솔더링 재료는 일본 마쓰시타가 개발한 것이 유일할 정도로 첨단기술 분야인데, 이번에 삼성전기가 개발함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한·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기가 개발한 무연 솔더링 재료는 값비싼 원료물질인 인듐 함량을 마쓰시타의 8%에 비해 훨씬 적은 2%로 낮췄다. 마쓰시타보다 완제품 가격이 30% 이상 싸다고 삼성전기는 밝혔다.

■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시장 급성장=기존 납땜에 쓰이는 납과 함께 또다른 유해물질인 카드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법령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납·수은·카드뮴 등 6가지 유

해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주요 전자업체들은 장기적으로 모든 조립과정에서 납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삼성전기는 이번 신개발 기술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앞으로 로열티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개발과 동시에 일본의 납땜 전문업체인 니혼덴마에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도 납을 비롯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 7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납땜시장의 상당부분이 조만간 이 무연 솔더링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연 솔더링의 시장규모는 당장 내년인 2008년에 국내시장 1500억원, 세계시장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납 규제가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매년 30%씩 커지는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먼저 이 기사는 대기업 홍보 담당이 '세계 최초'가 아니어서 포기한 보도자료를 다른 시각에서 봤다. 일본 기업인 마쓰시타에 이어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을 다르게 해석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한국 기업이 도전장을 냈다'는 주제로 죽은 보도자료를 생생한 기사로 만들었다.

보도자료와 다른 이 기사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연 솔더링이란 어려운 정보기술 용어에서 벗어나 '납 없는 납땜'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정보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사를 쓴 점이다. 여기에 납이 환경오염 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해 납이 없이 납땜하면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보도자료라도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취재하다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취재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취재원과 가까워서도 멀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취재원과 너무 친해지면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힘들고, 취재원과 너무 소원해지면 출입처 안팎 정보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자 성향이 다양하듯 출입처 취재원 역시 다양하다. 기자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는 취재원이 있는가 하면 기자들과 거리를 두고 만나기를 꺼리는 취재원도 있다.

요즘엔 기자 출신들이 정치나 경제, 기업 분야로 이직하는 예도 많아 기자 생리를 잘 아는 취재원들도 늘어났다. 신문기자로 있다가 금융회사 홍보부장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장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달랐다. 경력 있는 기자들은 “이 부장이 기자 물을 빼지 못하고 목에 깎스한 듯 뻗뻗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낮은 연차의 기자들은 “이 부장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잘 얘기해 준다. 한쪽 편에 치우치지도 않는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출입처 홍보 담당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도 있고, 순환 보직처럼 2~3년 있다가 다른 분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출입처에 배치받으면 그 출입처의 인사 기조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는 게 좋다. 오랫동안 홍보를 담당한 사람은 출입하는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다. 친하게 지내면 여러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다. 반면 기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특종이 될 만한 거리를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순환 보직처럼 짧게 홍보 담당을 맡은 사람들은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기자 생리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보니 기자가 우연히 특종 던지는 말에 호응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는 예도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특종의 실마리 역시 감사의 발언이 발화점이 됐는데, 그 감사 역시 기자 생리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기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특종으로 이끌 수도 있다. 제보의 경우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은 세계적인 특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취재는 이런 제보에서 비롯됐다.

취재원이 어떤 말을 할지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전엔 기자들과 취재원들이 자주 술을 마셨다. 기자들은 취재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알기 위해서였고, 취재원들은 기자의 얘기를 듣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나 경쟁 기업의 동향을 듣기 위해서였다. 당시 기자들은 술을 마시다 취재원의 중요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그 내용을 메모해 다음 날 단독 기사를 썼다고 무용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요즘엔 휴대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어 취재원과의 대화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취재원들은 기사가 나간 뒤엔 부정확한 기사라거나 오보라고 항의하기도 한다. 기자가 쓴 기사를 두고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인 보도, 왜곡된 보도, 명예훼손성 보도라며 해명 자료를 내

보내기도 한다. 또는 독자 기고 형태로 반론이나 정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언론 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 보도 신청하며 대응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그들의 항의와 요구를 잘 들어 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⑤ 기사 쓰기

(-) 기사의 종류

기사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보통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 상자 기사, 인터뷰, 스케치, 칼럼, 단신 등으로 나뉜다.

스트레이트 기사

스트레이트는 평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사 형태다. 사회 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국제 기사 등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스트레이트의 핵심은 사실 위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란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앞세우는 이른바 역피라미드 형태로 쓰는 게 좋다. 분석과 시각을 보여 주기보다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한다. 객관성, 공정성,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음은 사회부에서 자주 쓰는 사건·사고형 스트레이트 기사의 일부다. 보통 시간과 장소를 먼저 쓰고 이어 사건을 보여 준다.

4일 오전 6시 29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던 90대 여성 A 씨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뉴스1)

경제부에서도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쓴다. 경제부에서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보통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스트레이트는 사회부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련 기사 등에서 자주 쓰인다.

정부 부처에서 내는 보도자료에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많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너무 많은 숫자와 통계치가 들어 있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많이 포함돼 있다. 중요한 수치는 기사에 싣되 어려운 내용은 그래픽으로 보여 주는 게 좋다.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주거나 용어 뒤에 괄호를 넣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스트레이트 기사의 일부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동아일보)

상자 기사

한국 기자들은 상자 기사 또는 영어식으로 박스 기사라고 한다. 영미 기자들은 피쳐 기사라고 한다. 상자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기사의 경우 기사 주변에 선을 그어 구분 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사건의 배경이나 어떤 해설을 보여 주는 기사여서 해설 기사라고도 불린다.

한때 기자들 사이에선 ‘1톱3박’을 써야 초짜 기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행했다. 여기서 ‘1톱3박’은 신문 1면 머리기사와 3면 해설 상자 기사를 말한다. 이런 스트레이트와 해설을 함께 쓴다는 건 그 쟁점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자 기사는 스트레이트와 달리 형식에선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스트레이트와 상자를 선후배가 나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되면 쓰는 기자 역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데스크 역시 번거롭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스트레이트와 상자 기사를 나눠 쓰게 되면 서로 논의해 겹치지 않도록 가르마를 타고 쓰는 게 좋다.

아래는 국민연금 개혁안 스트레이트와 연관된 상자 기사의 일부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 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 원씩 받는다.

‘줬다 뺐다’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

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 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조선일보)

최근엔 독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다. 또 정책이나 대책은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다양한 독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형식을 활용한다.

4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동아일보)

스케치

스케치 기사는 스트레이트와 해설 기사 외에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기사를 말한다. 스케치하듯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 아래는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기자가 쓴 기사의 일부다.

“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왔는데 하마터면 진료를 못받을 뻔했습니다.”

지난 3일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이 근처라는 그는 고교생 딸이 증상을 호소해 급하게 이곳을 찾았다. 그는 “야간 진료 중단 사실을 몰랐는데 앞으로 밤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던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일부터 야간 진료를 전면 중단했다. 소아전문 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성인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 병원 응급실에는 당초 전문의 15명이 근무했으나 지난달 4명이 그만둔 데 이어 지난 1일 자로 4명이 추가 시작하면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곳은 세종 유일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향후 급한 환자들은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주요 병원에서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수도권 병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지방에선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스케치 기사는 간혹 르포 기사와 혼동돼 쓰이곤 한다. 보통 스케치는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을 취재한 기사를 말한다. 지역적으로도 그 신문이 발간하는 곳 주변에서 일어난 기사가 위주다. 반면 르포는 더 긴 시간을 두고 쓴 기사를 뜻한다. 지역적으로도 신문이 발간하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그곳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작가 강경란 프로듀서(PD)가 비극의 현장을 르포 형식으로 쓴 기사의 일부다.

일요일이던 지난 25일 새벽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미사일 공방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그 뒤로도 자잘한 체면치레 보복전이 며칠째 이어졌다. 국제사회와 언론은 이란의 개입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지만 정작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는 차분했다.

“오늘 딸아이가 공공 조종사 시험을 보는 날인데 모든 일정이 취소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정보 서비스 앱 ‘웨이즈(Waze)’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보안을 이유로) 몇 시간 중단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고 안전한 곳에 머물라는 정부의 대피 권고도 해제됐습니다. 상부 갈릴리(레바논과 접경한 갈릴리 지역 북쪽 고원지대) 일부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용합니다.” 헤즈볼라와 교전 중인 북쪽 국경에서 약 50킬로미터 거리의 갈릴리 호수 인근 키부츠에 사는 친구가 그날 저녁 현지의 분위기를 전해 왔다.(한겨레)

칼럼

칼럼은 논설위원이나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 부서장이 쓴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많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취재일기, 기자수첩, 기자의 눈 등의 이름으로 현장 기자들이 쓰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각 부서 팀장이 돌아가며 쓰는 칼럼도 늘어나고 있다.

칼럼은 기자의 글솜씨를 회사 동료와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 준다. 칼럼인지 상자 기사인지 모를 정도로 못 쓴 칼럼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독자가 흥미 놀랄 만큼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게 좋은 칼럼이다. 아래는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했던 김훈이 쓴 칼럼이다.

라파엘의 집

서울 종로구 인사동 술집 골목에는 밤마다 지식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몰려들어 언어의 해방구를 이룬다. 노블레스오블리주론을 논하며 비분강개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술버릇이다.

그 술집 골목 한복판에 '라파엘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었다. 참혹한 운명을 타고난 어린이 20여 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다. 시각·지체·정신의 장애를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중복장애 어린이들이다. 술 취한 지식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틀거리며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닢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파엘의 집'은 전세금을 못 이겨 2년 전에 종로구 평동 뒷골목으로 이사 갔다.

'라파엘의 집' 한 달 운영비는 1200만 원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1천 원이나 3천 원씩 고박고박 기부금을 내서 이 시설을 16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후원자는 800여 명이다. '농부'라는 이름의 2천 원도 있다. 바닷가에서 보낸 것갈도 있고 산골에서 보낸 사골뺀도 있다. 중복장애 어린이들은 교육이나 재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아 주면 온 얼굴의 표정을 무너뜨리며 웃는다.

인사동 '라파엘의 집'은 술과 밥을 파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밤마다 이 식당에는 인사동 지식인들이 몰려든다.(한겨레)

김훈의 칼럼은 500여 자의 짧은 글 안에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자연스럽게 까발리고 있다. 한마디로 통찰이 뛰어난 칼럼이다. 이처럼 칼럼에는 이런 통찰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통찰이란 본질을 확실히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대상을 향한 애정과 관찰력이 깃들여 있어야 통찰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이 녹아 있어야 칼럼은 예리하고 독특한 시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통찰이 스며든 김훈의 칼럼은 남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며 세계를 독특하게 해석한다.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잡아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훈의 칼럼은 기자들이 특히 좋아한다. 글쓰기의 최종 목적지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통찰이 들어간 칼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인터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중의 하나다. 이런 관심을 풀어 주는 기사가 바로 인터뷰다. 인터뷰 대상은 정치인, 관료, 기업 최고경영자, 시민단체

인사, 교수, 연예인, 영화감독, 스포츠 선수 등 무궁무진하다.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인물을 인터뷰하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인터뷰에 앞서 대상자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게 좋다. 그래야 인터뷰 내용이 더 풍부해진다.

단독으로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가 질문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지는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선 인터뷰 대상자와 관련한 최근의 쟁점을 모두 찾아본 뒤 이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인터뷰 때 돌발 질문이나 돌발 대답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인터뷰 기사의 80~90%는 질문지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국제부는 이전에는 인터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전자우편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외국의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스포츠인과 인터뷰하는 예도 늘어났다. 외국인과의 인터뷰하기 위해선 구글 번역기 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춰 놓는 것도 좋다.

단신

단신은 짧은 스트레이트다.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 보통 400자를 넘지 않는다. 짧은 기사여서 소홀히 대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보통 짧은 기사를 잘 쓰는 기자가 긴 기사도 잘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도록 하자. 특히 초년 기자들은 단신을 통해 스트레이트 기사 방식을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선배라고 해서 일일이 기사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 가며 성장해야 한다.

(-) 전문(리드) 쓰기

전문(리드)에는 핵심 정보만

리드는 기사의 핵심을 한두 줄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사 첫머리에 쓴다. 리드만 읽어도 전체 기사를 알 수 있게 작성하면 좋다.

리드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면 꼬이거나 복잡해진다. 핵심만을 뽑아 쉽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다만 독자를 본문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과 문장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좋다. 상자 기사나 스케치 기사의 리드는 형식이 자유로운 반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의 기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눈

길 끄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리드 문장의 주어는 그 기사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굳이 앞에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정보는 다음 문장으로 넘긴다..

① 10일부터 버스 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

② 서울시는 10일부터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①, ②는 버스 요금 관련 기사의 리드문을 두 유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①의 주어는 ‘버스 요금’이고 ②의 주어는 ‘서울시’이다. 문장에서 주어는 강조 기능을 하므로 ①은 ‘버스 요금’에 초점이 두어졌고, ②는 ‘서울시’에 초점이 두어졌다. 곧 ①은 ‘버스 요금이 (100원) 오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②는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100원) 올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셈이다. 그런데 독자에게는 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버스 요금을 누가 올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①이 더 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만약 ①의 정보가 이미 알려진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울 게 없고,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체 및 인상 시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① 대신 ②를 택한다. 곧 ②는 시의성이 약한 기사나 단신 기사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서울시는 9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0일부터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② 서울시는 9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 회의에서 10일부터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③ 서울시는 10일부터 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를 주어로 하여 리드를 만드는 상황이라면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①은 한 문장 안에 여러 정보를 넣어 글이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했듯 전문(리드)에는 핵심 정보 한두 개만 넣는 것이 좋다. 핵심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②도 바람직하지 않다. 간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은 독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처럼 ‘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핵심 정보만 리드에 넣고 회의를 연 시간과 장소 등의 부차적인 정보는 다음 문장으로 넘긴다.

① ○○회사는 2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다. 교체된 임원은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사업부 부사장급 10명 이상이다.

② ○○회사는 2일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사업부 부사장급 임원을 10명 이상 교체했다. ... 이번 인사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기업체 임원 인사에 관한 기사의 리드다. 인사 기사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는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어떤 보직에 어떤 인물이 배치되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즉 ‘임원 교체’, ‘교체 대상 부서’ 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②번 형태로 리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은 부차적인 정보이므로 뒤로 뺀다.

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위원회 조사 결과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50종 중 20종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50종 중 20종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위원회는 시중의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국의 건강식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이번 인사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소비자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기사다. 수입 건강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핵심 정보이므로 이 내용을 전문(리드)에 넣은 ②번 문장이 적격이다. ①번의 리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전하는 것이어서 힘이 떨어진다. 기사 작성의 기본 요소인 날짜도 빠져 있다. 참고로 기사 문장에서는 접속어 ‘그런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①의 두 번째 문장은 그런 점에서도 기사체 문장과 거리가 있다.

‘~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전문(리드) 피하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전할 때는 발신처를 밝혀 적는다. 예컨대 경찰 발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경찰은 ~라고 말했다’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 내용이 많을 때는 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 ‘경찰은 ~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라고 설명했다’ 식으로 문장마다 ‘경찰은 … 말했다/밝혔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는 글을 단조롭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에 따르면’을 써서 첫 문장만 ‘경찰에 따르면…’ 식으로 표현한 후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를 생략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에 따르면’을 남용하면 자칫 베끼기에 능숙한 기자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스스로 취재할 수 있는 내용에까지 ‘따르면’을 쓸 필요는 없다. 예컨대 주식 정보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얼마를 기록했다’라고 쓸 이유가 없다. 그냥 ‘이날 코스피 지수는 얼마를 기록했다’로 표현하면 된다.

- ①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장비를 보내기로 했다.
→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장비를 보내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장비를 보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리드를 ①처럼 ‘…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리드는 그 기사의 핵심 정보로 구성되고, 리드의 주어도 기사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기사 작성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수정문처럼 ‘…에 따르면’을 두 번째 문장에 넣거나 두 번째 수정문처럼 발신처를 주어로 삼는 방법을 택한다. 아래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 ②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A사 제품의 배터리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A사 제품의 배터리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는 1일…
③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화장품 수출이 10%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15% 늘었으며…
→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이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 중국 등의 한국 화장품 선호도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이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참고로 ②의 경우 ‘컨슈머리포트’는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외국 매체이므로 수정문처럼 독자의 생소함을 덜어 주기 위해 매체의 성격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 리드를 무조건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중요한 사건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도 주요 관심사가 된다면 ③의 두 번째 수정문처럼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리드 문장에 넣어 준다.

전문(리드)이 여러 개일 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무게감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정보도 여러 가지일 때는 한 가지 정보로 전문(리드)을 구성 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각각의 정보를 전문(리드)에 다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는 경중을 따져 가장 무게감이 있는 정보를 리드로 가져갈 수도 있고, 리드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갤 수도 있다. 다만 세 개 이상으로 쪼갤 때는 글이 산만해지지 않는지, 초점이 분산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 ① ②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④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ㄱ 신문)
- ② ②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①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ㄴ 신문)
- ③ ②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④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⑥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ㄷ 신문)

④ ㉔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놔다. ㉔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㉔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㉔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회'를 열고... (ㄹ신문)

⑤ ㉔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놔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㉔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㉔특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금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 수익률을 올려 전체 규모를 키우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㉔여기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 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회를 열고... (ㄹ신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이를 보도한 신문 기사들을 5개 골라 보았다. ④, ⑤번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안 자체가 여러 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①, ②번 기사는 리드문이 2개이고, ③은 3개, 그리고 ④, ⑤는 4개이다. 경중을 따졌을 때 가장 무게감 있는 정보는 연금 요율과 소득대체율 상향이므로 ①번부터 ④번까지 4개 신문이 이 정보를 첫 번째 리드문에 넣었다. ⑤의 경우 다른 신문과 달리 '21년 만의 개혁'을 전문(리드)에 넣었다. 리드문이 2개인 ①, ②번 기사가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느껴진다. 리드문이 3개인 ③번은 세 가지 정보를, ④, ⑤번은 네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하니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보 속의 정보 챙기기

특정 현상 자체보다는 그 현상이 지니는 의미 또는 그 현상이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관심사일 경우 그 관심사를 전문(리드) 뒤에서 바로 짚어 주는 것이 좋다. 예컨대 아래의 ①번 글처럼 환율의 경우 등락 수치만 나열하면 힘 있는 글이 될 수 없다. 해당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짚어 주는 게 좋다.

① 환율이 1230원대로 올라섰다. 1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른 1231원을 기록했다.
→ 환율이 1230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엔 청신호가 될 수 있다. 1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른 1231원을 기록했다.
→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1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른 1231원을 기록했다.

②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본부는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본부는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신 정보를 앞에 내세운다

개별 사건들로부터 특징적인 경향성을 추출하는 기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사건 또는 가장 정보 가치가 큰 사건을 먼저 쓴다. 아래 ①의 경우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가장 최근인 지난 3월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비슷한 이전 사건을 끌어들이 트렌드성 기사를 만든 것이다. 또 ②는 최근의 합작 법인 탄생을 계기로 몇 년 전의 합작 법인 탄생 사건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업체의 임원들 이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1월 ㄱ사가 김 아무개, 이 아무개를 상무로 영입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ㄴ사가 박모, 이모를 타사에서 영입했다. 지난 3월에는...
→ ○○업체의 임원들 이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3월 ㄱ사가 김 아무개, 이 아무개를 상무로 영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ㄴ사가 박모, 이모를 타사에서 영입했다. 또 지난 1월에는...

② 기업들이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ㄱ사와 ㄴ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2019년 ㄴ사와 ㄹ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ㄴ사와 ㄷ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 기업들이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ㄴ사와 ㄷ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ㄱ사와 ㄴ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ㄴ사와 ㄹ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㉔) 좋은 기사의 요건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야 한다. 기자 김훈은 기사를 쓸 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그는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내 욕망을 지껄이고 있는 문장인지 구분하라”고 했다. 김훈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지 말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반대편 정치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가짜뉴스를 기자에게 슬쩍 흘리기도 한다. 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품이 없더라도 기사를 통해 뛰어나다고 포장하려고 한다. 제보자는 자신이 본 피해를 양감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점을 제보하기도 한다. 이런 거짓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인하고 확인해 정보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일간지 기자의 경우 매일 마감 시간에 맞춰야 한다. 정보를 확인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을 취재해 기사를 쓸 때다. 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풋내기 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틴의 탐사보도가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1974년 봄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다룬 책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을 펴냈다. 책 제목과 관련해 우드워드는 “취재는 계속 막혔고, 그때마다 미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 이런 책 제목을 지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을 취재할 때는 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드워드가 ‘딥스로트’ 같은 공익 제보자를 통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갔듯이 세계 어디서나 이런 공익 제보자는 있기 마련이다.

(㉕) 기사의 화룡점정 ‘제목’

제목은 도로의 표지판이나 자동차의 방향지시등 같은 구실을 한다. 기사가 무엇에 관해 어떤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제목에서 의도와 내용을 먼저 읽을 수 있다. 제목은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도 한다. 그렇다고 선정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목을 달 일은 아니다. 공적인 언어로 독자들에게 신뢰를 보내야 한다. 새로움을 추구하되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목의 첫째 덕목도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독자들이 시선을 보낸다. 쉬워야 전달력이 있고, 흥미도 끌 수 있다. 가능하면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는 피하는 게 좋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땅콩 회항’ 사건 기사에서 사실은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라는 견과류였다. 마

카다미아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이때 누군가는 ‘견과류=땅콩’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제목을 뽑았다. 이 제목은 많은 사람에게 인상적인 기억을 남겼다.

둘째, 간결해야 한다. 길어지면 앞뒤가 꼬이거나 장황해지기 쉽다. 평소 간결한 제목을 눈여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기사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구체적이어야 한다. 추상성은 제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이다. 구체적이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신뢰도 높아진다. ‘5대 환경 분야 6558곳 안전진단’처럼 중요한 수치가 기사에 있으면 제목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

넷째,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제목의 품질은 떨어진다. ‘멋진’ ‘아름다운’ 같은 수식어를 괜히 붙일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게 최선이다.

다섯째, 생동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명사형으로 끝나는 제목이 다소 정적이라면 ‘하자’나 ‘어라’ 형태로 끝나는 제목은 동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점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에너지 신산업을 이끈다’는 비교된다.

여섯째, 내용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단순 서술형이다. 명사로 마치기도 하고, ‘이다’나 ‘하다’로 끝내기도 한다. 의문형으로 끝내는 제목은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집중력을 높인다. 어떤 형태가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

(㉖) 문체 만들기: 이야기체 기사

“목동 마을 사람들은 불도저가 미웠다.”

1980년대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 한창일 때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김훈이 현장을 취재한 뒤 쓴 기사 도입부였다. 사회부 사건 기사의 문체가 아니었다. 보통 이런 경우 ‘○일 서울 목동 신시가지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불도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라고 쓴다.

당시 한국일보 사회부 데스크들은 이 도입부를 놓고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한다. 사회부 기사 방식으로 뜯어고치자니 김훈의 첫 문장이 너무 강렬했고, 도입부를 살리자니 전형적인 사회부 문체가 아니어서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문 문체의 기본인 역삼각형 글쓰기는 중요한 주제를 맨 처음 보여 주고,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해 두괄식 글쓰기다. 기자들은 수습 때부터 역삼각형 글쓰기를 배우고 첫 문장이나 첫 단락에 중요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역삼각형 글쓰기는 의견이나 주장을 배제한 채 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로 활용한다. 김훈은 이런 두 개의 전통을 해체하며 자기 스스로 문체를 만들어 나갔던 셈이다.

역삼각형과 스트레이트는 선배 기자가 후배 기사를 통제하기 좋은 글쓰기다. 초년 기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삼각형과 스트레이트로 쓰는 기사다. 후배는 선배에게 “스트레이트 기사

도 제대로 못 쓴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 이런 지적을 받은 후배도 5년쯤 지나면 역삼각형과 스트레이트 문체에 익숙해지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후배의 기사를 보고 지적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런 문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문체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신문 기사 문체는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 전문(리드) 문장에 핵심 정보를 모두 담는 기사가 대부분이니 글을 수박에 없다. 기사도 딱딱하다. 기자들이 쓴 칼럼 역시 문체가 살아나지 않아 읽어도 재미가 없다.

2007년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자들이 뉴욕타임스를 방문했다. 한 기자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뉴욕타임스에서 소설 같은 문체로 쓴 기사를 자주 읽게 된다. 왜 소설 같은 문체로 기사를 쓰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는 “우리도 이전엔 스트레이트로 기사를 많이 썼다. 하지만 너무 딱딱해 독자들이 잘 안 읽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소설처럼 기사를 쓴다. 독자는 사람 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소설처럼 사람 얘기가 들어간 기사를 쓰는 거다. 모든 기사를 소설처럼 쓰지는 않지만 사람 얘기를 많이 담으려 한다”고 했다.

그 기자는 “기자라면 세상을 바꾸고 싶고, 많은 사람이 내 기사를 읽게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쉬운 문체와 더 친근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기자가 말한 건 이야기체 기사다. 내러티브 기사체라고도 한다.

지면에 제약이 있는 종이신문과 달리 인터넷은 지면 제약을 넘어서 이야기체 기사를 쓰기에 적합하다. 무엇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말했듯 독자가 공감하는 문체가 필요한 때다. 독자가 원하는 건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들어간 이야기다. 사실 이야기체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쓰기가 더 힘들다. 기자의 관찰과 통찰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 기자는 사건을 단순히 정리하기보다 관찰을 바탕으로 묘사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

이야기체 기사 형식은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스토리 양식’(The Wall street Journal Story Formula)으로 불린다. 이 양식은 뉴스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새로운 기사 양식이다. 소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쓴다. 기사는 사건과 사고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다. 이 양식은 기존 소설 영역이었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이다. 즉 기사의 논픽션을 소설의 픽션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야기체 형식의 기사를 한번 보자.

제 발로 감옥에… 한국의 교도소 표방 이색 명상 센터

사위는 아직 어둡컴컴하다. 창을 사이로 냉기가 스며든다. 벽에는 시계가 없다. 박우섭씨(58세)는 독방 문 아래쪽 틈으로 아침식사가 들어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는 불면의 밤을 보낸 듯, 면도도 하지 않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이번이 세 번째 수감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란색 수의 차림이다. 가슴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보려고 애쓴다. 화장실과 작은 세면대, 책상밖에 없는 1.68평(약 5.57m²) 남짓한 공간에서는 사실 명상 말고는 달리 할 일도 없다. 그의 머릿속에 무수한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감옥에 갇히면 답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 자신에 온전히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는 1980년대 한국을 휩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수감을 자청했다. 제 발로 감옥에 들어와 스스로를 가둔 것이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졸업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심한 한국에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심신의 휴식을 제안하는 이색 장소가 등장했다.

권용석 이사장(47세)은 강원도 홍천의 허허벌판에 교도소를 표방한 명상 센터 ‘내 안의 감옥’을 만들었다. 2,448평(약 8,093m²) 정도의 부지에 수감동과 강당, 관리동이 자리하고 있다.

“그때는 일을 손에서 놓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1990년대 후반 제주지검 공간기획 담당 검사로 일하던 시절을 얘기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권 이사장은 어느 날 오랜 지인인 교도소장에게 치유 목적으로 일주일만 수감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일주일이라는 체류 기간이 너무 긴 것도 같았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역설적인 의도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를 길게 쓰라고 강조하는 등 한국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은 1,765시간이었다.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이슈다. 2013년 OECD가 실시한 ‘삶의 만족도’조사에서 한국은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4.3점(만점은 10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6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 안의 감옥’은 지난해 6월 완공됐다. 권 이사장과 극단 대표인 그의 아내 노지향 씨는 1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독방 28개를 갖춘 이 명상 센터를 지었다. 공사비는 기부를 받기도 하고 친지들로부터 빌리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독방에서 혼자 명상하는 시간 외에도 강당에서 단체로 명상 수업과 힐링 수업을 받으며 ‘내 안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배우고 인생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체류 비용은 15만 원이다.

부부가 처음 꿈꿨던 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부부는 체류 기간을 이틀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시간을 벌 의지가 없거나 휴가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도 허락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권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해한다. 비상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다. 사실 그런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며칠 전 아침에 찾아가 보니 20명이 가톨릭 사제가 진행하는 성격 분석 강의를 듣고 있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강의 목표다. 권 이사장은 ‘내 안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와 남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누가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고 문자를 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박승호 씨는 서둘러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확인했다.

박 씨는 프로그램의 질(質)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서도 시설이 진짜 감옥처럼 열악했으면 자기 절제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다.

“감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따듯하다.”

수감생활은 육체적으로는 제약을 줄지언정 숨 가쁜 현대생활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는 자유를 준다. 실제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영감을 얻었노라고 얘기하는 지식인들과 정치 운동가들이 상당수 있다. 독서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쁜 일정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책을 읽기 위해 감옥에나 한 번 더 가야 할 모양”이라고 얘기한 일화는 유명하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10년 동안 가택연금에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 쓴 글을 모아 ‘김대중 옥중 서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자기성찰을 일깨우는 옥중 서간집의 고전이다. 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2박 3일 프로그램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정을 늘리면 사람들이 불멘소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사람들이 강제로라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느긋하게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소프트 리드(The soft lead)다. 기사 첫 부분을 읽기 쉽게 다가가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보통 구체적인 사건 또는 일화로 시작한다. 독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다음은 Nut 그래프(nut graf)다. 리드를 쓴 뒤 이 기사를 왜 쓰는지 보여 주는 과정이다. 기사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게 좋다. ‘내가 왜 이 글을 읽어야 하지’라는 독자를 상대해 주제의 중요성을 진술하는 부분이다.

위 기사에선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졸업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심한 한국에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심신의 휴식을 제안하는 이색 장소가 등장했다’가 Nut 그래프의 시작 부분이다.

다음은 본문이다. 본문은 이야기의 요점을 잘 제시해야 한다. 취재하거나 인터뷰한 사람들

의 얘기를 잘 요리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본문에선 세부를 묘사하는 것도 좋다.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현장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기사로 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 양식의 마지막에 나오는 서클 키퍼(The circle kicker)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첫 부분에서 시작한 사건이나 주인공과 관련한 내용을 끝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미상관식이다. 서클 키퍼는 독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다. 다만 기자 의견을 제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위 기사에선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누가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고 문자를 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박승호 씨는 서둘러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확인했다”가 서클 키퍼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03

부록



부록1 쉽게 다듬은 말	103
부록2 헛갈리는 말 / 틀리기 쉬운 말	106
부록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157

부록 1 쉽게 다듬은 말

ㄱ. 가드레일	→	보호 난간
가스라이팅	→	심리(적) 지배
가이드라인	→	지침, 방침
ㄴ. 노하우	→	비법, 기술, 비결, 방법, 요령
ㄷ. 도어스테핑	→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디지털 포렌식	→	전자 감식, 디지털 증거 수집, 전자 법의학 수사
디폴트	→	① 채무 불이행 ② 기본값
ㄹ. 라이브 커머스	→	실시간 방송 판매
로드맵	→	이행안, 단계별 이행안, 일정 계획
로드킬	→	동물 찾길 사고, 동물 교통 사고
론칭	→	출시, 사업 개시, 신규 사업 개시
리뉴얼	→	새 단장, 재구성
리사이클(링)	→	재활용
리스크	→	위험, 손해 위험
ㄴ. 머그샷	→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마스터 플랜	→	종합 계획, 기본 계획
메신저 피싱	→	문자 금융 사기
모라토리엄	→	지급 유예, 지불 유예
모빌리티	→	탈것, 이동 수단
몸캠피싱	→	신체 불법 촬영 협박
ㄷ. 배리어 프리	→	장벽 없는, 무장벽, 장애물 없는, 무장애

	베이비 스텝	→	소폭 조정
	보이스 피싱	→	사기 전화, 전화 금융 사기
	블랙아이스	→	살얼음, 도로 살얼음
	블록딜	→	시간외 거래, 대량 매매, 대규모 주식 거래
	빅스텝	→	대폭 조정
ㅅ.	숏폼	→	짧은 영상, 짧은 형식
	스마트 워크	→	원격 근무
	스미싱	→	문자 결제 사기
	스쿨존	→	어린이 보호 구역
	스크린 도어	→	안전문
	스타트업	→	새싹 기업, 창업 초기 기업, 신생 기업
	시너지	→	상승(효과), 동반 상승(효과)
	시니어	→	어르신, 노년, 노인, (나이든) 장년
	실버	→	① 어르신, 노년층 ② 은, 은색
	싱크홀	→	땅꺼짐
ㅇ.	어닝 서프라이즈	→	실적 급등
	어닝 쇼크	→	실적 충격
	언택트	→	비대면
	업사이클(링)	→	재활용
	오너	→	소유주
	원원	→	상생
	이커머스	→	전자 상거래
	인센티브	→	성과급, 유인책, 특전

	인프라	→	기반, 기반 시설
ㅈ.	자이언트 스텝	→	광폭 조정
ㅋ.	키오스크	→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키워드	→	핵심어
ㅌ.	테이저컨	→	전기 총격총
	(통화) 스와프	→	(국가간) 통화 맞교환
ㅍ.	패싱	→	거절, 거부, 배척
	퍼펙트 스톰	→	초대형 경제 위기
	펜스	→	울타리
	포트 홀	→	바닥 홈, 바닥 패임, 도로 파임
	푸드	→	먹거리
	피싱	→	전자 금융 사기
ㅎ.	핫이슈	→	주요 쟁점
	허브	→	중심, 중심지
	헤이트 스피치	→	혐오 발언, 증오 표현
A.	AI	→	①인공 지능 ②조류 인플루엔자
E.	ESG	→	환경·사회·투명 경영, 사회 가치 경영
I.	ICT	→	정보 통신 기술
M.	MOU	→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N.	NFT	→	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증서
R.	R&D	→	연구 개발
S.	SOC	→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
T.	TF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부록 2

헛갈리는 말 / 틀리기 쉬운 말

(-) 헛갈리는 말

가능하다	① 형편을 엿보다. ② 어렵으로 짐작하다. *정치의 흐름을 가능하다.
가름하다	① 갈라놓다. ② 구별하거나 분별하다. *씻으로 가름하다.
갈음하다	본디 것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인사말에 갈음하다.
가루다	맞서서 견주다. *너와 가를 만한 사람이 없다.
가르다	① 따로따로 나누다. ② 낱선 연장으로 베거나 쪼개다. ③ 양쪽으로 헤쳐서 열다. *씻으로 가르다. 수박을 갈라 먹다. 배를 가르다.
가리다	①(보이거나 통하지 않게) 막거나 또는 막히다. ②골라내다. ③어린이가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④똥오줌을 스스로 알아서 누다. ⑤빛이나 외상값을 갚다. ⑥형클어진 머리털을 대강 빗다.
가리마	옛날 부녀자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큰머리 위에 덮어쓰던 검은 형균.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가르치다	일깨워 알게 하다. 올바르게 바로잡다. *공부를 가르치다.
가리키다	무엇을 이르거나 알리다. *공자를 가리켜 성인이라 한다.
가없다	그지없다. 헤아릴 수 없다. *가없는 은혜.
가없다	=가연다. 불쌍하다. 딱하다. *가없는 인생.
가연다	=가없다. 불쌍하다. 딱하다. *가연은 인생.
가진	가지고 있는. '가지다'의 활용형. *가진 게 없다.
갇은	골고루 갇춘. 온갖. *갇은 고생을 했다.
간석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개펄.
간척지	호수나 바닷가에 독을 쌓아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나 농경지로 만들어 놓은 땅.

강우량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비의 총량. 단위는 mm.
강수량	눈, 비, 우박, 진눈깨비, 안개 따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 단위는 mm.
갱신	①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자기 갱신/환경 갱신/동맹 갱신/단체 협상 갱신이 무산되었다. ②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 갱신 /비자 갱신/어업권의 갱신/면허 갱신.
경신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기록 경신.
거루다	배를 강가나 냇가에 대다.
거르다	① (체 따위에 받쳐서) 액체만 받다. ② 차례를 하나 빼고 그 다음 차례로 건너뛰다.
걸우다	거름을 주어 땅을 걸게 하다. '걸다'의 사동사.
거스르다	① 자연스러운 세(勢)나 흐름의 반대 방향을 취하다. ② 큰돈을 내어 값을 치르고 잔돈을 받다. *선생님 말씀을 거스르지 마라. 잔돈을 거슬러 받다.
거슬리다	마음에 들지 않고 벗어나다. *귀에 거슬리는 말. 비위에 거슬리다.
견다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가려진 것을 치우다. *빨래를 견다. 외상값을 견다. 바지를 견다.
거두다	수확하다. 결과를 얻다. 집안일 따위를 돌보다. 하던 일을 끝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다. 승리를 거두다. 살림을 거두어 고향을 떠나다. 생각을 거두다. 웃음을 거두다.
견잡다	붙들어 바로잡다. *견잡을 수 없다.
결잡다	결잡다: 어림잡다. *결잡아서 사흘 걸린다.
겨누다	목적물의 방향과 거리를 똑바로 잡다. *목표물을 겨누다.
겨루다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실력을 겨루다.
결단	딱 잘라 결정하거나 단안을 내리다. *결단을 내리다.
결판	망가져 쓸모가 없게 되다. *집안이 결판나다.
결들다	① 한자리에 덧붙여 어울리다. ② 곁에서 거들어 주다.
결들이다	① 한 그릇에 짬 음식을 함께 담다. ② 주로 하는 일 외에 짬 일을 겸하여 하다.

골다	*코를 골다.
끓다	*배를 끓다. 속이 끓다.
공그르다	실땀이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속으로 떠서 꿰매다.
공글리다	① 단단하게 다지다. ② 일을 확실히 매듭짓다.
구명(究明)	사물의 본질, 원인 따위를 깊이 연구하여 밝힘. *수사 팀은 사건의 원인 구명을 위해 노력했다.
규명(糾明)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범인이 허위 자백을 한 경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다.
궁굴다	(그릇 따위가) 겉보기보다 속이 너르다.
궁굴리다	너그럽게 생각하다. 좋은 말로 구슬리다.
궁글다	물체의 속이 비다.
귀양	형벌.
귀향	고향으로 돌아감.
그리고	그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또, 와, 및. *그리고 나서(*), 그리고는(*)
그러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렇게 되게 하다. ‘그리하다’의 준말. *혼자 결정하다니,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한다. 그러므로 성공했다(이유).
그럼으로(씨)	*바둑을 둔다. 그럼으로(씨) 소일을 한다(수단).
그슬다	불에 쪼여 겉만 조금 타게 하다. *불에 털을 그슬었다.
그을다	(햇볕이나 연기 따위에 오래 쪼여) 빛이 검게 되다.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다.
그슬음	불에 겉만 약간 타게 하는 일.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타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천장에

그을음이 까맣게 졌다

금새	물건값.
금세	금시에. *금세 없어지다.
금시(今時)	지금.
기	① 활동하는 힘. *기가 죽다. 기가 왕성하다. 기가 세다. ② 숨 실 때 나오는 기운. *기가 통하다.
끼	① 연예에 대한 재능이나 소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 *노래에 관한 끼가 다분하다. ② =바람기. *끼있는 사람.
깍듯이	*어른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다.
깍듯이	‘깍’-에 어미 ‘-듯이’가 붙은 것. *칼로 깍듯이 매끄럽게 다듬었다.
각쟁이	*서울각쟁이, 알각쟁이.
각정이	도토리. 상수리 열매의 밑받침.
겹데기	① 알맹이를 싼 단단한 물질. *달걀·호두·굴 겹데기. ② 겉을 싼 것. *이불 겹데기. ③ 화투에서 꽃수가 없는 날장. *비 겹데기.
겹질	물체의 거죽을 싸고 있는, 딱딱하지 아니한 물질의 켜. *사과 겹질.
꼬리	동물의 꼬무니에 내민 부분. *개의 꼬리.
공지	새의 꼬무니에 달린 깃. *공지 빠진 새.
꿈다	① 손가락으로 세다. ② 누구를 지목하다.
꽃다	찢러넣다. 끼워넣다.
꽤	보통보다 더한 정도로. *꽤 잘한다.
깨나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힘깨나 쓰겠다. 나이깨나 먹었다.
꾸다	① 꿈을 꾸다. ② 빌리다. *꾸어온 보릿자루.
꾸이다	꿈에 나타나다.
꿔다	*방귀를 뀌다.
궤다	*바늘구멍에 실을 꿰다.

끌쩍거리다	긁어 뜯적거리다.
끼적거리다	글씨를 되는 대로 함부로 쓰다.
끼다	① *구름이 끼다. 때.눈곱이 끼다. 곰팡이가 끼다. ② ‘끼이다’의 준말. *틈에 끼다. 가방이 문에 끼다. ③ ‘끼우다’의 준말. *손에 장갑을 끼다. 반지를 끼다. ④ *팔장을 끼다. 각지를 끼다. ⑤ *난로를 끼고 산다. ⑥ *권력을 끼고 부정을 행하다.’
끼우다	*단추를 끼우다.
끼이다	‘끼다’의 피동사. *문에 손이 끼였다.
나비	종이나 천의 폭. *종이의 나비가 30센티미터이다.
너비	천이나 종이와 아닌 물건의 폭. *강의 너비, 도로의 너비.
넓이	면적. *운동장의 넓이가 얼마인가.
너른(너르다)	공간이 두루 다 넓다. *너른 마당. 너른 들판. 안방보다 대청마루가 훨씬 너르다.
넓은(넓다)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넓고 기름진 평야. 넓고 넓은 바다. 방이 넓다.
너머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넘어	‘넘다’의 활용형. *고개를 넘어 어디로 가나.
~노라고	*하노라고 했는데 그리 잘 안됐네.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 *~노라면, ~노라니, ~노라 니까.
~느라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독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녹녹하다	물기나 기름기가 있어 딱딱하지 않고 좀 무르며 보드랍다. *녹녹하게 반죽을 하다.
녹록하다	*녹록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 녹록한 사람들.
느리다	움직임이나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 *속도가 느리다.
늦다	정해진 시간보다 뒤져 있다. *1시간 늦게 왔다.
늘리다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커지게 하다. *재산을 늘리다. 사람 수를 늘리다.
늘이다	길어지게 하다. *고무줄을 늘이다. 바짓단을 늘이다.
다리다	*웃을 다리다.

달이다	*약을 달이다.
달리다	*기운이 달린다(힘이 부친다. 역부족). 고드름이 달려 있다. 에어컨이 달린 자동차. 합격 여부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좌우된다).
떨리다	*떨린 식구가 일곱이다. 부엌이 떨린 방.
담그다	*김치를 담가 먹다.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다.
담다	*그릇에 담다. 입에 못 담을 욕.
당기다	*그물을 당기다. 입맛이 당기다. 낚자를 당기다.
댕기다	*등잔에 불을 댕기다(웁아 불게 하다). 옷자락에 불이 댕기다(웁아 불다).
대다	*손을 대다. 시간에 맞춰 대다.
데다	*불에 손을 데다.
더경이	겉쪽한 액체의 거죽에 엉겨 굳거나 말라서 생긴 껍질.
더께	몹시 찌든 물건에 더덕더덕 붙은 거친 때.
-던	지난 일을 회상하거나 그 사실의 지속을 의미.
-든	‘-든지’의 준말. *사과든 배든 좋다.
-던지	‘회상’일 때.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나왔다.
-든지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선택, 무관)
-든가	= ~든지. ‘선택’일 때. *가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라.
덮이다	*눈으로 덮인 마당. 오랫동안 덮여 있던 사건.
덮치다	*파도가 덮치다. 옆친 데 덮친 격.
돋구다	(안경의 도수를) 더 높게 하다.
돋우다	① 위로 끌어올리다. *심지를 돋우다. ② 밑을 쌓아 올리거나 괴어 높아지게 하다. *벽돌을 돋우다(안경의 도수를) 더 높게 하다.
동그라지다	넘어지면서 구르다.
동그래지다	동그랗게 되다.

두껍다	*책이 두껍다. 선수층이 두껍다.
두텁다	*우정이 두텁다. 감성적인 경우에 씀.
두덩	우뚱하게 들어간 곳 가장자리의 약간 두두룩한 곳. *눈두덩
두력	① 노름이나 놀이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의 무리. ② 여러 집이 한데 모인 집단.
두렁	논이나 밭의 가장자리에 작게 쌓은 둑이나 언덕.
둔덕	두두룩하게 언덕진 곳.
두드리다	소리가 나게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대문을 두드리다.
두들기다	함부로 마구 때리다. *두들겨 패다.
뒤안길	① 늘어선 집들의 뒤쪽으로 나 있는 길. *별채로 돌아가는 뒤편길에... ② 다른 것에 가려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쓸쓸한 생활이나 처지. *인생의 뒤편길. 역사의 뒤편길.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뒤뜰	집채의 뒤에 있는 뜰. = 뒷마당
뒤란	집 뒤 울타리의 안. 본딤말은 '뒤울안'이다.
뒷길	① 집채나 마을의 뒤에 있는 길. ② 뒷날을 기약하는 앞으로의 과정. ③ 떳떳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수단이나 방법.
뒤채다	함부로 늘어놓아 발길에 걸리다.
뒤치다	엮어진 것을 젖혀 놓거나 젖혀진 것을 엮어 놓다. *몸을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뒤쳐지다	*대열에서 뒤쳐져 낙오자가 됐다.
뒤쳐지다	뒤집혀 젖혀지다 *뒤쳐진 책 속에서 편지가 나왔다.
뒹굴다	① 누워서 이리저리 구르다. *풀밭에서 뒹굴며 놀았다. ②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 *방 안에서 뒹굴며 지내다. ③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구르다. *이리저리 거리에 뒹구는 낙엽. ④ 물건 따위가 어디에 함부로 버려지다. *낡은 이불과 목침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뒤구르다	① 총이나 포가 발사 후의 반동 때문에 뒤로 움직이거나 물러나다. ② (...을) 말썽이 없도록 일의 뒤끝을 단단히 다지다.
드러내다	*속마음을 드러내다(나타내다).

들어내다	*책상을 밖으로 들어내다(밖으로 내놓다).
드리다	*어른께 말씀을 드리다. 방을 따로 드리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다. 웃어른을 도와 드리다.
들이다	*공을 들이다. 돈을 들여 지었다. 길을 들여 써라. 옷감에 물을 들이다.
들	① 편편하고 넓게 트인 땅. *들에 핀 꽃. ②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넓은 땅. *오곡이 무르익는 들.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뜰을 가꾸다.
들르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다. *잠깐 들렀다가 가라.
들리다	*감기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다('들다'의 피동사). 가방을 들리다('들다'의 사동사).
들이켜다	세게 들이마시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들이키다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밭을 들이켜라.
들추다	① 지난 일, 숨은 일을 끄집어 내어 드러내다. *사생활을 들추다. ② 물건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 *요리책을 들춰 가며 만든 음식.
들치다	물건의 한쪽 머리를 쳐들다. *치마를 들치다.
등살	등에 있는 근육.
등쌀	몹시 귀찮게 구는 것.
떠받다	머리나 뺨로 치어 받다.
떠받들다	공경하여 섬기다.
떠받들리다	떠받들을 받다.
떠받치다	위로 받쳐서 버티다.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다.
떠받히다	'떠받다'의 피동사. *황소에게 떠받혀 크게 다쳤다.
띄다	*귀가 번쩍 띄는 이야기. 눈에 띄다. 띄어쓰기. (띄이다)
띄우다	*배를 띄우다. 메주를 띄우다. 간격을 띄우다. 전보를 띄우다.
띠다	*허리띠를 띠다. 사명을 띠다. 노란색을 띠다. 노기를 띠다. 미소를 띠다.

-라야	*너라야 해낼 수 있다(지정). 미성년자가 아니라야 한다(꼭 그래야 함).
-래야	*월급이래야 쥐고리만 하다. 그에게 곧 가래야 하겠다. *‘~라고 하여야’의 준말.
-(-으)러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공부하러 간다. 너를 보러 왔다.
-(-으)려	*무엇을 하려 하느냐? 길을 막으려 한다. (의도)
~(-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나. (신분, 자격)
~(-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인다. (수단)
~(-으)리만큼	*싫증이 나리만큼 잔소리를 들었다.
~(-으)ㄹ 이만큼	*반대할 이는 찬성할 이만큼 많지 않다.
-(-으)ㄴ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낙을 삼는다.(수단)
-(-으)므로	*일을 하므로 돈이 생긴다.(이유)
마구잡이	((주로 ‘마구잡이로’ 꼴로 쓰여))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하는 짓. = 생잡이
막잡이	① 아무렇게나 마구 쓰는 물건. ② 어떤 물건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남은 찌꺼기.
-마는	((종결 어미 ‘다, 나, 자, 지’ 따위의 뒤에 붙어)) 앞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 *사고 싶다마는 돈이 없다.
-만은	단정, 한정을 뜻하는 ‘만’에 보조사 ‘은’이 붙은 것. *얼굴만은 예쁘다.
마중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배웅	떠나가는 손님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서 작별하여 보내는 일.
마치	흡사.
-만	어느 것에만 한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번만은 안 된다
-만치	=만큼
-만큼	① 앞의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②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③ 정도가 비슷하거나 그에 육박함을 나타내는 말(=만치). *아버지만큼 컸다. 이번만큼 큰 잔치는 못 보았다. 일한 만큼 번다.

마치다	*일을 마치다(완료). 허리가 마치다(결리다).
맞추다	*친구와 답을 맞추다(나란히 놓고 비교하다). 입을 맞추다(마주 대다). 보조를 맞추다(맞도록하다). 양복을 맞추다(만들도록 부탁하다).
맞히다	*문제의 답을 맞히다(옳게 답하다). 과녁을 맞히다(적중). 주사를 맞히다(맞게 하다).
마침	알맞게. 우연히 그때 바로.
마침내	드디어. 결국.
만찬(晚餐)	저녁 식사나 저녁 식사 모임.
오찬	점심 식사나 점심 식사 모임.
조찬	아침 식사나 아침 식사 모임.
매기다	*값을 매기다. 점수를 매기다.
메기다	*앞소리를 메기다. 화살을 시위에 메기다.
매다	*넥타이를 매다. 빨랫줄을 매다(묶다). 직장에 목을 매고 사는 신세. 김을 매다.
메다	① ㉠총을 메다. ② ㉡중책을 양 어깨에 메다(걸어지다). ③ ㉢목이 메다.
매무새	옷을 입은 맵시. =옷매무새. *매무새가 곱다
매무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 =옷매무시. *매무시를 잘해야 한다.
맵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맨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산의 맨 꼭대기. 맨 먼저. 맨 구석.
맨	부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이 산에는 맨 소나무뿐이다. 그들은 맨 놀기만 한다.
맨-	접두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눈, 맨땅, 맨주먹
맵싸하다	맵고 아린 듯한 느낌이 있다. *맵싸한 고추.

맵자하다	모양이 어울려서 맵시 있다. *옷차림이 맵자하다.
맵자다	매섭고 독하거나 사납다. 맵고 짜다. *겨울 아침의 맵찬 바람.
맵쌀	찐 메밀을 약간 말린 다음, 찢어 겹질을 벗긴 것.
맵쌀	메벼에서 나온 끈기가 적은 쌀.
메	① '산(山)'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② 제삿밥. *메를 신위 앞에 올린다. ③ '밥'의 궁중말.
외	무덤, 뫼자리.
모지다	*모진 기동. 모진 데가 있는 성격.
모질다	*모진 짓을 하다(잔인하다). 재난을 모질게 견뎌 내다. 모진 바람이 분다.
목거리	목이 붓는 병. *목거리에 걸렸다.
목결이	목에 거는 장신구. *목결이를 잃어버렸다.
목매다	① 죽거나 죽이려고 끈이나 줄 같은 것으로 높은 곳에 목을 걸어 매달다. *목매
= 목매달다	죽다. ②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 *적은 월급에 다섯 식구가 목매고 살고 있다.
목매다	기쁨이나 설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쳐 솟아올라 그 기운이 목에 엉기어 막히다. *그는 목매어 울었다.
무동	① 조선 시대에, 궁중의 잔치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 ② 농악대 걸립 때 따위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③ 복청 사자놀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
무등	'목말'의 방언(강원, 경기, 충북).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목말을 타고 담 너머를 보았다.
무치다	양념을 섞어 버무리다. *시금치를 무치다.
묻히다	묻히다 → 묻히다
묻히다	① '묻다'의 사동사. *손에 물을 묻히다. ② '묻다'의 피동사. *땅에 묻히다.
묵다	*묵은 쌀. 며칠을 묵다. 호텔에 묵다.
묵다	*뉘단을 묵다.

미쳐	부사. («'못하다', '않다', '없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그가 오기 전에 미쳐 일을 끝내지 못했다.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쳐	동사. '미치다'의 활용형. *어제 보았던 가수에게 미쳐 하루 종일 그의 노래만 듣는다. 노름에 만 미쳐 다녔다. 미쳐 날뛰다.
바루다	바르게 하다.
바르다	*약을 바르다. 자세가 바르다.
바치다	① 옷어른이나 신에게 드리다. ② 세금 등을 내다.
받치다	①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② 기운이나 화 등의 심리 작용이 강하게 치밀다. ③ 옷 등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④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밑을 괴다. 5무엇을 펴 둘다. *우산을 받치다.
받히다	세게 부딪히다. *소에게 받히다.
받치다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같은 데에 부어서 국물만 받아 내다.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 *점박이. 차돌박이
-배기	어린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나이의 아이임을 표시. *세 살배기.
박이다	*발바닥에 못이 박이다. 담배 인이 박여 끊기가 어렵다. 머릿속에 박인 나쁜 고정관념.
박히다	'박다'의 피동사. *가시가 박히다. 주근깨가 박힌 얼굴. 활자로 박혀 나오다.
반드시	꼭, 틀림없이. *반드시 시간 맞추어 오너라.
반듯이	반듯하게. *관물을 반듯이 정리해라.
발자국	족적.
발짝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 *한 발짝 물러서다.
뱃심	①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 ② 마음속에 다지는 속셈.
배 힘	배 근육의 힘.
버리다	*그것을 버려라(내던져 없애라). 속세를 버리다(등지다).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베풀어 놓다). 상품을 벌여 놓다(늘어놓다).

벌리다	*입을 벌리다(사이를 넓히다). 돈이 잘 벌린다(돈벌이가 되다).
번번이	여러 번 다.
번번히	급살스럽게. *얼굴이 번번히 생긴다.
빈번히	매우 잦게.
봉오리	= 꽃봉오리.
봉우리	= 산봉우리.
봐	보아.
봔	봔어. *선봔(선뵈어)
보어	보이어.
부닥치다	*난관에 부닥치다. 반대에 부닥치다.
부딪치다	*차와 차가 부딪치다.(‘부딪다’를 강조하는 말)
부딪히다	*승용차가 트럭에 부딪히다.(‘부딪다’의 피동사)
부수다	파괴하다. *문을 부수다.
부시다	① 그릇을 씻다. *그릇을 물로 부시다. ② *눈이 부시다.
부치다	*힘에 부치는 일. 부채를 부치다. 소포를 부치다. 눈발을 부치다. 회의에 안건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인쇄에 부치다. 불문에 부치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붙이다	*종이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몸 붙일 곳이 없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개를 붙이다. 조수를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한 대 올려 붙이다. 밀어붙이다. 몰아붙이다.
부푼	‘부풀다’의 활용형. *밀가루에 소다를 넣어 부풀었다. 솜털이 부풀었다.
부픈	‘부프다’의 활용형(성질이 급하고 사납다, 부피가 크다).*그는 성질이 부픈 사람이 아니다. 무게는 나가지 않지만 부피는 부픈 물건이다.
분향소	향불을 피우고 고인을 조문을 하는 곳.
빈소	발인 때까지 관을 놓아 두는 곳.

붙다	① 물기를 먹어 부피가 커지다. *공이 붙다. ②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체중이 붙다. 붙어, 붙으니, 붙는.
붓다	① 부기로 살가죽이 부풀어 오르다. *얼굴이 붓다. 부어, 부으니, 붓는. ② 화가나다. *왜 잔뜩 부어 있니? ③ 액체나 가루 따위를 그릇에 담다. *자루에 밀가루를 붓다. ④ 붙임금 등을 적립하다. ⑤ 씨앗을 많이 뿌리다.
붙다	① 서로 마주 닿다. ② 의지하다. ③ 시험 등에 뻗히다. ④ 주가 되는 것에 딸리다.
불거진	불거지다’의 활용형. ① 튀어나오다. ② 어떠한 현상이 커지거나 생김다.
붉어진	‘붉어지다’의 활용형. 점점 붉게 되다.
비껴가다	((~에, ~을))① 비스듬히 스쳐 지나다. *봉창에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비껴가는 것이 보였다. 각도는 좋았으나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갔다. ② 어떤 감정, 표정, 모습 따위가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다. *그의 눈가에 후회하는 빛이 비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비켜 가다	무엇을 피하여 에둘러가다. ‘비켜 가다’의 주체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유정물이어야 한다. *순이는 걸인을 힐금힐금 걸눈질하며 인도 끝으로 비켜 갔다.
비스듬하다	기울어져 있다. *책이 비스듬하게 꽂혀 있다.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한고향 사람들인지 말씨가 비슷하다.
비추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다. 양심에 비추어 보다. 의향을 비추다. 손전등으로 구석을 비추다.
비취다	불빛에 비취어 환히 드러나다. ‘비추다’의 피동사. ‘비추이다’의 준말.
비치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다. 속살이 비치 보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
빌리다	*공책을 빌려 주다. 돈을 빌려오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다	*빌어먹다. 성공을 빌어 주다.
사단(事端)	①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 ② ‘사탈’의 잘못.
사달	사고나 탈. *일이 꺼림칙하게 되어 가더니만 결국 사달이 났다.
사뭇	*한 달 동안 사뭇 바빴다(내내 끝까지).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아주 딴판으로).

자못	사뭇 진지하다 (마음에 사무치도록 아주). *그 일은 자못 어렵다(생각보다 매우, 펍).
삭이다	*음식을 잘 삭이다. 분을 삭이지 못하다.
삭히다	*식해를 삭히다. 젓갈을 삭히다.
새기다	*도장을 새기다. 마음에 새겨 두어라.
새우다	*밤을 새우다. 그 사람을 새우지 마라(샘을 내다).
세우다	*기둥 세우다. 신기록을 세우다. 날을 세우다. 차를 세우다. 뜻을 세우다. 고집을 세우다.
~소	*하겠소, 종소. (반높임 투)
~오	*날이 차오, 어디로 가오? (종결 어미)
~요	*비가 와요, 빨리 가요(존칭 보조사).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다(연결 어미).
속웃	겉웃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웃.
속곳	여자들이 아랫도리에 입는 통 넓은 바지 모양의 속옷.
손수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 손으로 직접.
스스로	① 제 힘으로. ② 남이 시키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기의 결심에 따라서.
몸소	직접 제 몸으로. =친히.
수하물	①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② 기차 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
소화물	여객 열차로 신속히 운송되는, 수하물 이외의 작고 가벼운 화물. (반)대화물(大貨物).
수화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짐.
스러지다	*무지개가 스러지다(없어지다).
쓰러지다	*과로로 쓰러지다(넘어지다).
시다	*살구가 설익어 시다. 햇살이 비쳐 눈이 시다. 발목이 시다. 눈썹이 시어서 못 보겠다.
쉬다	*음식이 쉬다. 목이 쉬다. 의자에 앉아 쉬다. 어제는 직장을 쉬었다. 한숨을 쉬다.
쇠다	① 명절을 보내다. ② 채소가 너무 자라 역세다.

시늉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 *부르르 떠는 시늉까지 하며 목청을 돋우었다.
흉내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 *원숭이 흉내를 낸다.
십분	아주 충분히.
십이분	적당한 정도를 훨씬 넘는 정도로.
싸이다	*인파에 싸이다(휩싸이다).
쌓이다	*낙엽이 쌓이다. 쌓이다 → 싸이다
아득하다	① 끝없이 멀거나 높다. ② 까마득히 오래다. ③ 어찌해야 좋을지 막연하다.
아득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서 까무러칠 듯하다.
아람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로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아람이 벌어지다(알람 → 아람).
아름	*네 아름 되는 돌레.
안	‘아니’의 준말. *안 먹다.
않	‘아니하’의 준말. *먹지 않다.
아니 하다	(해)동사 ‘하다’ 앞에 부사 ‘아니’가 온 형태. 준말은 ‘안 하다’. *밥도 아니/안 먹고 뭐 하니.
아니하다	사나 형용사 뒤에서 ‘-지 아니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 용언. 준말은 ‘않다’.
안되다	*① 그것 참 안됐군. 마음이 안됐다. ② 안색이 안돼 보여서 ③ 장사가 잘 안된다.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④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⑤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시험에 합격할 거야.
안되다	*① 커서 의사는 안 되고 싶다. ② 저렇게 맞고 병신이 안 되면 다행이지. ③ 전혀 걱정이 안 된다. ④ 아직 밥이 안 됐다. ⑤ 가면 안 된다. ⑥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해가 안 된다.
안치다	*밥을 안치다.
앉히다	‘앉다’의 사동사. *의자에 앉히다. 공장에 새 기계를 앉히다.

않은가 않는가	앞의 용언이 형용사일 때 쓴다. *옳지 않은가? 앞의 용언이 동사일 때 쓴다. *왜 먹지 않는가?
애틀다 애틸다 애틸다	억울하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슬픔). 몹시 걱정이 되어 속이 끓는 듯하다(걱정).
양동작전 양면작전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전투는 하지 아니하지만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함으로써 마치 공격할 것처럼 보여 적을 속이는 작전. 전쟁에서, 두 방면에서 동시에 하는 작전.
어느 여느	*어느 것을 택하든 내 맘이다(막연한 어떤 것). *어느 때처럼 행동하라(그 밖의 다른).
어르다 으르다	*우는 아이를 어르다. *을러도 보고 달래도 보았으나 허사였다.
어스름하다 으스름하다	*날이 어스름하다(조금 어둡다). *으스름한 달빛(빛 따위가 침침하고 흐릿하다).
엎다 엮다	① 사람이나 물건을 등에 대고 손으로 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다. *아이를 등에 엎다. ② 어떤 세력을 배경으로 하다. *여론을 등에 엮고 정부를 비판했다. ① 위와 아래를 뒤집어 놓다. ② 일이나 현상 따위를 엮어버리다. ③ 못 일어나 게 덮쳐 누르다. * 민란이 일어 정권을 엮어 버렸다.
영기다 영키다	①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데 뭉쳐 굳어지다. *피가 영기다. ②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 무리를 이루거나 달라붙다. =영키다. *사람들이 영겨서 싸우고 있다. ③ 냄새나 연기, 소리 따위가 한데 섞여 본래의 성질과 달라지다. =영키다. ④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한데 뒤섞여 응어리가 생기다. = 영키다. ① ‘엮어지다’의 준말. *머리카락이 영키다. ② 실이나 줄, 문제 따위가 풀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히다. *이번 문제는 이해 관계가 영켜 해결하기 어렵다. ③ =영기다
엮어지다	① 실이나 줄 따위가 한데 뒤섞여 어지럽게 되다. ② 일이나 문제 따위가 서로

헛글어지다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다. ③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뒤얽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다. 준말은 ‘영키다’. ① 실이나 줄 따위의 가늘고 긴 물건이 풀기 힘들 정도로 몹시 얽히다. ② 어떤 물건이 한데 뒤섞여 몹시 어지럽게 되다. ③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몹시 착잡하게 되다.
-에 -에게	[해]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체언에 붙는 조사. *우승은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해]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 *철수에게 돈이 많다.
엇그제 그저께	바로 며칠 전. *‘엇그저께’의 준말. 어제의 전날.
에다 에우다 에이다 에끼다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다. *살을 에는 추위. ① 둘러싸다. ② 다른 길로 돌리다. ③ 필요없는 부분을 지우다. ④ → 에끼다 ‘에다’의 피동사. *살이 에이는 듯하다 서로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껴 없애다.
여위다 여의다	① 몸의 살이 빠져 파리하게 되다. *몸이 점점 여위어 갔다. ②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고 구차하게 되다. *여윈 살림. ① 죽어서 이별하다. *어머니를 여윈 지 10년이 지났다. ② 딸을 시집보내다. ③ 멀리 떠나보내다.
웃 웃	의복 웃나무의 진.
웃거리 웃걸이	웃을 입은 맵시. *웃거리가 좋아 아무 거나 입어도 예쁘다. 웃을 걸어도도록 만든 물건.
웃매무새 웃매무시 웃맷시	=매무새(웃을 입은 맵시). =매무시(웃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 ① 차려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 모양. ②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
외골수 외골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 *외골수 학자. ① 단 한 곳으로만 트인 길. =외통. ② ((주로 ‘외골’로 꼴로 쓰여))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 *외골로 생각하다.

윙트림 거드름을 피우느라고 짐짓 하는 트림. *사뭇 옥옥 윙트림을 해 대며 노질이 빠근하다.
윙틀림 ① 용의 모양을 틀어 새긴 장식. *윙틀임이 눈부신 누런 곤룡포를 차곡차곡 개 키고 있다. ② 이리저리 비틀거나 꼬면서 움직임. *수백 년 묵은 담쟁이덩굴은 윙틀임을 하여 절벽으로 오르고.....

우거지다 나무, 풀 따위가 자라서 무성해지다.
욱어지다 안으로 굽어지다.

우기다 *자기 고집만 우기다.
욱이다 ‘욱다(안쪽으로 조금 우그러져 있다)’의 사동사. *함석 끝을 안으로 욱이고 있다.

운항 배나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다님. *폭풍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운행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차나 열차 따위를 운전하여 다님. *버스 운행 간격을 늘린다.

웃 접두사.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명사 앞에 쓰임. *웃기, 웃돈, 웃어른.
윗 아래위의 대립이 있고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닌 말 앞에 쓰임. *윗간, 윗길, 윗 넓이, 윗벽,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동네, 윗마을, 윗몸, 윗물, 윗입술.
위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쓰임. *위쪽, 위층

웃웃 맨 곁에 입는 옷. *그는 웃웃으로 코트 하나만 걸치고 나갔다.
윗웃 위에 입는 옷. =상의(上衣)=웃통=윗도리.
겉웃 곁에 입는 옷. *겨울이라 두툼한 겉웃을 걸쳤다.

웃통 ①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 *웃통은 벌거숭이고 ② =윗웃. *아이들은 웃통을 벗 은 채로 뛰어놀고...
위통 물건의 위가 되는 부분.

육젓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젓.
추젓 가을철에 잡아서 담근 새우젓.
토하젓 생이(민물 새우)로 담근 젓. =생이젓.

으레 두말할 것 없이, 마땅히, 대개, 거의, 틀림없이.
의례 의식

이러다 ‘이리하다’의 준말. *이러다 다치겠다.
이렇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다. *내가 이렇 줄 알았더니까.

이루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다(뜻대로 되게 하다).
이룩하다 *통일을 이룩하다(새로 세우다).

일절 부자. 아주, 전혀, 절대로.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임. *일절 말하지 않다.
일체 명사. 모든 것, 전부. 긍정문에 쓰임. *일체의 잡무를 거부하다.

잃다 *돈을 잃다.(失)
잊다 *약속을 잊다.(忘)

임산부 아이를 뱀 여자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임신부 아이를 뱀 여자. =임부(妊婦).

잇닿다 서로 이어져 맞닿다. *그 길은 바다에 잇닿아 있다.
잇대다 서로 이어 닿게 하다. *방석을 잇대어 깔아 놓았다.

자갈 자잘한 돌멩이.
재갈 말에 물리는 쇠토막.

작다 크기가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함. ‘크다’의 반대. *소리가 작다.
적다 수효.분량이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함. ‘많다’의 반대. *물이 적다.

장사 *쌀장사가 잘된다(상행위).
장수 *쌀장수로 늙어 버렸다(상인).

젓밥 불공할 때 부쳐 앞에 놓는 밥. *염불에는 맘이 없고 젓밥에만 맘이 있다.
젓밥 =제삿밥. *젓밥을 나눠 먹다.

젓히다 ①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 *코트 자락을 젓히고 앉다. ② 몸의 뒷부분을 뒤 로 젓게 하다. *고개를 젓히다.

젓뜨리다	힘을 써서 뒤로 젓게 하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젓뜨리다.
제치다	거치적거리지 않게 치우다.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다.
제키다	살갓이 벗겨지다. 제끼다 → 젓히다, 제치다
저리다	*다리가 몹시 저리다.
절이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절다’의 사동사).
젓	*새우젓.
젓	*엄마의 젓.
젓다	① 액체나 가루를 고르게 휘둘러 섞다. ② 거절의 뜻으로 손이나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 ③ 배를 옮기려고 노를 움직이다.
젖다	① 액체가 배어 축축하게 되다. ② 어떤 심경에 잠기다. ③ 감각에 익다. *귀에 젖은 노랫가락. ④ 버릇이 몸에 배다.
조그만	‘조그마한’의 준말.
조금만	정도나 분량이 적게. 시간적으로 짧게.
조르다	*허리띠를 조르다. 영화 구경을 가자고 조르다.
조리다	*고기를 간장에 조리다(끓이다). 병조림, 통조림.
조이다	*나사를 죄다. 자리를 죄어 앉다. 가슴을 조이다(줄이다).
즐이다	*마음을 즐이다.
조정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이건 조정.
조정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회사의 구조 조정. 대학 정원 조정.
조종	① 비행기나 자동차 따위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 *비행기 조종. ②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배후 조종 인물. 원격 조종.
좃다	① 남의 뒤를 따르다. ② 남의 뜻을 따르다. ③ 대세를 따르다. *부모님의 유언을 좃다.
좃다	① 몰아내다. ② 급하게 뒤를 따르다. *좃고 좃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

주검	시체.
죽음	죽는 일.
주어(주다)	*돈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
주워(줍다)	*길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다.
주인공	바람직한 결과를 낳은 인물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쓴다. ①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비운의 주인공. ②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역사의 주인공. ③ 드러나지 아니한 관심의 대상. *최고 인기 여배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행운의 주인공.
장본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인물이나 자기를 낮추어 말할 때 쓴다. 어떤 일을 회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
지그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지긋이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
지새다	*밤이 지새는 동안.
지새우다	*하룻밤을 한숨으로 지새우다.
지피다	*무당에게 신령이 지피다. 군불을 지피다.
집히다	‘집다’의 피동사. *매끈거려 잘 집히지 않는다.
짚이다	짐작가는 구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짚이는 바가 없다.
-지 마라	*그런 장난 하지 마라(구어체의 명령형).
-지 말라	*가지 말라(문어체의 명령형). 선생님께서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간접인용)
집다	*거리의 휴지를 집다.
짚다	*지팡이로 땅을 짚다. 맥을 짚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다.
짓다	*집을 짓다(만들다).
짚다	*개다 짚다(소리를 내다).
질다	*농도가 질다.

짜짜공	젓먹이가 손뼉을 치는 재롱.
짜짜공이	남몰래 짜고 꾸미는 계획이나 일.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일.
-째	① ‘그대로’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통째, 뿌리째). ② ‘계속되는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일주일째, 보름째).
채	①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산 채로 잡다, 눈을 뜯 채 밤을 새우다). ② 어떤 정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채 식지도 않았다).
체	*죽은 체하다.
찢다	*종이를 찢다.
찡다	*방아를 찡다.
차비	차상.
채비	준비를 갖추. 또는 그 일.
추기다	*달콤한 말로 추기다(고드기다).
축이다	축축하게 하다. *목을 축이다.
추키다	아래에서 위로 치올리다. *허리춤을 추키다.
차키다	(밀의 것을) 위로 끌어 올린다. *눈초리를 차키다.
코배기	코가 유난히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코빼기	‘코’를 낮잡아 이르는 말.
털터리	‘빈털터리’의 준말.
털털이	① 차림이나 행동이 실없고 털털한 사람. ② 낡아서 털털거리는 자동차나 수레 따위.
통기다	① 짜인 물건이 어긋나서 틀어지게 하다. ② 요구나 의견을 거절하다. ③ 뼈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다. ④ (기타, 하프 등의 현을) 당겼다 놓아 소리가 나게 하다.
튀기다	① *고무줄을 튀기다. 물을 튀기다. 공을 튀기다. 주판을 튀기다. ② 끓는 기름에 넣거나 열을 가해 부풀어 오르게 하다.
틀어쥐다	*먹살을 틀어쥐다.
틀어지다	① 제 갈 자리에서 옆으로 벗어나다. ② 사귀는 사이가 벌어지다. ③ 꾀하던 일

이 어그러지다. *사이가 틀어지다. 계획이 틀어지다.

팻말	패를 붙였거나 그 자체에 글을 써놓은 나뭇조각 또는 말뚝.
풋말	목표나 표지에 박아 세운 말뚝.
피난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 ‘피란’보다 의미 영역이 다소 큼. *피난민, 피난살이, 피난항, 피난소.
피란	전쟁이나 병란을 피하여 옮겨 감. *피란민, 피란살이.
한참	한동안.
한창	① 가장 성한 때. ② 왕성하게.
해쓷하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 *그의 얼굴이 해쓷해 보였다.
헐쓷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는 얼굴이 헐쓷해졌다.
해어지다	(옷이나 신 따위가) 닳아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다.
헤어지다	① 헤어지다. ② 이별하다. ③ (살갗이) 갈라지다.
해치다	① 해롭게 만들다. ② 남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다.
헤치다	① 속에 든 물건을 꺼내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깨뜨리거나 찢다. ② 가리거나 걸리는 물건을 좌우로 물리치다. ③ 방해되는 것을 이겨나가다. ④ 모인 것을 제각기 흩어지게 하다.
햇벌	해가 내리쬘는 뜨거운 기운. =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의 열파. *햇벌이 들다. 햇벌이 따갑다. 햇벌을 쬔다. 햇벌이 찜찜 내리쬘다. 햇벌에 그을리다.
햇빛	해의 빛.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해의 밝은 기운. *햇빛이 비치다. 햇빛을 가리다. 이슬방울이 햇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다.
허룩하다	줄어들어서 적다. *쌀자루가 허룩하다.
허름하다	① 값이 좀 싸다. ② 좀 모자라거나 현 듯하다. *허름한 옷차림.
허술하다	① 오래되거나 헐어서 낡다. *허술한 초가집. 경비가 허술하다. ② 치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빈틈이 있거나 느슨하다.
협수룩하다	① 머리털이나 수염이 자라서 텁수룩하다. *수염이 협수룩한 늙은이. ② 옷차림이 어지럽고 허름하다. *협수룩하게 차린 아주머니.

현칠하다	키와 몸집이 크고 어울린다. *허우대가 현칠하고 얼굴이 준수하기가 여간 귀찮 이 아니었다.
현칠하다	① 길고 미끈하다. *키가 현칠하다. ② 막힘없이 깨끗하고도 시원하다.
홀-	'짝이 없음', '혼자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홀아비.
홀-	'한 겹', '외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홀이불.
홀몸	딸린 군식구가 없는 몸.
홀몸	① 임신하지 않은 몸. *홀몸이 아니다(임신하다). ② 딸린 사람이 없는 몸.
행하다	횡하다 → 행하다 ①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이 다 잘 알아 환하다. *그는 농사일에 대해서는 행하 게 잘 안다. ② 구멍 따위가 막힌 데 없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 *길이 행하게 뚫리다. ③ =행행그렇하다. *막내 숙부까지 떠나자 집 안이 더욱 행해졌다.
행하다	① =행하다. ② 눈이 속 들어가 보이고 정기가 없다. *행한 눈.
후덥다	열기가 차서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후덥지근하다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후텁지근하다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

(ㄴ) 틀리기 쉬운 말

ㄱ.

가까와, 가까웁다 → 가까워, 가깝다	갈짓자 → 갈지자
가름옷 → 갈음옷	강강수월래(强羌羌水越來) → 강강술래
가리워지다 → 가리어지다/가려지다	강남궁 → 강낭궁
가멸지다, 가멸하다 → 가멸다	강벌 → 강필
가물음 → 가뭄	강종강종 → 강중강중
가미가제, 가미까제(神風, かみかぜ) → 가미카제	강파롭다 → 강파르다
가스렌지 → 가스레인지(gas range)	개구장이 → 개구쟁이
가웃날 → 가윗날	개금질 → 양감질
가을내 → 가오내	개발함으로서 → 개발함으로써
가이사 → 카이사르(Caesar)	개뿔하다 → 가뿔하다
가이없다 → 가없다	개뿔/갯뿔 → 갯벌, 개펄
가임울 → 가임률	개소리괴소문 → 개소리괴소리
가재미 → 가자미	개이다 → 개다 *날씨가 개다.
가치 → 개비 *성냥 한 개비.	객없다 → 객쩍다
가파롭다 → 가파르다	객적다 → 객쩍다
가풀지다 → 가풀막지다	갱정(更定, 更正, 更訂) → 경정
가피 → 개비 *담배 한 개비.	갱질(更迭) → 경질
가피떡 → 개피떡	갱충적다 → 갱충쩍다
각작거리다 → 갇작거리다	가웃드름하다 → 가우스름하다
간간히(間間-) → 간간이	-거던 → -거든
간고기 → 자반	거듭더보다 → 거듭터보다
간난애 → 갓난애	거름쇠 → 걸음쇠
간들어지다 → 간드러지다	거름장 → 집장
간막이 → 칸막이	거무튀튀하다 → 거무튀튀하다
간여리다 → 가녀리다	거물뭇 → 거멸뭇
간엷다 → 가얏프다	거북상스럽다, 거북설스럽다 → 거북살스럽다
간청어 → 건청어(乾靑魚)	거스리다, 거스릴 → 거스르다, 거스를
갈구리, 갈구리 → 갈고리	거슴푸레 → 거슴츠레
갈범(葛-) → 취범	거에요 → 거예요, 거여요
	거울르다 → 거우르다
	거웃하다 → 거운하다

거편거편 → 거뜬거뜬
 거츨곤 → 거추곤
 거치르다 → 거칠다
 거치없다 → 거추없다
 거칠은 → 거친 *거친 피부에는
 거꾸지다 → 거물지다
 격터듬다, 격터듬다 → 겹터듬다
 건갈이(乾-) → 마른갈이
 건겉들리다 → 겉신들리다
 건날리다 → 겹날리다
 건너방 → 건넌방(-房)
 건넌마을 → 건넌마을
 건넌편 → 건넌편(-便)
 건넌굿다 → 건넌굿다
 건느다 → 건너다
 건니다 → 건네다
 -건대 → -관데
 건덕지, 건데기 → 건더기
 건뎡팔월 → 건들팔월
 건빨래 → 마른빨래
 견어들이다 → 거두어들이다, 거뒀들이다
 견어부치다 → 견어붙이다
 견어채이다 → 견어채다
 견어치다 → 견어치우다
 겹구다 → 겹우다
 겹리적거리다 → 거치적거리다
 겹맞는 → 겹맞은
 겹빵 → 짬빵
 겹 스카웃 → 겹 스카우트(Girl Scout)
 겹죽하다, 겹직하다, 겹찍하다 → 겹쪽하다
 겹판지다 → 거방지다
 겹싹하다 → 겹송하다
 겹츠레하다 → 거무스름하다
 겹장이 → 겹쟁이

겹잡다 → 겹잡다
 겹고살 → 겹고삐
 겹다리 → 겹다리
 겹물다 → 건물다
 견어붙이다 → 견어붙이다
 겹어 잠겼다 → 겹어 잠갔다
 겹울음 → 건울음
 겹잡다 → 겹잡다
 겹치레 → 겹치레
 게꼬리 → 게공지
 지놈 → 게놈
 게면쩍다 → 겹면쩍다
 게슴치레하다 → 거슴츠레하다
 게으름장이 → 게으름쟁이
 겨울내 → 겨우내
 겨웁다 → 겹다
 견마(牽馬) → 경마 *경마를 잡히다.
 겹귀 → 겹구(結句)
 겹연적다 → 겹연적다
 겹겹히 → 겹겹이
 겹지르다 → 겹질리다
 경귀 → 경구(警句)
 경목(經木) → 무늬목
 경쟁울 → 경쟁률
 겹침 → 겹침(驚蟄)
 겹누리 → 겹두리
 겹지르다, 겹질리다 → 겹지르다, 겹질리다
 게시판 → 게시판
 게양 → 게양
 게우다 → 겹다
 게재 → 게재 *기사를 게재하다.
 -르고 → -르꼬
 고간(庫間) → 곳간
 고냉지 → 고랭지

고마와, 고마와하다 → 고마워, 고마워하다
 고막 → 꼬막
 고물 → 고미
 고물받이 → 고미받이
 고뿔, 고뿔치다 → 고불, 고불치다
 고비고비 → 굵이굵이
 고삐고삐 → 고삐고삐
 고삐 → 고삐
 고시레 → 고수레
 고실머리 → 고수머리
 고심 → 가십(gossip)
 고액 배팅 → 고액 베팅(betting)
 고연히 → 공연히
 고임 → 꿇
 -고저 → -고자
 고즈너기 → 고즈너이
 고집장이 → 고집쟁이
 고집통이 → 고집통이
 고추 → 곧추
 고춤 → 괴춤
 고히 → 고이
 곡간 → 곳간
 곡새기다 → 굵새기다
 곤난(困難) → 곤란
 곤두박히다 → 곤두박이다
 곤두잡이 → 곤두박이
 골고로 → 골고루
 골덴 → 코르덴(←corded velveteen)
 골뱅이 → 골뱅이
 골아떨어지다 → 굵아떨어지다
 굵기다 → 굵기다
 굵곰히 → 굵곰이
 굵살굽다 → 굵살갑다
 굵배기 → 굵빼기

굵상스럽다 → 굵살스럽다
 굵수머리 → 굵슬머리
 굵질리다 → 겹질리다
 -곳(串) → -곶
 곶감 → 곶감
 곶골차다 → 옹골차다
 곶이 → 곶이
 과냉 → 과랭(過冷)
 과녁 → 과녁
 관자뼈, 관자뼈 → 광대뼈
 광우리 → 광주리
 팬시리 → 팬스레
 구감 → 귀감(龜鑑)
 구데기 → 구더기
 구들장 → 구들장
 구들고래 → 방고래
 구렛나루 → 구레나룻
 -구료 → -구려
 -구만 → -구먼
 -구면 → -구면
 구비구비 → 굵이굵이
 구스르다 → 구슬리다
 구유통(-桶) → 구유
 구좌 → 계좌
 구테타 → 쿠데타
 구피 → 거피(guppy)
 군대군대 → 군데군데
 군더덕지 → 군더더기
 군성거리다 → 울렁거리다
 군저녁 → 한저녁
 굴르다 → 구르다
 굵뱅이 → 굵뱅이
 굵떨다 → 굵상떨다
 귀개 → 귀이개

귀독 → 구두(句讀)
 귀뿔, 귀뿔 → 귀뿔
 귀열(龜裂) → 균열
 귀법 → 구법(句法)
 귀불 → 괴불
 귀에지 → 귀지
 귀엣고리 → 귀고리
 귀작 → 구작(句作)
 귀절 → 구절(句節)
 귀점 → 구점(句點)
 귀지개, 귀짓대 → 귀이개
 귀탁 → 군탁(龜塚)
 귀통이 → 귀통이
 귓대기, 귓때기 → 귀때기
 귓머리 → 귀밑머리
 귓방울 → 귓볼
 귓볼 → 귓볼
 귓쌈 → 귀때기
 귓주머니 → 귀주머니
 귓통 → 귀통이
 그득그득히, 그득히 → 그득그득이, 그득이
 그렁창다 → 그렁창다
 그렁커니와 → 그렁거니와
 그리웁다 → 그림다
 그만때 → 그맘때
 그랜드캐년 → 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
 그스르다 → 그슬리다
 그으르다 → 그을다
 근근히 → 근근이
 근두(筋), 근두박이, 근두박질 → 곤두, 곤두박이, 곤두박질
 근무 년수(勤務年數) → 근무 연수
 글구 → 글귀
 글르다 → 그르다

글짜(-字) → 글자(-字)
 금니빨 → 금이빨
 금새 → 금세, 금시에
 금이(金-) → 금니
 급급이 → 급급히
 급급하는 → 급급해하는
 급냉(急冷) → 급랭
 급작이 → 급자기
 기뚱하다 → 기특하다
 기부채납 →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브스 → 깃스(Gips)
 기여히 → 기여이
 기음 → 김
 길다란 → 기다란
 길다랗다 → 기다랗다
 길로틴 → 기요틴(guillotine)
 길앞잡이 → 길잡이(=길라잡이)
 (김장을) 담귀 주고 → (김장을) 담가 주고
 길죽길죽, 길죽하다 → 길쭉길쭉, 길쭉하다
 길직길직, 길직하다 → 길쭉길쭉, 길쭉하다
 (깊게) 패인 → (깊게) 파인/팬
 깊숙히 → 깊숙이
 까뭉 → 카뭉(Albert Camus)
 까치 → 개비 *담배 한 개비.
 까치발을 들고 → 까치발을 하고
 깎다 → 깎다
 깎두기 → 깎두기
 깎이다, 깎이고, 깎인 → 깎이다, 깎이고, 깎인
 깎두기 → 깎두기
 깎박이 → 깎박이
 깎작 놀라다 → 깎작 놀라다
 깎쪽갈다 → 깎쪽갈다
 강동치마 → 강동치마
 강보리밥 → 콩보리밥

강소주, 강술 → 강소주, 강술
 강조밥 → 강조밥
 깨름직하다 → 깨림직하다
 깨병이 → 깨병이
 꼬깔 → 고깔
 꼬깝다 → 고깝다
 꼬낙 → 코낙(←프 cognac)
 꼬리깃 → 꼬지깃
 꼬마둥이 → 꼬마둥이
 꼬시레 → 고수레
 꼬질대 → 꽃을대
 꼬창이 → 꼬챙이
 꼬치 → 고치
 꼭두 → 꼭두(=허깨비), 꼭뒤
 꼭두각시 → 꼭두각시
 꼭두각시놀음 → 꼭두각시놀음
 꼼꼼장이 → 꼼꼼쟁이
 꽃새암 → 꽃샘
 꼬장이 → 꼬챙이
 구시렁거리다 → 구시렁거리다
 꿈이예요 → 꿈이어요, 꿈이예요
 끄나불 → 끄나풀
 끄스르다, 끄슬리다, 끄스르다 → 그슬리다
 끄적거리다 → 끼적거리다
 끓기지 → 끓이지 *구설수가 끓이지 않다.
 끓어치다 → 끓어뜨리다
 끼어들기, 끼어들다 → 끼어들기, 끼어들다

L. _____

나레이션, 나레이터 → 내레이션, 내레이터
 나룻터 → 나루터
 나색 → 내색
 나염 → 날염(捺染)

나이롱 → 나일론
 나이박이 → 나이배기
 나즈막, 나즈막하다 → 나지막, 나지막하다
 나죽나죽, 나죽하다 → 나직나직, 나직하다
 나찌, 나찌스 → 나치(Nazi), 나치스
 나침판=나침반
 나프탈린(독 Naphthalin) → 나프탈렌
 낙귀 → 낙구(落句)
 낙낙장송 → 낙락장송(落落長松)
 날세다 → 날쌔다
 날으는 → 나는 *하늘을 나는 새.
 날자 → 날짜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남세스럽다
 남새 → 남우새=남새
 남아 있는 여생 → 여생
 낫설은 → 낫선
 내노라하다, 내노라 하다 → 내로라하다
 내딛었다 → 내디뎠다
 내딛은 → 내디딘
 내려비추다 → 내리비추다
 내려쬐다 → 내리쬐다
 내려질리다 → 내리질리다
 내리다지 → 내리달이
 내셔날 → 내셔날
 내쳐 → 내치
 내프킨 → 냅킨(napkin)
 내홍(內兇) → 내송
 너댓 → 네댓
 너웃너웃 → 뉘웃뉘웃
 넉넉치 → 넉넉지
 넉두리 → 녀두리
 년센스 → 난센스(nonsense)
 년절머리 → 년덜머리
 년즈시 → 년지시

넌다랴다 → 넌따랴다
 널찍하다 → 널찍하다
 널판지(-板-) → 널빤지
 넓다랴다 → 넓따랴다
 넓적넓적 → 넓적넓적
 넓죽, 넓죽넓죽 → 넓죽, 넓죽넓죽
 널찍하다, 널찍한 → 널찍하다, 널찍한
 넓치 → 넓치
 넓적다리 → 넓적다리
 넓적뼈 → 넓적뼈
 넓적하다 → 넓적하다
 넓이다 → 넓히다
 넝쿨=덩굴
 네덜란드, 네달란드 → 네덜란드
 네비게이션 → 내비게이션(navigation)
 네비게이터(navigator) → 내비게이터
 네온사인 → 네온사인
 노란자위 → 노른자위
 녹록치 않다 → 녹록지 않다(碌碌/錄錄---)
 녹슬은 → 녹슨
 논 → 놓은 *옆에 놓은 물건.
 뇌이다 → 뇌다
 뇌졸증 → 뇌졸중(腦卒中)
 누누히(累累-) → 누누이
 누데기 → 누더기
 누래서, 누래지다 → 누레서, 누레지다
 누룽밥 → 누룽지
 누룽지: ①술 바닥에 눌러붙은 밥. ②→ 누은밥
 누른밥 → 누은밥
 -누만 → -누먼
 누엿누엿 → 누엿누엿
 눈끔 → 눈끔
 눈섭 → 눈섭
 눈시위 → 눈시울

눈싸라기 → 싸라기눈
 눈쌀 → 눈살
 눈쌀(을) 찌푸리다 → 눈살(을) 찌푸리다
 눈(을) 부치다 → 눈(을) 붙이다
 눈혀 뛰기 → 누워 뛰기
 누래지다 → 누레지다
 누연히 → 버젓이
 뉴욕타임즈 → 뉴욕타임스
 -느라니 → -노라니
 -느라면 → -노라면
 느와르 → 누아르
 느지러지다 → 느즈러지다
 느진중모리 → 늦은중모리
 녹놀다 → 능놀다
 녹장=늦장
 -는구료 → -는구려
 -는구만 → -는구먼
 -는구면 → -는구먼
 -는귀니 → -는과니
 는다냐, -는다냐 → -는다느냐
 는대기 → 는개
 -는댄다 → -는단다
 늘어불다 → 늘어불다
 늪으막 → 늪그막
 늪정뱅이 → 늪정이
 늦동이 → 늦둥이
 날름 → 늘름
 니끼하다 → 느끼하다
 니류 → 이류(泥流)
 닝큼 → 닝큼

ㄷ. _____

다달아, 다달으다 → 다다라, 다다르다

다달하다 → 달콤하다
 다타미 → 다다미(=돛짚요, 돛짚자리, 왜돛자리)
 단도리 → 채비, 단속
 단모리 → 단모리장단
 단물(單-) → 맑물
 단속것 → 단속곳
 (단숨에) 들어키는 → (단숨에) 들어켜는
 단청쟁이 → 단청장이
 달아매다 → 달아걸다
 달달이 → 다달이
 달디달다 → 다디달다
 달우다 → 달구다
 달치근하다 → 달차근하다
 달푸 → 달포
 닭개비 → 달개비(=닭의장풀)
 담군, 담귀, 담켰다 → 담근, 담가, 담갔다
 담뇨 → 담요(毯-)
 담장이 → 담쟁이
 담장이 → 담쟁이(痰-)
 닳집 → 달집
 당기다 → 멩기다, 땅기다 *불을 멩겼다.
 얼굴이 땅기다.
 당당이 → 당당히(堂堂-)
 당상(堂上): *따 놓은 당상=떼어 놓은 당상.
 떼어 둔 당상 좀 먹으라.
 당채 → 당최
 대귀(對句), 대귀법 → 대구, 대구법
 대노 → 대로(大怒)
 대밀동 → 밀동
 대싸리 → 땃싸리
 대장쟁이 → 대장장이
 -ㄴ댄다 → -ㄴ단다
 땃가(代價) → 대가
 땃님 → 대님

-더구료 → -더구려
 -더구만 → -더구먼
 -더구면 → -더구먼
 더부룩히 → 더부룩이
 더뿌룩하다 → 더부룩하다
 더우기 → 더욱이
 덩씩 → 덩석
 덩테기 → 덩터기
 덩물 → 덧물
 덩씩 → 덩석
 덩굴=넝쿨
 덩쿨 → 덩굴, 넝쿨
 뒹허, 뒹힌, 뒹혔다, 뒹히다 → 뒹여, 뒹인, 뒹였다, 뒹이다
 데그르르 → 데구루루
 데글데글 → 데굴데굴
 도너츠 → 도넛
 도돌이, 도들이 → 도드리
 도들이장단 → 도드리장단
 도리어 → 도리어, 되레
 도토마리 → 도투마리
 돈까스 → 돈가스
 돈나물 → 돌나물
 돈부리 → 돈머리
 돈잎 → 돈뽕
 돌구다, 돌다 → 돌우다
 돌끓기다 → 돌끓기다
 돌려대다 → 돌려대다
 돌맹이 → 돌맹이
 돌뿌리 → 돌부리
 돌파리 → 돌팔이
 돌하루방 → 돌하르방
 돛나물 → 돌나물
 동갑나기 → 동갑내기

동당이치다 → 동맹이치다
 동전달 → 동짓달
 동데 → 동티
 되려 → 되레
 되야 → 돼야, 되어야
 되풀기 → 되풀이
 됩다 → 도리어, 답다
 두들겨 → 두들겨
 두둘투둘 → 두둘두둘, 우둘투둘, 우둘두둘
 두들두들 → 두들두들
 두루말이 →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말이, 두루매기 → 두루마기
 둘러리 → 둘러리
 둘러머리 → 얹은머리
 들르다 → 두르다
 들쳐메다, 들쳐업다 → 둘러메다, 둘러업다
 둥그래지다 → 둥그레지다
 뒤지지다 → 뒤조지다
 뒤채다 → 뒤치다
 뒤쳐져, 뒤쳐지다 → 뒤쳐져, 뒤쳐지다 *대오
 에서 뒤쳐졌다.
 뒤치닥거리 → 뒤치다꺼리
 뒤함박치다 → 뒤범벅되다
 뒹박 → 뒹옹박
 뒷갈무리 → 뒷갈망
 뒷껏 → 뒤꼀
 뒷처리 → 뒤처리
 뒷치닥거리 → 뒤치다꺼리
 -드구나 → -더구나
 -드구료 → -더구려
 -드구만 → -더구먼
 -드구면 → -더구먼
 -드군 → -더군
 -드냐 → -더냐

드놀다 → 들놀다
 -드니 → -더니
 -드니라 → -더니라
 -드라 → -더라
 -드라도 → -더라도
 -드라면 → -더라면
 드라이브샷 → 드라이버샷(driver shot)
 -드래도 → -더라도
 드릅나무 → 두릅나무
 드문드문=뜨문뜨문
 드뭇드뭇 → 드문드문
 드보르작 → 드보르자크(Dvořák, Antonín)
 드습다, 드시다 → 드습다
 -든결 → -던결
 -든고 → -던고
 -든데 → -던데
 -든들 → -던들
 들넉 → 들넉
 들러, 들리다 → 들러, 들르다
 들썃날썃=들쭈날쭈
 들장수 → 도봇장수
 들쭈날쭈=들썃날썃
 들치다 → 들추다
 등룽문(登龍門) → 등용문
 디딜돌 → 디딤돌
 디룩거리다 → 뒤룩거리다
 디룩디룩 → 뒤룩뒤룩
 디지털 → 디지털
 밑어/밑여, 밑은 → 디더, 디딘
 딜레머/딜렘머 → 딜레마(dilemma)
 덩굴다 → 뒹굴다
 따 놓은 당상=떼어 놓은 당상=떼어 둔 당상
 따 놓 당상 → 따 놓은 당상
 딱다구리 → 딱따구리

팔각발이 → 팔각발이
 팔꼭단추 → 똑딱단추
 팔꼭질 → 팔꼭질
 팔리다 → 달리다 *힘이 달리다.
 땅기다 → 당기다 *밧줄을 당기다.
 땅기다: *얼굴이 땅기다
 때갈 → 때깅
 때다 → 때우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다.
 땡땡이 무늬 → 물방울무늬
 땡초 → 땡추
 떠들석 → 떠들썩
 떠벌이 → 떠버리
 떨어름하다 → 떨어름하다
 떼멋지 못하다 → 떼멋지 못하다
 떼그르르 → 떼구루루
 떼글떼글 → 떼굴떼굴
 펄래야 펄 수 없는 → 떼려야 펄 수 없는
 뻘대구루루 → 뻘데구루루
 또아리 → 뿔리
 똑딱똑딱 → 똑딱똑딱
 동그랑땡 → 동그랑땡
 땡야기, 뿔야기 → 땡기 *발 한 땡기.
 뿔놈 → 뿔놈
 두레질 → 두레질
 독 → 독
 독살 → 옴살
 둘레둘레 → 둘레둘레
 똥게질 → 똥배질
 뜨게질 → 뜨개질
 뜨게질 → 뜨개질
 뜨문뜨문=드문드문
 뜨문뜨문 → 드문드문
 띠다 → 띄우다 *편지를 띄우다.

르. _____
 -르라면 → -려면
 라스베가스 → 라스베이거스
 -르라고 → -려오
 라이선싱 → 라이선싱
 락 → 락(lac)
 락그룹(rock group) → 록그룹
 -(으)르결 → -(으)르결
 -(으)르께 → -(으)르께
 -(으)르꺼나 → -(으)르거나
 -(으)르께 → -(으)르께
 -(으)르라는 → -(으)르랑은
 -(으)르래도 → -(으)려 해도
 -(으)르래야 → -(으)려야
 -(으)르라고 → -(으)려고
 -(으)르런지 → -(으)르는지
 -(으)르 썬룩 → -(으)르수룩
 -르이만큼 → -리만큼
 런닝 → 러닝(running)
 런닝샤쯔 → 러닝셔츠
 -런지 → -너지
 레저 활동 → 레저 활동
 레코딩 → 리코딩
 레포트 → 리포트(report)
 렌트카 → 렌터카
 르려고, -르려고 → -려고
 르려면, -르려면 → -려면
 르려야, -르려야 → -려야
 -렸다 → -렸다 *네가 바로 길동이렸다.
 로고나, -로고나 → -로구나
 로구료, -로구료 → -로구려
 로구만, -로구만 → -로구먼
 로구면, -로구면 → -로구먼

로봇 → 로봣(robot)
 로스앤젤레스타임즈 →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로알젤리 → 로열젤리
 로알티 → 로열티
 로자리오 → 로사리오(rosario)
 로켓 → 로켓(rocket)
 로타리 → 로터리(rotary)
 루즈벨트 → 루스벨트(Roosevelt)
 룩스 → 럭스(lux)
 -른지 → -는지
 리더쉽 → 리더십(leadership)
 리모콘 → 리모컨
 리본 → 리본(ribbon)
 리시놀산 → 리시놀레산
 리진 → 리신(lysine)
 리쿼 → 리커(liquor)
 리쿼 스토어 → 리커 스토어(liquor store)
 린네르(←프 linière) → 리넨(linen)
 링게르 → 링거

마르세이유 → 마르세유(Marseille)
 마바람 → 마파람
 마생이 → 마상이
 마샬 플랜 → 마셜 플랜(Marshall plan)
 마시던가 → 마시든가, 마시든지
 마치 → 만큼, 만치 *이만치. 저만큼.
 마케팅 → 마케팅(marketing)
 마타도어(matador) → 매터도
 막내동이 → 막내둥이
 막동이 → 막둥이
 막마침 → 마지막
 만드려 하다 → 만들려 하다

많지 않느냐 → 많지 않으나
 말것 → 말걸
 말구중 → 말구종
 말소 → 마소
 맑갈다, 맑간 → 말갈다, 말간
 맑스 → 마르크스(Marx, Karl)
 맘모스 → 매머드(mammoth)
 맛득하다, 맛둡하다 → 마뜩하다
 맛바람 → 마파람
 맛빠기 → 맛보기
 맞닥뜨리다 → 맞닥뜨리다
 매니아 → 마니아(mania)
 매저키즘 → 마조히즘(masochism)
 매적지근하다 → 매작지근하다
 매케하다 → 매개하다
 맥맥히 → 맥맥이(脈脈-)
 맥조미 → 매조미(-糙米)
 맥컬리 → 매커리
 맥컬럼 → 매컬럼
 맥케인 → 매케인
 맥켄지 → 매켄지
 맥클레인 → 매클레인
 맨하탄 → 맨해튼(Manhattan)
 머리고당이 → 머리고당이
 머물어 → 머물러
 머숙하다 → 머쓱하다
 먼지떠리개, 먼지채, 먼지터리개, 먼지털이,
 먼지털이개 → 먼지떨이
 멀다랴다 → 머다랴다
 멋적다 → 멋쩍다
 멍우리 → 멍울
 메론 → 멜론(melon)
 메세지 → 메시지(message)
 메시껌다, 메시꼰다 → 메스껌다

메이다 → 메다 *목이 메다.
 메카니즘 → 메커니즘
 멧세지 → 메시지(message)
 멧쌀 → 맨쌀
 멸귀 → 멸구
 명귀 → 명구(名句)
 몇일, 몇 일 → 며칠
 몇일날, 며칠날 → 며칠날
 모개비 → 모가비
 모두걸이 → 모두거리
 모래모치 → 모래무지
 모레[沙] → 모래
 모르스부호 → 모스 부호(Morse符號)
 모밀, 모밀국수 → 메밀, 메밀국수
 묵돈 → 묵돈
 물리부덴 → 물리브덴
 몰아부쳐, 몰아부치다 → 몰아붙여, 몰아붙이다
 몰핀 → 모르핀
 (몸을) 움추린 → (몸을) 움츠린
 몸티 → 몸매
 몹씨 → 몹시
 무릎쓰다 → 무릅쓰다
 무버무리 → 무시루떡
 무서웁다 → 무섭다
 무식장이 → 무식쟁이
 문귀 → 문구(文句)
 (문제를) 맞추는 → (문제를) 맞히는
 문질르다 → 문지르다
 묻치다 → 묻히다
 못솔리니 → 무솔리니(Mussolini, Benito)
 뭉개구름 → 뭉게구름
 미국 국무성 → 미국 국무부
 미세스 → 미시즈(Mrs)
 미스테리 → 미스터리

미이라 → 미라(mirra)
 미입자 → 미립자
 미쟁이 → 미장이
 밀어부치다 → 밀어붙이다
 밀어제끼다 → 밀어젖히다
 밀동 → 밀똥
 밀동뿌리 → 밀동부리

바리케이트 → 바리케이드(barricade)
 바베큐 → 바비큐(barbecue)
 바이얼린 → 바이올린
 바즈런스럽다 → 바지런스럽다
 바하 → 바흐(Bach)
 반가와하다 → 반가워하다
 반렬(班列) → 반열
 반죽고리, 반짓고리 → 반짚고리
 발란스 → 밸런스(balance), 균형(均衡)
 발렌타인데이 →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발목장이 → 발목쟁이
 발생울 → 발생률
 발자귀, 발자욱 → 발자국
 발행년월일 → 발행 연월일
 밤을 새더라도 → 밤을 새우더라도
 방그시 → 방긋이
 배팅액 → 베팅액(betting額)
 뱃지 → 배지(badge)
 뽕았다 → 뽕었다
 버마(Burma) → 미얀마(Myanmar)
 버킹검 궁 → 버킹엄 궁
 번번히(番番-) → 번번이
 번지르하다 → 번지르르하다, 번지레하다
 벌개지다 → 벌게지다

벌거죽죽하다 → 벌그죽죽하다
 벌럭거리다/대다 → 벌렁거리다/벌렁대다
 법석, 법석 떨어다 → 법석, 법석 떨어다
 벃나무 → 벳나무
 벳어붙이다 → 벳어부치다
 벳어제끼다, 벳어제치다 → 벳어젓하다
 베르사이유 → 베르사유(Versailles)
 베버리힐스 → 베벌리힐스(Beverly Hills)
 벼개 → 베개
 벼라별 → 별의별
 벼란간 → 별안간
 벼룩장 → 벼룩집
 벼못 → 벳단
 벼씨 → 벳씨
 벼죽쟁이 → 벼죽쟁이
 변놓이(邊-- → 변놀이
 변수(邊首) → 편수 *기술자의 우두머리.
 별르다 → 버르다
 별미적다 → 별미적다
 보닥지다 → 보동되다
 보드럽다 → 보드랍다
 보라섬게 → 보라성게
 보섬, 보십 → 보습
 보스라지다, 보스러지다 → 바스러지다
 보스톤 → 보스턴(Boston)
 보이카웃 → 보이카우트(Boy Scout)
 보이코트(boycott) → 보이콧
 본네트 → 보닛(bonnet)
 본따 → 본떠
 본토배기(本土-- → 본토박이
 불성사납다 → 불쌍사납다
 불조개 → 보조개
 봉송화 → 봉선화, 봉송아
 뵈이다 → 보이다/뵈다

부동산 중계사 → 부동산 중개사
 부르짖다 → 부르짖다
 부리우다 → 부리다
 부비다, 부비대다 → 비비다, 비비대다
 부비적거리다, 부비적부비적 → 비비적거리다, 비비적비비적
 부썩뜨리다 → 부서뜨리다
 부썩지고, 부썩지다 → 부서지고, 부서지다
 부시다 → 부수다 *장난감을 부수다.
 부절없다 → 부질없다
 부조, 부조기 → 복조(復調), 복조기(復調器)
 부주, 부주금 → 부조(扶助), 부조금
 부추켜, 부추키다 → 부추겨, 부추기다
 부치개질 → 부침개질
 부침이 → 부침개
 부페 → 뷔페(프 buffet)
 복녁 → 복녁
 복잡이 → 복재비
 분할 → 분할(分割)
 불가사이 → 불가사의
 불공(佛供)들이다 → 불공드리다
 불그덩덩하다 → 불그멩멩하다
 불그락푸르락 → 붉으락푸르락
 불그러지다 → 불거지다
 불깃불깃하다 → 불긋불긋하다
 불돋우개 → 심돋우개
 불리우고, 불리우는, 불리우다, 불리웠던
 → 불리고, 불리는, 불리다, 불렸던
 불실 → 부실(不實)
 불연듯이 → 불현듯이
 불이나케 → 부리나케
 불카하다 → 불과하다
 불박히다 → 불박이다
 브라우스 → 블라우스(blouse)

브랜트유 → 브렌트유(Brent油)
 비게 → 비계
 비들기 → 비들기
 비듬나무 → 느릅나무
 비때서다 → 비켜서다
 비두덩거리다 → 비뚱거리다
 비란 → 비난(非難)
 비러먹다 → 빌어먹다
 비랑뱅이질 → 비력질
 비로서 → 비로소
 비루스 → 바이러스(라 virus)
 비비질 → 비계질
 비설겅이 → 비설거리
 비양거리다 → 비아냥거리다
 비양스럽다 → 비아냥스럽다
 비엔나(Vienna) → 빈(Wien)
 비웃거리다 → 비웃적거리다
 비전 → 비전(vision)
 비지니스 → 비즈니스(business)
 비프가스 → 비프커피틀릿
 빈털털이 → 빈털터리
 빙충맞이, 빙충바리 → 빙충이
 빗갈 → 빗갈
 빠꼼, 빠꼼빠꼼 → 빠꼼, 빠꼼빠꼼
 빨가송이 → 빨가송이
 빨르다 → 빠르다
 빼갈(白干儿·baigar) → 배갈
 빼곡이 → 빼곡히 *버스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빼뚜러지다 → 빼돌어지다
 빼앗았다 → 빼앗았다/뺏았다
 뺏 → 뺏(back)
 뺏아, 뺏았다 → 뺏어, 뺏었다
 뺏따구니 → 뺏따귀

빼치다 → 뺏치다
 뺏장다리 → 뺏장다리
 빼다귀, 뺏다귀 → 빼다귀
 빼저리다=빼아프다
 뽀새 → 뽀새
 뽀내다 → 뽀내다
 뽀열매 → 오디
 뽀로지 → 뽀루지
 뽀쪽, 뽀쪽이 → 뽀쪽, 뽀쪽이
 뿌리채 → 뿌리째
 뽀따귀 → 뽀따귀
 뽀그덕 → 뽀거덕, 뽀걱
 뽀까번쩍 → 번쩍번쩍
 뽀까번쩍하다, 뽀까뽀까하다 → 번쩍번쩍하다
 뽀에로 → 피에로(프 pierrot)

사단(事端)이 나다 → 사달이 나다
 사되다 → 샷되다
 사둔 → 사둔(査頓)
 사렛질 → 사래질
 사루비아 → 셀비어(salvia)
 사삿되다 → 사사롭다
 사십구제 → 사십구재(四十九齋)
 사이치기 → 새치기
 사정거리(射程距離)=사거리(射距離)
 사줄께 → 사줄께
 사지 → 서지(serge)
 사춘 → 사춘(四寸)
 사팔뜨기 → 사팔뜨기
 사흘날 → 사흘날
 삭 → 샷 *품샷
 삭월세(朔月賃) → 사글세

삭이다 → 새기다 *소가 여물을 새기고 있다.
 샛마(-馬) → 샛말
 산수갑산 → 삼수갑산(三水甲山)
 산수기(撒水機) → 살수기
 살기 등등하다 → 살기등등하다
 살너울 → 살여울
 살륙 → 살육(殺戮)
 살르다 → 사르다
 살막이 → 살풀이
 살사리 → 살살이
 살사리꽃 → 코스모스(cosmos)
 삼가하다 → 삼가다
 삼발쇠 → 삼발이
 삼배 → 삼배
 삼질날 → 삼질날
 삼촌 → 삼촌(三寸)
 상도꾼(喪徒-) → 상두꾼=상여꾼
 상량대(上樑-), 상량도리, 상량보 → 마룻대
 상말 → 상마(-馬)
 상부꾼 → 상여꾼
 상승울 → 상승울
 상채기 → 생채기
 상치 → 상추
 상판때기 → 상판대기
 살살히 → 살살이
 새노랑다 → 섯노랑다
 새다 → 새우다 *밤을 새우다. 날이 새다.
 새뜨기 → 사팔뜨기
 새로와 → 새로워
 새말갈다 → 섯말갈다
 새문 → 섯문(-門)
 암바르다, 새암바리 → 섯바르다, 섯바리
 새양쥐 → 생쥐
 색스폰 → 색소폰(saxophone)

샘플(sample) → 샘플
 섯까말다 → 새까말다
 섯대문 → 섯문
 섯빨갈다 → 새빨갈다
 섯파랗다 → 새파랗다
 섯하얗다 → 새하얗다
 생안손, 생연손 → 생인손
 생청부리다 → 생청불이다
 샤베트 → 셔벗(sherbet)
 샤시 → 채시(chassis) *자동차 따위의 차대.
 샤시 → 창틀, 새시(sash) *알루미늄 따위를
 재료로 하여 만든 창 의 틀.
 샤타 → 셔터
 산데리아 → 샹들리에
 샛다 → 셔터
 서둘르다 → 서두르다
 서러움=설움
 서로 상충(相衝) → 상충
 서비스센타 → 서비스센터
 서슴치 → 서슴지
 서툴어서 → 서툴러서
 석가래 → 서까래
 선글래스 → 선글라스
 선돈 → 선금(先金)
 선동이 → 선동이
 선드리다 → 선들이다
 선록색 → 선녹색
 선왕궁 → 서낭궁
 선코(先-) → 선손
 섯잡다 → 설잡다
 설농탕(雪濃湯) → 설렁탕
 설설 → 슬슬
 설쉬다 → 설 쇠다
 설음 → 설움

설잠 → 선잠
 설치레 → 설빔
 섯넌 → 서넌
 섯달 → 선달
 성낭곽 → 성낭갑
 성대묘사 → 성대모사(聲帶模寫)
 성장율(成長率) → 성장률
 성획 → 생획(省畫)
 세간살이 → 세간
 세넷 → 서넷
 세느 강 → 센 강(Seine江)
 세대(世帶) → 가구(家口) *영세민 900가구
 세르즈 → 서지(serge)
 세멘트 → 시멘트(cement)
 세무 → 새미(chamois)
 센치 → 센티
 센트리 → 센추리(century)
 세도우 → 새도(shadow)
 소구루마 → 소달구지
 소금장이 → 소금쟁이
 소꿌, 소꿌놀이, 소꿌장난, 소꿌질
 → 소꿌, 소꿌놀이, 소꿌장난, 소꿌질
 -(으)ㄹ소냐 → -(으)ㄹ쏘냐
 소때장이 → 솟대쟁이
 소세지 → 소시지(sausage)
 소슬대문 → 솟을대문
 ㄹ손가, -ㄹ손가 → -ㄹ쏜가
 솔대 → 솟대
 솔직이 → 솔직히
 솟구다 → 쏙다
 송글송글, 송긱송긱 → 송골송골
 송두리채 → 송두리째
 쇠고창이 → 쇠고챙이
 쇼파 → 소파(sofa)

수근거리다 → 수군거리다/수군대다
 수긱수긱, 수긱하다 → 수긱수긱, 수긱하다
 수냉식 → 수랭식(水冷式)
 수돌찌귀 → 수틀찌귀
 수란자 → 수란짜
 수랄 → 수란(水卵)
 수리나물 → 수취나물
 수변증 → 삭변증(數便症)
 수부룩하다 → 수복하다
 수복히 → 수복이
 수상적다 → 수상쩍다
 수염 → 수렴(水廉)
 수이 → 쉬이
 수이보다, 수이여기다 → 쉬이보다, 쉬이여기다
 수째 → 숫제
 수트 → 슈트(suit)
 슈퍼(super) → 슈퍼
 슈퍼마켓 → 슈퍼마켓
 속쓰렵다 → 쑥쓰렵다
 솟가락 → 숟가락
 슈가(sugar) → 슈거
 스넥 → 스낵(snack)
 스노우 → 스노(snow)
 스레트 → 슬레이트(slate)
 스카웃 → 스카우트(Scout)
 스크류(screw) → 스크루
 스탠다드, 스탠다드 → 스탠더드(standard)
 스탠포드 대학 → 스탠퍼드 대학
 스태프 → 스태프(staff)
 스텐 → 스테인리스강
 스텐드바 → 스탠드바(stand bar)
 스탬프 → 스탬프(stamp)
 스티로폼(독 Styropor) → 스티로폼(styrofoam)
 스팟 광고 → 스폿 광고

스폰지 → 스펀지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sprinkler)
 슬라브 → 슬래브(slab)
 슬로우 → 슬로(slow)
 승락 → 승낙(承諾)
 시골나기 → 시골내기
 시귀 → 시구(詩句)
 시꺼매지다 → 시꺼메지다
 시끈거리다 → 시큰거리다
 시누렁다 → 싯누렁다
 시늬시늬 → 시름시름
 시답잖은 → 시답잡은
 시라소니 → 스라소니
 시레기 → 시래기
 시뻔개지다 → 시뻔게지다
 시뽀애지다 → 시뽀예지다
 시삽 → 시삽(sysop, system operator)
 시셋말 → 시척말
 시셋말(時世-) → 시척말
 시스템 → 시스템(system)
 시원스리 → 시원스레
 시지푸스 → 시시포스(Sisyphos)
 시쪽시쪽 → 히쪽히쪽
 시커매지다 → 시커메지다
 시퍼래지다 → 시퍼레지다
 신나 → 시너(thinner)
 신들메 → 들메꾼
 신새벽 → 첫새벽
 신용 카드 결제 → 신용 카드 결제
 신출나기 → 신출내기
 실강이 → 실랑이
 실날 → 실날
 실락원 → 실낙원
 실증 → 실증

실금하다 → 실금하다
 심껏 → 힘껏
 심도드개 → 심돌우개
 심볼 → 심벌(symbol)
 십왕봉(十王峯) → 시왕봉
 십월(十月) → 시월
 십이률 → 십이율(十二律)
 싯누래지다 → 싯누레지다
 싯말개지다 → 싯말게지다
 성동경동 → 건성건성
 싸느렁다 → 싸느랏다
 싸리문(--門) → 사립문
 쌀괘 → 뒤주
 싹살하다 → 싹싹하다
 싹쓰름하다 → 싹싸래하다
 쌍둥이(雙童-) → 쌍둥이
 쌍둥아들 → 쌍둥아들
 썸벅, 썸벅썸벅 → 썸벅, 썸벅썸벅
 썸뽁썸뽁 → 썸뽁썸뽁
 속맥 → 속맥(菰麥)
 속수그르르하다 → 속수그레하다
 속쓰럽다 → 속스럽다
 쓰래기논 → 싸라기논
 쓱삭쓱삭 → 쓱싹쓱싹
 쓸어지다 → 쓰러지다
 쓸치마 → 쓰개치마
 쓸쓸하다 → 쓸쓸하다
 씨래기 → 시래기
 싹둑싹둑 → 싹둑꺾둑
 씻기우다 → 씻기다

○.

아구 → 아귀

아구 맞추다 → 아귀(를) 맞추다
 아구찜 → 아귀찜
 아니다고 보다 → 아니라고 보다
 아니다는 점을 → 아니라는 점을
 아니어요, 아니예요 → 아니어요/아녀요,
 아니예요/아녀요
 아니오 → 아니요 *‘예’에 대응되는 말.
 아더 왕 → 아서 왕
 아등바등 → 아등바등
 아람차다 → 아름차다
 아랫골 → 아랫목
 아랫나루 → 아랫수염
 아랫누이 → 누이동생
 아람치 → 아람치
 아리까리하다 → 알송달송하다, 아리송하다
 아리수 → 속임수
 아먼드 → 아몬드
 아무려나, 아무리나 → 아무려나
 아물든, 아물든지 → 아무튼, 아무튼지
 아스름하다, 아슴츠레하다, 아슴푸릇하다
 → 아슴푸레하다
 아이러니컬하다 → 아이로니컬하다
 아이로니 → 아이러니
 아이슬랜드 → 아이슬란드(Iceland)
 아젠다 → 어젠다(agenda)
 아즈테카 왕국 → 아스테카 왕국
 아즈텍족 → 아스텍족
 아지랑이 → 아지랑이
 아틀란타 → 애틀랜타(Atlanta)
 아프카니스탄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칸 사태 → 아프간 사태(←Afghanistan)
 애프터서비스 →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악발이 → 악바리
 악세사리 → 액세서리

악세레이터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악셀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악착배기 → 악착빠기
 안가슴 → 앙가슴
 안간힘이다 →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간힘
 을 쏟고 있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안걸장 → 속표지
 안박 → 안팎
 안성마춤 → 안성맞춤
 안스럽다, 안슬프다 → 안쓰럽다
 안악네 → 아낙네
 안옥결이 → 안결이
 안이리 → 아니리
 안전변 → 안전판
 안진곳 → 앓은곳
 안쪽잡다 → 안쪽잡다
 안쫄다리 → 안짱다리
 안춤 → 안쪽
 안타까와 → 안타까워
 알맞는 → 알맞은
 알미눔 → 알루미늄
 알박이 → 알배기
 알베르트 까뮈 →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알송달송 → 알송달송
 알아맞추다 → 알아맞히다
 알콜 → 알코올(alcohol)
 암록색 → 암녹색
 암취 → 참취
 암곰 → 암곰
 암구렁이 → 암구렁이
 암글 → 암글
 암톨 → 암돼지
 암뿔 → 암뿔
 암피돌기 → 암비돌기

앗소 → 엇소
 앓아라 → 아서라
 양가풀이 → 양값음
 양게발이 → 양가발이
 양니 → 송곳니
 양머구리 → 약머구리
 양발이 → 양가발이
 양살거리다, 양살양살 → 양알거리다, 양알양알
 양이 → 송곳니
 양정스럽다, 양정하다 → 양증스럽다, 양증하다
 양케이트 → 양케트(프 enquête)
 양콜 → 양코르(프 encore)
 양티크 → 앤티크(프 antique)
 양팡지다 → 암팡지다
 애개, 애개개 → 애개, 애개개
 애구, 애구머니 → 애고, 애고머니
 애기 → 아기
 애기태 → 아기태
 애닢다, 애닢아, 애닢은 → 애달프다, 애달파, 애달픈
 애닢다 → 애달프다
 애되다 → 앓되다
 애띠다, 애띤 → 앓되다, 앓된
 애로우 → 애로(arrow)
 애시 → 애초
 애시당초 → 애당초
 애옥살림=애옥살이
 애옥살이 → 애옥살이
 애저녁 → 애초, 초저녁
 앤, & → 앤드(and)
 액센트 → 악센트(accent)
 앤드류 왕자 → 앤드루 왕자
 엠뷰란스, 엠뷰런스, 엠브란스, 엠브란스
 → 앰블런스(ambulance)
 앵콜 → 양코르(프 encore)

야곰야곰 → 야금야금
 야구르트 → 요구르트
 야말스럽다 → 야멸스럽다
 야멸차다 → 야멸치다
 약바르다 → 약빠르다
 약보자기 → 약수건
 얇다랗다 → 알따랗다
 얇직하다 → 알찍하다
 얹남 → 남남
 얹남거리다 → 남남거리다
 양골뼈 → 양지머리뼈
 양보료 → 양담요
 양상치 → 양상추
 양수겸장 → 양수겸장(兩手兼將)
 애기하던가 → 애기하든가, 애기하든지
 어귀 → 어구(語句)
 어두침침하다=어둡침침하다
 어둑침침하다 → 어두침침하다=어둡침침하다
 어떨런지 → 어떨는지
 어렵쇼 → 어렵쇼
 어루다 → 어르다
 어루쓰다듬다 → 어루만지다
 어르다 → 으르다 *강도가 칼을 들고 으른다.
 어리수긋하다 →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 어리송하다, 어수룩하다
 어린벌레 → 애벌레
 어물쩍(넘어가다) → 어물쩍(넘어가다)
 어스름달밤 → 으스름달밤
 어스름달 → 으스름달
 어승화(禦-花) → 접시꽃
 어젠더 → 어젠다(agenda)
 어줍잖게, 어줍잖다 → 어줍잖게, 어줍잖다
 억척배기 → 억척빠기
 언덕받이 → 언덕바지, 언덕배기

언덕배기 → 언덕배기, 언덕바지
 언뜻=얼핏
 언뜻언뜻=얼핏얼핏
 얼구다 → 얼리다
 얼굴이 당기다 → 얼굴이 땡기다
 얼피기 → 얼뜨기
 얼마큼 → 얼마만큼, 얼마만치
 얼러맞히다 → 얼러맞추다
 얼룩배기 → 얼룩빠기
 얼룩이 → 얼루기
 얼뱅이 → 얼뜨기
 얼핏얼핏=언뜻언뜻
 얼핏하면 → 겹핏하면
 업동이 → 업동이
 업친 데 뎅친다 → 옆친 데 뎅친다
 없지 않느냐 → 없지 않느냐
 엇그제 → 엇그제 *‘어제그제’의 준말.
 엇모리, 엇물이장단 → 엇모리장단
 영간하다 → 어연간하다
 에딘버러 → 에든버러(Edinburgh)
 에면데면하다 → 데면데면하다
 에문 → 애먼
 에스파니아 → 에스파냐
 에어콘 → 에어컨(←air conditioner)
 예지간하다 → 어지간하다
 엠뷰란스, 엠뷰런스, 엠뷰런스, 엠브란스
 → 앰블런스(ambulance)
 앰프 → 앰프(←amplifier)
 여니 → 여느
 여지껏 → 여태껏, 여태까지
 여지러지다 → 이지러지다
 여직, 여직껏 → 여태, 여태껏
 여쭈다=여쭙다
 연거퍼 → 연거푸

연육교 → 연륙교
 열어재끼다, 열어재치다, 열어저치다, 열어
 제끼다, 열어제치다 → 열어젓히다
 열열히(熱烈/烈烈-) → 열렬히
 엇장사 → 엇장수
 영낙없다 → 영락없다
 연벤(延邊) → 연변
 옛다 → 옛다 *‘여기 있다’의 준말.
 옛부터 → 예부터 *‘옛’은 관형사이므로 조사
 가 붙을 수 없다.
 오델로 → 오셀로(Othello)
 오두마니, 오두머니 → 오도카니
 오랫동안 → 오랜만
 오레곤 → 오리건(Oregon)
 오르가즘 → 오르가슴(프 orgasme)
 오리지날 → 오리지널(original)
 오바(over) → 오버
 오방지다 → 옹골지다
 오버스테프 → 오버스텝(overstep)
 오지랄 → 오지랄
 옥물다 → 악물다
 온냉 → 온랭(溫冷)
 올나잇 → 올나이트
 움씩달씩 → 움푹달씩
 움푹달씩 → 움푹달씩
 움쪽달씩 → 움푹달씩
 옵셋 → 오프셋(offset)
 (옷을) 기우고 → 김고
 웅기쟁이(甕器-) → 웅기장이
 웅바기 → 웅배기
 왜감 → 밀감
 왜굴(倭橘) → 밀감
 왜긋다 → 뽕뽕하다
 왜목(倭木) → 광목

웬 일인가 → 웬일인가
 외곡 → 왜곡(歪曲)
 외골수 단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 *외골수 학자.
 외골: =외통.
 외동이 → 외동이
 외토리 → 외톨이
 우끼떡 → 웃기떡
 우뢰 → 우레
 우즈베크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즈베크
 우쭐렁거리다, 우쭐렁하다 → 우쭐거리다, 우쭐하다
 울쌍 → 울상
 울어나다 → 우러나다
 울썩하다 → 울적하다(鬱寂-)
 움추러들다 → 움츠러들다
 움추리다 → 움츠리다
 움치러지다 → 움츠러지다
 움금 → 움금
 웃나룻 → 웃수염
 웃늬뭉 → 웃잇뭉
 웃이 → 웃니
 웃저고리 → 겹저고리
 웃적삼 → 겹적삼
 워너브러더스 → 워너브러더스(Warner Brothers)
 워크샵 → 워크숍(workshop)
 워플 → 와플(waffle)
 원격 조정 → 원격 조정
 원할한 → 원활한
 웨건 → 왜건(wagon)
 웨려 → 오히려
 웨일즈 → 웨일스(Wales)
 웬지 → 왠지
 위안화(元貨) → 위안 화(중국 돈)
 유귀 → 유구(類句)
 육계장, 육계장 → 육개장

육냥전 → 육량전(六兩箭)
 -으께 → -을게
 으레껏, 으레히, 으레 → 으레
 으름짱 → 으름장
 으몽스럽다 → 의몽스럽다
 으시대다 → 으스대다
 으시시 → 으스스
 은익 → 은닉(隱匿)
 -을께 → -을게
 -올런지 → -올는지
 -올려고 → -오려고
 -올려야 → -오려야
 -올소냐 → -올쏘냐
 -올손가 → -올쏜가
 -올싸룩 → -올수룩
 을씨년하다 → 을씨년스럽다
 -을이만큼 → -오리만큼
 의곡 → 왜곡(歪曲)
 의능 → 의릉(懿陵, 義陵)
 의례 → 으례 *으례 그렇지.
 이그러지다 → 일그러지다
 이르크추크, 이르크츠크 → 이르쿠츠크
 이마배기 → 이마빼기
 이만때 → 이맘때
 e-메일 → 이메일, 전자우편
 이면수 → 임연수어
 이예요 → 이어요/이예요, 예요/여요
 *책이어요/책이예요, 나무예요/나무여요.
 이즈러지다 → 이지러지다
 이틀날 → 이틀날
 익숙치 않은 → 익숙지 않은
 인(이) 박이다: 인(이) 박히다(×)
 인턴쉽 → 인턴십
 일곱살바기 → 일곱 살배기

일사불란 → 일사불란(一絲不亂)
 잇딴 → 잇단, 잇따른 *잇단 범죄, 잇따른 범죄
 잇점(利點) → 이점
 잉글리쉬 → 잉글리시(English)

ㅈ.

자갈(을 물리다) → 재갈(을 물리다)
 -자구 → -자고
 -자구나 → -자꾸나 *이제 가자꾸나.
 자귀 → 자구(字句)
 자그만치 → 자그마치
 자그만한 → 자그마한
 자먹질 → 자맥질
 자바기 → 자배기
 자스민 → 재스민(jasmine)
 자옥히 → 자옥이
 자옥 → 자국
 자유로와지면 → 자유로워지면
 자일러폰 → 실로폰(xylophone)
 자자분하다, 자잘구레하다 → 자질구레하다
 자즌모리, 자진몰이 → 자진모리
 자쳐지다 → 찢히지다
 자켓 → 재킷(jacket)
 작달이 → 작다리
 작열(炸裂) → 작렬 *폭죽 같은 홍련의 작렬.
 작자궁 → 짝짜궁
 잔등 → 등, 잔등이
 잔등어리, 잔등패기 → 잔등이
 잔비 → 가랑비
 잔전(-錢), 잔전폰 → 잔돈, 잔돈폰
 잔줄이다 → 잔지르다
 잘다랑다 → 잘다랗다
 잘랑하다 → 알랑하다

잘록이 → 잘록이
 잘록잘록, 잘록하다 → 잘록잘록, 잘록하다
 잘리우다 → 잘리다
 잠간(暫間) → 잠깐
 잠구다, 잠귀 → 잠그다, 잠가
 잠땃 → 잠꼬대
 잠뱅이 → 잠방이
 잠자리웃 → 자리웃
 잣수(字數) → 자수
 장고(杖鼓/長鼓) → 장구
 장농 → 장롱(櫥籠)
 장사아치 → 장사치
 잣은가락 → 자진가락
 잣은마치 → 자진마치
 잣은모리, 잣은모리장단 → 자진모리
 잣은산타령 → 자진산타령
 재간동이 → 재간둥이
 재재 → 제재(制裁)
 재제 → 제재(制裁)
 재크 → 잭(jack)
 재털이 → 재떨이
 저뜨리다 → 젓뜨리다
 저팬 → 재팬
 전률(戰慄) → 전율
 전장터 → 전쟁터(戰爭-), 전장(戰場)
 절대절명 → 절체절명(絶體絶命)
 절뚝나다, 절뚝내다 → 걸뚝나다, 걸뚝내다
 절름발이 → 절름발이
 젊장다 → 점장다
 점잔한, 점잔하다 → 점잖은, 점잖다
 점장이 → 점쟁이
 점지르다 → 점질리다
 젓겨지다 → 젓혀지다
 젓이 → 젓니

젓치다 → 젓히다
 조대흙 → 질흙
 조르게 → 조리개
 주어대다, 주어 먹다 → 주워대다, 주워 먹다
 주엄주엄 → 주섬주섬
 주워지는 → 주어지는
 주육 → 주륙(誅戮)
 주점부리 → 주전부리
 주초(柱礎), 주초돌 → 주추, 주춧돌
 죽은개 → 주근개
 좇다, 좇어 → 줍다, 주워
 중몰이 → 중모리
 중중몰이 → 중중모리
 주스 → 주스(juice)
 지개 → 지게
 지루박 → 지르박
 지짐개 → 부침개
 지짐개질 → 지짐질
 지천 → 지청구
 지쿠땡 → 짓고땡
 지터박 → 지르박
 지팽이 → 지팡이
 지푸래기 → 지푸라기
 직방 → 곧바로
 직판 → 곧장
 직효(直效) → 즉효(即效)
 진무르다 → 짓무르다
 진양, 진양장단, 진양조 → 진양조장단
 진탕 → 진창
 질력나다 → 진력나다
 질력내다 → 진력내다
 짓푸르다, 짓푸른 → 질푸르다, 질푸른
 칭기스칸(Jinghis Khan) → 칭기즈 칸
 짓긋다 → 짓궂다

짓무르다 → 짓무르다
 짓밟다 → 짓밟다
 짚차 → 지프(jeep)
 짹달막하다 → 작달막하다
 짹짜공 → 짹짜공
 짹다랗다 → 짹따랗다
 짹다랗다 → 짹따랗다
 짹잘하다 → 짹잘하다
 짹각, 짹각짹각 → 재각, 재각재각
 짹째하다 → 짹째하다
 짹곰, 짹곰짹곰 → 짹곰, 짹곰짹곰
 짹격, 짹격짹격 → 제격, 제격제격
 쪽두리 → 족두리
 쪽밤 → 쌍동밤
 (쪽을) 지다 → (쪽을) 찌다
 쪽집게 → 족집게
 쪽겨, 쪽기다 → 쪽겨, 쪽기다
 쪽구리다 → 쪽그리다
 쪽구미 → 주구미
 쪽지 → 족지, 쪽정이
 찌게 → 찌개
 찌들리다 → 찌들다
 찌뿌둥하다 →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 찌뿌듯하다, 찌뿌드드하다
 찌뿌드하다 → 찌뿌듯하다, 찌뿌드드하다
 찌뿌득하다 → 찌뿌듯하다, 찌뿌드드하다
 찌덕거리다 → 찌득거리다
 찌벽거리다 → 집적거리다
 찌찌매다 → 찌찌매다

❖. _____

차가와 → 차가워
 차간(車間) → 찻간

착고(着錮) → 차고
 찬땀 → 식은땀
 찰라 → 찰나(刹那)
 찰조 → 차조
 찰지다 → 차지다 *밥이 찰져 → 밥이 차져
 찰다랗다 → 찰따랗다
 찰다랭이 → 찰다랑어
 찰달다 → 찰따다
 창능 → 창릉(昌陵)
 창란, 창란젓 → 창난, 창난젓
 채반 → 차반
 채양 → 차양(遮陽)
 채이다 → 차이다, 채다
 채일 → 차일(遮日)
 찡피하다 → 창피하다
 차밍 → 차밍(charming)
 차트 → 차트
 쳐들다 → 쳐들다
 처럼하다 → 처엄하다
 천둥바라기 → 천둥지기
 천릭 → 철릭
 천상 → 천생
 천상연분(天上緣分) → 천생연분(天生緣分)
 천정 → 천장(天障)
 천평(天平) → 천칭(天秤)
 철썩같이 → 철석같이
 첫툰 → 첫돌
 채신머리사납다 → 채신머리사납다
 채신머리없다 → 채신머리없다
 쳐부시다 → 쳐부수다
 초생달 → 초승달
 초컬렛 → 초콜릿(chocolate)
 초컬릿, 초콜릿 → 초콜릿(chocolate)
 축축히 → 축축이

총각미역 → 꼭지미역
 추고 → 퇴고(推敲)
 추근거리다 → 치근거리다
 추념 → 추렴
 추석 쉬다 → 추석 쇠다
 추스려, 추스리고, 추스릴, 추슬르고
 → 추슬러, 추슬르고, 추스를, 추스르고
 추스렸지만 → 추슬렸지만
 축삭 돌기 → 축색 돌기
 출발울 → 출발률
 출산률 → 출산율
 충염 → 충렴(蟲廉)
 취장 → 취장
 치떠보다 → 침떠보다
 치룬, 치뤄, 치루다, 치뤄지는, 치뤘다
 → 치른, 치러, 치르다, 치러지는, 치렀다
 *시험은 잘 치뤘느냐. 곤욕을 치뤘다.
 칙덩쿨 → 칙녕쿨/칙덩쿨
 칙범 → 칙범
 칠삭둥이 → 칠삭둥이
 칠쟁이 → 칠쟁이
 칠흙갈다 → 칠흑(漆黑) 갈다
 칙수(-數) → 치수

❖. _____

카라멜 → 캐러멜(caramel)
 카스테라 → 카스텔라(castella)
 카운셀러 → 카운슬러(counselor)
 카운셀링 → 카운슬링(counseling)
 카추샤 → 카투사(KATUSA)
 카텐 → 커튼
 카톨릭 → 가톨릭
 카페트 → 카펫

칸느 → 칸(Cannes) *칸 영화제.
 칼라 휴대폰 → 컬러 휴대폰
 캠프라치, 캄플라지 → 카무플라주
 (프 camouflage)
 카트리지 → 카트리지(cartridge)
 캥가루 → 캥거루
 캐럴 송(carol song) → 캐럴
 캐리어 → 커리어(career) *커리어 우먼.
 캐쉬 → 캐시(cash)
 캐쉬 카드 → 캐시 카드(cash card)
 캐캐묵은 → 케케묵은
 캐트리지 → 카트리지(cartridge)
 캐피탈 → 캐피탈
 캡쳐 → 캡처(갈무리)
 카라멜 → 캐러멜(caramel)
 커다랗다 → 커다랗다
 커텐 → 커튼
 커트리지 → 카트리지(cartridge)
 커트오프 → 컷오프
 컨셉(concept) → 콘셉트
 컨셉 카 → 콘셉트 카
 컨택트 → 콘택트(contact)
 콘텐츠 → 콘텐츠(contents)
 컨퍼런스 → 콘퍼런스(conference)
 컬처 클럽 → 컬쳐 클럽
 콤프레서 →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콤플렉스 → 콤플렉스
 케익 → 케이크(cake)
 켜켜히 → 켜켜이
 케케묵다 → 케케묵다
 코메디 → 코미디(comedy)
 코뮌 → 코뮌(프 commune)
 코방귀 → 콧방귀
 컨테이너 → 컨테이너(container)

콘트롤 → 컨트롤(control)
 콘트롤타워 →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콜렉션 → 컬렉션
 콜로키움(colloquium) → 콜로키엄
 콤보(combo) → 캄보
 콤파스 → 컴퍼스
 콧방아 찰다 → 코방아 찰다
 콩쿨 → 콩쿠르(프 concours)
 쿠데타 → 쿠데타(프 coup d'état)
 쿵푸 → 쿵후(功夫)
 퀘퀘하다 → 귀퀴하다
 규슈 → 규슈(九州, きゅうしゅう)
 크랙션, 크랙션 → 클랙스(klaxon)
 크리스마스 캐롤 →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머스 →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 크리스티앙 디오르
 크리스찬 → 크리스천(Christian)
 클랙션 → 클랙스(klaxon)
 키로(kilo) → 킬로(kilo)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Kirgizstan)
 =키르기스

㉔.

타겟 → 타깃(target)
 타올 → 타월
 타일르다 → 타이르다
 타임즈 → 타임스(Times)
 타켓 → 타깃(target)
 타코미터 → 태코미터(tachometer)
 타티오카 → 타피오카
 탈렌트 → 탤런트(talent)
 탐익 → 탐닉(耽溺)

탐탁치 않은 → 탐탁지 않은
 태능 → 태릉(泰陵)
 태다 → 태우다 *담배를 태우다.
 텍도 없는 소리 → 턱도 없는 소리
 텃갈 → 태갈
 털보송이 → 털복숭이
 털이개 → 먼지떨이
 테임즈강 → 템스강(Thames 江)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technology)
 텍도 없는 소리 → 턱도 없는 소리
 텐진(天津) → 텐진
 텔레비전 → 텔레비전
 토배기(土--) → 토박이
 통줄임 → 통조림
 통채 → 통째
 통털다, 통털어 → 통틀다, 통틀어
 퇴자 → 퇴짜
 독배기 → 독배기
 통사발 → 통주발
 트름 → 트림
 틀거리 → 틀거지
 틀이 → 틀니
 틈실하다 → 틈실하다
 티각태각 → 티격태격
 티이다 → 트이다
 팀 스피리트 → 팀 스피릿(Team Spirit)
 팀웍 → 팀워크(team work)

㉕.

파토 → 파투(破圖)
 판넬 → 패널
 판대기 → 판때기
 판토마임, 판트마임 → 팬터마임(pantomime)
 팔꿈치 → 팔꿈치

팔굽, 팔뚝꿈치 → 팔꿈치
 팜플렛 → 팸플릿(pamphlet)
 패이다 → 파이다
 펀더멘틀 → 펀더멘털(fundamental)
 페스티발 → 페스티벌(festival)
 펜실베이니아 →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펠로우십 → 펠로십(fellowship)
 페엄 → 페렘
 포르투갈 → 포르투갈
 포춘, 포춘지 → 포천(Fortune)지
 포크레인 → 삽차, 포클레인(Poclaim)
 포탈(portal) → 포털
 표결에 불이다 → 표결에 부치다
 표식, 표식판 → 표지(標識), 표지판(標識板)
 풀소 → 폴소
 풀소가죽 → 폴소가죽
 풀소고기 → 폴소고기
 품삭 → 품샷
 풍지박산 → 풍비박산(風飛雹散)
 퓨처 → 퓨처(future)
 프라그, 플라그 → 치태(齒苔), 플라크(plaque)
 프라스틱 → 플라스틱(plastic)
 프라자(plaza) → 플라자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로포즈 → 프러포즈(propose)
 프리드로 → 프리스로(free throw)
 프리지아 → 프리지어(꽃이름)
 플라즈마 → 플라스마
 플랫홈 → 플랫폼
 플룻 → 플루트(flute)
 피동피동, 피등피등 → 피동피동
 피래미 → 피라미
 피말 → 피마
 필로폰=히로뽕

핑계 → 핑계

ㅎ.

하니바람 → 하늬바람

하마트면 → 하마터면

하영든 → 하여튼

하일라이트 → 하이라이트(highlight)

한갓 → 한갓

한겨레, 한계레 → 한겨레

한 발자국 물러서다 → 한 발짝 물러서다,

한발 물러서다

할로윈데이 → 핼러윈데이(Hallowe'en day)

할리웃 → 할리우드(Hollywood)

할키다 → 할퀴다

해꼬지 → 해코지

해방동이 → 해방둥이

헬쪽하다 → 헬썩하다

햄족 → 함족(Ham族)

햇님 → 해님

햇쌀 → 햅쌀

헝가래 → 헝가래

허낙 → 허락(許諾)

허엽스레하다 → 헝수룩하다

허위대 → 허우대

허위적거리다 → 허우적거리다

헐리우드, 헐리웃 → 할리우드(Hollywood)

형깁 → 형깁

형크러지다 → 형클어지다

헤메다 → 헤매다

헤매이다 → 헤매다

헬로우 → 헬로

헛지거래 → 헤지거래(Hedge去來)

형형색깔 → 형형색색

호도(胡桃) → 호두

호루루기, 호르라기 → 호루라기

호청 → 홀청

혼구멍나다 → 혼꾸멍나다

홀애비 → 홀아비

홀홀단신 → 혈혈단신(子子單身)

훗가(呼價) → 호가

훗수(戶數, 號數) → 호수

홀것 → 홀웃

홀겁더기 → 홀겁데기

홀홀하다 → 훗훗하다

환타지 → 판타지(fantasy)=환상곡

회수(回數) → 횡수

횡하다 → 행하다

후라이팬, 후라이팬 → 프라이팬(frypan)

현출하다 → 현철하다

휘둥그래지다 → 휘둥그레지다

휘모리 → 휘모리장단

휘번덕거리다 → 희번덕거리다

휘뿌리다 → 홀뿌리다

휘트니스 → 피트니스(fitness)

횡하니, 횡하다 → 횡허케, 횡하다

흥칙 → 흥측

흐리멍텅하다 → 흐리멍텅하다

흐트리다 → 흘뜨리다

흘으러지다 → 흐트러지다

희노애락 → 희로애락

히로뽕=필로폰

히아신스 → 히아신스(Hyacinth)

힐란(詰難) → 힐난

부록 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4. 정당한 정보 수집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 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 내에 한국기자협회 윤리위원회(기협 윤리위)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 ①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 ②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 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③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 ① 회원은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정보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④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 보도를 지양한다.
- ⑤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⑥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⑦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⑧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⑨ 회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 ⑩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⑪ 회원은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 ①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 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 ② 회원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③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④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 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 ⑤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⑥ 회원은 소속 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쉽게 써라. 모든 글쓰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언론에서도 오랜 지침 같은 문장입니다.**



독립신문은 창간호 논설에서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하고,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라면서 “한글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글로만 적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언어도 공공언어입니다. 언론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_책머리에서